

역사와 융합

제2호 2018. 6. 30

연구논문

이나봐 이와기치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

번역 및 비판 / 이덕일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계보 - 식민사관과 상관성 / 임종권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 - 그 계승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 청산

과제와 방법 / 임찬경

숙신 · 산융 · 동호는 (고)조선의 이칭(異稱) / 황순종

조선왕조 말 개성상인 농업회계 / 허성관

서 평

민족의 근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찬구, 『홍산문화의 인류학적 조명』, 개벽사, 2018

ISSN 2586-2774

역사와 융합

제2호 2018. 6. 30

바른역사학술원

차 례

[연구논문]

이나바 이와기치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

번역 및 비판 / 이덕일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계보 – 식민사관과 상관성 / 임종권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

– 그 계승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 청산 과제와 방법 / 임찬경

숙신 · 산융 · 동호는 (고)조선의 이칭(異稱) / 황순종

조선왕조 말 개성상인 농업회계 / 허성관

[서 평]

민족의 근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찬구, 『홍산문화의 인류학적 조명』, 개벽사, 2018.

부 록

-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 『역사와 융합』 편집위원회 규정
- 『역사와 융합』 투고 및 심사 규정
- 연구 윤리 규정
-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신청서
-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서
- 『역사와 융합』 게재판정 기준
-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의견서
- 알림

『역사와융합』 제2집(2018. 6)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의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¹⁾ 번역 및 비판

이 덕 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Ⅰ. 들어가는 글

Ⅱ.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의 번역 및 비판

Ⅲ. 나가는 글

【국문초록】

조선총독부는 한국 강점 후 한국사를 반도사의 틀로 가두는 역사 왜곡에 나섰다. 한국사에서 대륙사와 해양사를 삭제해서 반도사로 축소한 후 그 북부에는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남부에는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사군=한반도설’의 핵심은 ‘낙랑군=평양설’이었는데, 일본인 학자들은 이를 위해서 여러 논문을 쓰고 고고 유적·유물을 조작했다. ‘낙랑군=평양설’을 주장한 주요 논문의 하나가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의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1910년)」이다. 이나바는 이 논문에서 낙

1) 이는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수회 출신의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 1876-1940)가 일본의 「사학잡지史學雜誌」 제 2면 제2호, 1910에 쓴 논문이다.

량군 수성현이 황해도 수안군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는 한국 국사학계의 태두로 불렸던 이병도의 『한국고대사 연구(1976)』에 그대로 채용되었다. 또한 동북아역사재단은 국고 47억원을 들여서 『동북아역사지도』를 제작하면서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군으로 표기했다. 2015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재단에 그 근거를 물었을 때 이병도의 『한국고대사연구』의 148쪽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위 논문에서 낙랑군 수성현은 황해도 수안군이고, 진(秦)나라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황해도 수안군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이나바는 이런 사실이 『한서 지리지(漢書 地理志)』에 나오니 ‘의심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한서 지리지』에는 황해도 수안군은커녕 한반도에 대한 기술 자체가 없다. 모두 이나바 이와기치가 한사군을 한반도에 있던 것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만든 창작인데, 일체의 사료적 근거가 없는 가짜 역사가 지금까지도 한국 고대사학계에 그대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낙랑군 수성현, 황해도 수안군, 이나바 이와기치, 이병도, 만리장성, 『한서 지리지』

I. 들어가는 글

한국 강단사학계는 ‘낙랑군=평양설’을 이른바 ‘정설’로 추종한다. 낙랑군 속현인 수성현(遂城縣)은 황해도 수안군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국고 47억원을 들여 제작했던 『동북아역사지도』에도 그대로 확인되어 황해도 수안을 낙랑군 수성현이라고 표기했다.²⁾ 2015년 국회에서 이 지도 내용이 문제가 되어 대한민국 국회 동북아역사특위에서 한사군을 한반도 북부로 표기한 사료적

2)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지도』 019-k003-1, 「고구려, 부여와 중국 군현 기원전 108~서기 119년」은 황해도 수안에 낙랑군 수성현을 표기해 놓았다.

근거를 요구했을 때 동북아역사재단은 ‘낙랑군 수성현은 황해도 수안군’이라면서, 그 근거 사료로 이병도의 『한국고대사연구』 148쪽만을 근거로 제시했다.³⁾ 다음의 유명한 구절이다.

“수성현(遂城縣)…자세하지 아니하나,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遂安)에 비정하고 싶다. 수안에는 승람 산천조에 요동산(遼東山)이란 산명이 보이고, 관방조(關防條)에 후대 소축(所築)의 성이지만 방원진(防垣鎭)의 동서행성의 석성(石城)이 있고, 또 진지(晉志)의 이 수성현조에는—맹랑한 설이지만—「진 대장성지소기(秦代長城之所起)」라는 기재도 있다. 이 진장성설은 터무니 없는 말이지만 아마 당시에도 요동산이란 명칭과 어떠한 장성지(長城址)가 있어서 그러한 부회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릇된 기사에도 어떠한 꼬투리가 있는 까닭이다.”⁴⁾

이 구절에 대해서 필자는 이미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2009)』에서 조목조목 반박했고, 이병도의 윗글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지도』는 이병도의 윗 구절을 유일한 근거로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으로 비정해서 또 한 번 충격을 주었다.

더 큰 문제는 ‘낙랑군 수성현=황해도 수안군설’이 이병도의 연구결과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의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의 내용을 표절한 것이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는 한국

3) 동북아재단에서 국회 동북아역사왜곡 특위에 제출한 낙랑군 수성현의 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주제	국가	시기	분류	위치	논자	출전	전거	원문
낙랑군 遂城縣	前漢	B.C. 108~313년	지점	황해도 遂安郡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48쪽		

4) 이병도, 「낙랑군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148쪽. 2001년 중판도 같은 내용이다.

학중앙연구원 산하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공모한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과 국가건설론 연구』라는 과제에 단독 응모해서 사업을 수주했다. 5가지 사업목적 중 첫 번째가 ‘조선사편수회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이었는데, 국내의 거의 모든 역사학 관련 단체가 조선사편수회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는 이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과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I』를 저술했다.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은 조선총독부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한 것이고,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I』는 조선총독부의 ‘한사군 한반도설’을 비판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I(임나일본부설 비판)』은 무사통과되었으나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한사군 한반도설 비판)』는 거듭해서 출간금지(F) 등급이 내려졌다.

그런데 심사평에 심사자의 심사분야도 아니었던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I』에 실린 ‘나가 미츠요의 『조선고사고』, 쓰다 소키치의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관하여』 등 원사료를 번역하고 해제해서 저서의 부록으로 집필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이러한 왜곡된 한국 고대사상을 서술한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저작을 번역까지 해서 저술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식민사학의 논리와 그릇된 한국사상을 보급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F의 논거로 삼았다. 자신의 심사분야인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한사군 한반도설 비판)』을 넘어서는 무리수까지 둔 것은 한국 강단사학계의 영원한 스승인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원문이 번역되고 해제되어 일반 국민들이 알 것을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I(한사군 한반도설 비판)』에 이병도가 표절한 이나바 이와기치의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를 번역하고 해제 비판했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교토대의 나이토 고난(內藤湖南)에

게 사사(師事)하고 1900년 북경으로 유학갔다. 1908년부터 만철(滿鐵) 조사부에서 ‘만주역사지리’ 편수(編修)에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 1925년부터 조선총독부 수사관(修史官)으로서 『조선사(朝鮮史)』 35권을 편수(編修)했다. 1937년 만주건국대(滿洲建國大) 교수를 역임했다.

이병도는 이나바 이와기치의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를 표절해서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군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나바 이와기치는 무슨 논리로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군이라고 주장했는지 살펴보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심사자들이 왜 이것이 번역 비판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II.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의 번역 및 비판⁵⁾

진(秦) 장성(長城) 동단(東端:동쪽 끝)을 기록한 것은 『사기(史記)』 「흉노전(匈奴傳)」에, “연나라도 장성을 축조했는데, 조양(造陽)에서 시작해 양평(襄平)까지 이르렀다”⁶⁾고 했으며, 또한 “후에 진(秦)나라가 6국(六國)을 멸망시킨 후 북쪽으로 호(胡:흉노)를 공격하게 해서 하남(河南) 땅을 모두 거두었다. 하수를 따라서 요새를 만들고 44개 현성(縣城)을 쌓고, 하수에 임해서 죄수와 수자리 병사들을 이주시켜 채웠다. 그리고 직도(直道:곧게 뻗은 길)를 개통했는데, 구원(九原)에서 운양(雲陽)까지 이르렀다. 변방의 험한 산에 참호를 쌓고 계곡을 따라 보수해서 잘 다스리게 했다. (장성은) 임조(臨洮)에서 일어나 요동(遼東)까지 만리에 이

5) 본문은 이나바 이와기치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고, 주석은 필자가 이나바 이와기치의 논리 및 관련 사료들을 비판한 것이다.

6)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

르렀다⁷⁾라는 것이 있다.

해설자(說者)는 곧 진(秦) 장성(長城)은 전연(全燕:전성기 때의 연나라)의 옛 제도(舊規)에 의(依)한 것이고, 그 ‘요동(遼東)에 이른다(至遼東)’고 한 것은 요동군(遼東郡)의 치소(治所)인 양평현(襄平縣)을 가리킨다고 여겼다. 이 해설은 애초부터 착오(錯誤)이다.⁸⁾

진(秦) 장성(長城)의 동부(東部)가 본래부터 전연(全燕:연나라 전성기)의 규모(規模)에 의(依)한 것은 해설자(說者)의 말 대로이지만 때로 출입(出入)이 있었던 것은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양평(襄平)이 연·진(燕秦) 두 나라에서 다 요동부(遼東部)의 치소(治所:다스리는 곳)인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본문은 다만 장새(鄣塞)가 요동부에 이른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汎說)한 것에 불과하다. 오인(吾人)은 우선 연나라와 진나라의 요동(遼東)의 강역(疆域)을 검색(檢索)하는 것이 아니라면, 장성(長城) 동단(東端)이 과연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또한 어느 변경(何邊)을 둘러싸고 있는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홍노전』에 ‘양평(襄平)에 이른다(至襄平)’는 문장에 기초하여, 굳이 그 고지(故址)를 구해서 이것에 장성이 일어나는 지점(起點)을 두려고 하는 것은 구애되는 것이 또한 심하지 않겠는가.

7) 後秦滅六國，北擊胡，悉收河南地，因河爲塞，築四十四縣，城臨河，徙適戍以充之，而通直道，自九原至雲陽，因邊山險，塹谿谷，可繕者治之，起臨洮至遼東萬餘里 이나바 이와기치는 『사기』 「홍노열전」에서 ‘後秦滅六國’과 ‘北擊胡’ 사이에 있는 ‘而始皇帝使蒙恬將十萬之衆’을 빼고 인용했다. 『사기』 「홍노열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본문과 주석의 해석은 이 책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의 본문에 있다.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當是之時，冠帶戰國七，而三國邊於匈奴。其後趙將李牧時，匈奴不敢入趙邊。後秦滅六國，而始皇帝使蒙恬將十萬之衆北擊胡，悉收河南地，因河爲塞，築四十四縣城臨河，徙適戍以充之。而通直道，自九原至雲陽，因邊山險，塹谿谷可繕者治之，起臨洮至遼東萬餘里。

8) 앞에서 인용한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이란 문장의 양평에 대해서 『사기색은』은 ‘위소(韋昭)가 말하기를, 「지금의 요동을 다스리는 곳이다」라고 했다(韋昭云, 「今遼東所理也」)는 주석을 싣고 있는데 이를 반박하는 것이다. 식민사학자들은 한결같이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와 다르면 모두 틀리다고 말하기 일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연진(燕秦)장성의 동쪽 끝이 한반도 내라는 결론을 내려놓았는데, 요동 양평이라고 나오니까 처음부터 착오하고 부정하는 것뿐이다.

마쓰이(松井) 문학사(文學士)의 「진(秦) 장성(長城) 동부(東部)의 위치에 대하여」『역사지리(歷史地理)』 13의 3호라는 일편(一篇)은 지금의 승덕부(承德府)의 경계를 포괄한 것으로 보아서 종래(從來) 사가(史家)의 좁은 견해(陋)를 깨기에 충분한 것이지만, “연(燕) 장성(長城)의 동단(東端)이 양평(襄平)에 이른다고 한다면 진(秦) 장성(長城)의 동단(東端) 또한 같은 곳으로서 요동에 이른다고 한 것은 그 일(其事)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다. 혹은 양평(襄平)보다도 먼 지점(地點)에 이를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한대(漢代)의 기록에는 그런 증거(證)가 없다. 그렇다면 ‘양평(襄平)은 어디가 될까’라는 일절(一節)은 오인(吾人)이 끝내 동의하기 어렵다.(참고로 말하자면, 『사기』·『한서(史漢)』에 혹은 ‘장성(長城)’이라고 했고, 혹은 ‘장새(鄣塞)’라고 했는데 둘은 같은 것을 달리 말한 것(二者同一他)이다.⁹⁾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요서군(遼西郡) 신안평(新安平) 아래에 ‘신안평현은 이수(遼水)가 동쪽으로 흘러 해외로 들어간다(夷水東入塞外)’라는 구절이 보이고, 교려(交黎) 아래에 ‘교려현은 유수가 첫 번째로 해외를 받아 남쪽으로 들어간다(渝水首受塞外南入海)’¹⁰⁾라는 구절도 보인다. 나아가 대강 불(概見) 만하다)

한대(漢代)의 기록에 진(秦) 장성(長城)의 동단(東端)을 가지고 양평(襄平) 이외의 지역에서 구할 필요 없다고 본 것은 전연(全燕)의 요동(遼東) 강역(疆域)을 고려하지 않은 소견에 다름 아닐 것이다. 만약 과연 이러한 것을 기필(期必)하려면 『사기』 「조선열전(朝鮮列傳)」에,

조선왕 위만은 원래 연나라 사람이다. 처음 연나라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진

9) 혹은 원문의 타(他)자를 지(地)자의 오류로 본다면, ‘둘은 동일한 지역이다(二者同一地)’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10) 이나바는 한나라 때 해외(塞外)가 어디인지를 추정하기 위해 앞의 구절들을 적은 것이다. 『한서』 「지리지」 ‘요서군 교려현’에 대한 전체 주석은 ‘교려현은 유수가 맨 먼저 해외를 받아서 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동부도위의 치소이다. 왕망은 금로라고 했다(交黎, 渝水首受塞外, 南入海, 東部都尉治, 莽曰禽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응소(應劭)는 ‘지금의 창려이다(應劭曰, 『今昌黎』)’라는 주석을 달았다. 지금의 창려는 하북성 소속으로서 한(漢)과 고조선의 국경 역할을 했던 갈석산이 배후에 있는 현이다.

변과 조선을 침략해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어 장새(鄣塞:요새)를 쌓았다.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요동 외요(外徼)에 소속시켰는데, 한나라가 일어난 후 그곳이 멀고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다시 요동의 옛 요새(故塞)를 수복하고 패수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삼아서 연(燕)에 소속시켰다.¹¹⁾

라고 되어 있는 명문(明文)을 어떻게 보아서 내용을 알아차려야(看取)할 것인가. 시험 삼아 본문을 해석하면 한(漢)은 진(秦) 장성(長城)이 멀어서 지키기 어려움을 고려해서 다시 요동의 옛 요새(故塞)를 수리했는데, 그 지점(地點)은 패수(泃水)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진(秦)의 장새(鄣塞)인 패수 이남(以南)의 지역에 이르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패수’란 지금의 대동강(大同江)을 가리킨다.¹²⁾ 만약 해설자(說者)를 따라서 연·진(燕秦)의 장새(鄣塞)가 반드시 동일한 지역(同一地)에서 일어났다(起)고 보면 연·진(燕秦) 장성(長城)이 패수 이남(以南)에 이른다고 여겨야 할 것인가. 양평설(襄平說)은 이에 관해서 모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燕)의 동쪽 경계는 어디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인가. 위략(魏略)을 살펴보면,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朝鮮侯)는 주(周)나라가 쇠약해지는 것을 보고 연(燕)나라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라고 칭하고, 동쪽 지역을 침략하려 하자 조선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역으로 연나라를 공격해서 주나

11) 朝鮮王滿者，故燕人也。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朝鮮，爲置吏築鄣塞。秦滅燕，屬遼東外徼。漢興爲其遠難守，復修遼東故塞，至泃水爲界，屬燕。『사기』, 『조선열전』 한글 번역은 필자가 한 것으로 아래도 같다.

12) 이나바 이와기치는 고조선과 한의 국경이었던 패수를 지금의 대동강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대동강(大同江)이란 용어는 중국 25사 중에서 『명사(明史)』, 『조선열전』과 이성량(李成梁)·여송(如松) 등 부자열전에 처음 등장하는데 모두 임진왜란(1592~1597)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서기 전 2세기 이전의 지명비정을 하면서 16세기 말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나바의 논리는 패수가 대동강이란 전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패수가 대동강이 아니라면 나머지 모든 논리는 무너지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라 왕실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나라 대부 예(禮)가 간쟁해서 그만 두었다. 예를 사신으로 보내서 연나라를 설득하자 연도 그치고 침공하지 않았다. 후에 그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져서 연나라는 장수 진개(秦開)를 보내서 (고조선의) 서방을 공격해서 그 땅 2천여리를 취하고, 만번한(滿潘汗)에 이르러 경계를 삼으니 조선이 점점 쇠약해졌다.¹³⁾

라고 되어 있다. 만번한(滿潘汗)은 전연(全燕)의 동쪽 경계를 가리킨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를 살펴보면, 요동군(遼東郡)의 현명(縣名)에 ‘문(文), 번한(番汗)’이 있는데 서안평(西安平) 다음에 놓여 있다. ‘서안평’은 지금의 압록강(鴨綠江) 입구 구련성(九連城)¹⁴⁾ 부근 지역에 있다는 사실이 『동서(同書:한서 지리지)』 ‘현도군(玄菟郡, 서개마(西蓋馬)’ 조(條)에 “마자수는 서북으로 흘러 염난수에 들어가고, 서남으로 서안평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¹⁵⁾라고 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문현(文) 및 번한현(番汗)’은 마자수(馬訾水) 동쪽 지역에 있다는 사실과 번한(番汗) 아래, “패수는 해외에서 나와서 서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¹⁶⁾라고 되어 있는 데서 살펴 알(察知) 수 있다.

진풍(陳豐)¹⁷⁾은 이렇게 일렀다.

13) 『三国志』 「魏志」, ‘東夷傳 韓’條에 주석으로 달린 ‘魏略’ 기사이다.

昔箕子之後, 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 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 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潘汗爲界, 朝鮮遂弱.

14) 구련성(九連城)은 압록강 신의주 대안의 단동(丹東) 동북쪽에 있다. 이나바 이와기치의 이 주장에 따라서 식민사학은 현재까지도 단동을 한나라 때의 서안평이라고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서』 「지리지」의 어떤 구절도 서안평이 지금의 압록강 입구 구련성 부근 지역이라고 비정하지 않았다.

15) 馬訾水, 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16) 沛水出塞外西南入海.

17) 진풍(陳豐:1810~1882)은 청나라 번우(番禺) 사람으로서 『한유통의(漢儒通義)』·『동숙독서기(東塾讀書記)』·『설문성통(說問聲統)』·『성률통고(聲律通考)』·『동숙중서(東塾叢書)』 등을 썼다. 주로 중국 운학(韻學) 연구에 정통했다고 평가된다.

“지금 조선국 박천성(博川城) 대정강(大定江)¹⁸⁾은 서남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대개 패수(沛水)이다. 마자수(馬訾水)는 새외(塞外)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물이 새외에서 나온다면 반드시 마자수 동쪽을 지나가 마자수의 서쪽 서안평(西安平)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서안평이 요동에 속해 있다면 지금의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 한나라 요동이다. 대정강은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으니 또한 당연히 요동의 땅이 될 것이다. 또 그 강은 서남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니 패수(沛水)가 됨을 알 수 있다.”¹⁹⁾

진풍의 이 설명은 오인(吾人)의 뜻을 얻었다.

정약용이 이르기를, “생각해보니 지금 북경은 우리나라 의주에서 2천1백리 떨

18) 평안북도 박천군(옛 가산)에 있는 강 이름. 진풍의 글은 대정강이 패수라는 희한한 주장이다. 아무런 1차 사료적 논거나 합리적 추론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 ‘요동군’ 조에는 문(文)현과 변한(番汗)현이 나오는데, 변한현에 대해서 “패수가 새외에서 나와서 서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沛水出塞外, 西南入海)”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문·변한현이 만·변한(滿漢)현인 것이다. 이 두현이 한나라 요동군 소속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내로 비정할 수는 없다.

19) 今朝鮮國博川城大定江, 西南流入海, 蓋沛水也, 馬訾水不出塞外, 此水出塞外, 必更在馬訾水之東, 馬訾水之西安平入海, 西安平屬遼東, 今鴨綠江入海處爲遼遠東也, 大定江距鴨綠江入海處不遠, 亦當爲遼東地, 又其水西南入海故知爲沛水也.

양수경이나 진풍같은 청나라 학자들이 한사군을 한반도 내로 끌어들이다 보니 한사군이 있었다는 요동(遼東)이란 지역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압록강도 요동이고, 박천 대정강도 요동이라는 억지를 부린 것이다. 『후한서』 「군국지(郡國志)」는 서안평을 유주(幽州:현 북경 부근) 요동군 속현으로 적고 있고, 같은 책 「고구려 열전」 주석에는 “『군국지』에는 서안평과 대방현은 모두 요동군에 속해 있다(郡國志, 西安平·帶方縣, 並屬遼東郡)”고 설명하고 있으니 서안평과 대방현을 한반도 내로 비정하려면 두 지역이 한반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꿰맞추기를 한 것이다. 서안평에 대해서 신(新)나라를 건국한 왕망(王莽)은 북안평(北安平)이라고 개명했다. 서안평을 압록강 대안 단둥이라고 하기 전에 언제부터 중국에서 동(東)이란 용어를 북(北)으로 바꾸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 『요사(遼史)』 「지리지」 ‘상경도(上京道) 상경임황부(上京臨潢府)’조는 요나라 수도였던 상경 지역에 대해 “상경도 상경임황부는 본래 한나라 요동군 서안평 땅이었다. 신나라 왕망은 북안평이라고 했다(上京道 上京臨潢府, 本漢遼東郡西安平之地, 新莽曰北安平)”고 적고 있다. 상경임황부는 현재 내몽골 파림좌기(巴林左旗)지역으로서 이 지역이 서안평이라면 왕망이 북안평이라고 부른 방위 개념과도 고구려가 태조왕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한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략했던 이유와도 맞아 떨어진다.

어져있다”²⁰⁾라고 했는데, 연(燕)이 북경(北京)의 동쪽, 지금의 계(薊)에 도읍했다면, 현장(賢將) 진개(秦開)가 2천여리를 개척했다²¹⁾는 곳은 멀리 압록강을 넘어, 박천의 대정강(大定江: 지금의 청천강(淸川江)을 말한다)²²⁾ 즉 만번한(滿潘汗)에 이른다고 단정해도 대차(大差: 큰 차이)가 없으니, 기자(箕子) 후의, 조선후(朝鮮侯)의 강역(疆域)은 이 지점에서 경계 지워진다. 이는 실로 전연(全燕) 전성기 때의 동쪽 강역(東疆)에 관계된다²³⁾.

해설자(說者)가 혹은 의심하기를 ‘연(燕)은 본래 미약(微弱)해져서 이미 중국 땅(中土)의 제후와 서로 지지 않고 대항(抗衡)할 수 없는데, 어찌 능히 진번조선(眞番朝鮮)을 침략(略)할 수 있겠는가, 만번한(滿潘汗)의 땅은 마땅히 저절로 요하(遼河) 유역에 있어야 할 것’이라 여긴다. 옹하여 말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아

20) 按今北京距我義州二千一百里.

21) 拓地二千餘里.

22) 대정강은 박천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청천강과는 다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평안도 박천군(博川郡) 조는, “박천강(博川江): 옛 이름은 대령강(大寧江)인데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는 대정강(大定江)이라고도 써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대명일통지』를 보고 혼동한 듯 하다.

23)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의 「지리지(6집) 강역고」, 「조선고(朝鮮考)」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정약용)가 생각하기에(鑄案) 지금의 북경은 우리나라 의주에서 2천1백리 떨어져 있다. 만약 『위략(魏略)』의 말과 같다면 압록강 서쪽 땅을 잃었을 뿐이다. 어찌 다시 만번한을 수복해서 경계로 삼았겠는가? 그 설이 망령되다. 그러나 기씨(箕氏)가 개척한 땅이 멀리 요수(遼水)를 지났다면 이를 검증할 수 있다……『명일통지(明一統志)』에서 말하기를 “조선성은 영평부 경내에 있는데, 기자(箕子)가 봉함을 받은 지역이라고 서로 전하고 있다. 후위(後魏)에서 현을 설치해서 북평군(北平郡)에 소속시켰다가 북제(北齊)에서 현을 없애고 신창현(新昌縣)에 편입시켰다. 내(정약용)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영평부는 옛 북평군이다. 또한 『위략』에 근거한다면 만번한 서쪽 2천여리는 옛날 기씨의 소유였다. 지금 요동으로부터 서쪽으로 2천여리를 가면 영평부 경내이니 『일통지』가 말한 것이 진실로 근거가 있다.(○鑄案今北京, 距我義州二千一百里. 若如魏略之說, 遂失鴨江以西矣. 寧復得以滿潘汗爲界哉, 其說妄矣. 然箕氏拓地, 遠過遼水, 斯可驗也……○明一統志云, 朝鮮城, 在永平府境內, 相傳箕子受封之地, 後魏置縣, 屬北平郡. 北齊省入新昌縣. ○鑄案今之永平府, 古之北平郡也. 且據魏略, 潘汗以西二千餘里, 在古爲箕氏之有, 今自遼東而西, 行二千餘里, 正得永平府境一統志所言眞有據也)”

정약용은 『위략』의 말이 맞다면 고조선이 연나라에 빼앗긴 땅은 압록강 서쪽이지 한반도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통지』에 근거해 영평부, 즉 지금의 하북성 노룡(盧龍)현이 옛 기자가 봉한 고조선 지역임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정약용의 이런 논리는 모두 배제하고 마치 정약용이 ‘의주에서 북경까지 2천1백리’라고 말한 대목만 뜯어내서, 박천의 대정강을 만번한이라고 한 이나바의 문장과 함께 연결시킴으로써 마치 정약용이 대정강이 만번한이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사학자들의 부도덕한 태도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니다. 연(燕)이 중국 땅과 서로지지 않고 대항할 수 없었기에 곧 능히 땅을 조선에 개척한 소이(所以)다. 연(燕)은 서쪽에 삼진(三晉)이 있고 남쪽에 제초(齊楚)가 있으며 현장(賢將) 진개(秦開)가 동호(東胡)를 습파(襲破: 습격해서 깨뜨림)하여 동북(東北)으로 능히 천여 리에 이르는 멀리까지 틈을 냈지만, 그럼에도 재화(貨財)를 채취하여 이익을 취할 바가 없었다. 이 재화가 있는 것은(これあるは) 다만 동방(東方)의 한예(韓濊)의 지역이었을 것이다. 『사기』 「화식전(貨殖傳)」에 연(燕)에 대한 것을 기록해서 이르기를 “동쪽 예맥 · 조선 · 진번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모두 차지했다”²⁴⁾라고 했다. 오인(吾人)은 이러한 정세를 살펴서 연(燕)의 동방경략(東方經略)이 압록수(鴨綠水)를 지났다고 즉시 단정하는데 어떠한 주저함이 있음도 인정할 수 없다.

진(秦)의 장새(鄣塞) 동단(東端)은 어느 지역에서 기(起: 시작)했을까, 『사기』 「조선열전」에 이렇게 일렀다.

연왕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위만도 망명했다. 무리 1천여 명을 모아서 북상투에 만이(蠻夷) 복장을 입고 동쪽으로 달아나서 요새(塞)를 나와서 패수를 건너 진(秦)의 옛 빈땅인 상하장(上下鄣)에 살았다. 점차 진번, 조선의 만이(蠻夷) 및 옛 연(燕) · 제(齊)나라의 망명자들을 복속시켜 왕이 되었는데, 왕험에 도읍했다.²⁵⁾

이렇게 패수(湏水) 서쪽에 요새(塞)가 있는데, 그것을 한(漢)의 장새(鄣塞)라

24) 東綰濊貊朝鮮番之利. 이는 『사기』 129권 「화식열전(貨殖列傳)」의 내용이다. 이 대목은 '무릇 연은 발해와 갈석산 사이에 있는 큰 고을이다(夫燕亦勃、碣之間一都會也)'로 시작한다. 이 구절에 대해 『사기 정 의(正義)』는 '발해와 갈석산의 서북쪽에 있다(勃海、碣石在西北)'라고 말했다. 즉 연나라는 지금의 하북성 창려현에 있는 갈석산 서쪽에 있는 국가라는 뜻으로써 한반도 내로 들어올 수 없다. 이나바 이와기치도 이 내용을 봤겠지만 자신이 미리 내려놓은 결론과 다르기 때문에 무시해 버린 것이다.

25)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魋結蠻夷服, 而東走出塞, 渡湏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真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 王之, 都王險.

보았다. 위만이 망명했을 때 한(漢)의 장새(鄣塞)를 나와서 패수를 건너서, 그리 하여 진의 ‘옛 빈 땅 상하장(故空地上下鄣)’에 있었다고 한다면 진(秦) 장성(長城)의 기점(起點)은 패수 이남의 지역에 있다.

전문(前文)에, “한나라가 일어나서 그곳이 멀어서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는 패수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삼았다”²⁶⁾라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한다 해도, 진 장성이 패수 이남에서 일어나는(起) 것을 가릴(掩) 수는 없다. 그래서 오인(吾人)은 이 기점을 가지고, 낙랑군 수성(遂成)현이라고 본다.

진(晉) 태강(太康) 3년 지기(地記)에,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고, 장성이 일어나는 곳이다”²⁷⁾라고 했고, 『진서(晉書)』 「지리지(地理志)」에 이르기를 “낙랑군 수성현은 진나라에서 쌓은 장성이 일어나는 곳이다”²⁸⁾라고 했다. 이 기록은 장성의 동단(東端:동쪽 끝)의 위치를 결정할만한 철로 만든 단안(鐵案)이다. 수성(遂城)의 수성(遂成:비로소 완성됨)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지위(位地:위치)의 비정(比定)에 이르러서는, 이설(異說)이 없지 않다.

정약용은 『통전(通典)』의 설에 따르면 수성(遂城)은 지금의 의주(義州) · 창성(昌城) 지역인가, 압수(鴨水:압록강)의 경계인가, 그렇지 않다면 압수의 서쪽으로, 지금의 수책(樹柵:목책)의 동두(東頭:동쪽 끝) 지역일 것인데²⁹⁾, 정약용이 패

26) 漢興爲其遠難守，復修遼東故塞，至泃水爲界。

27) 遂城縣，有碣石山，長城所起。

28) 樂浪郡遂城縣，秦築長城之所起。

29) 이나바 이와기치는 정약용의 글을 편린만 인용해서 비판하고 있다. 정약용의 이 주장은 뒤에서도 다시 나오는데, 그때 자세히 제시할 것이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지리지(6집)」 「강역고(疆域考)」의 「낙랑고(樂浪考)」에서 정약용은 “『사기』 「태강지리지」에서, ‘낙랑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된다’라고 말했다”고 인용하고는 『통전』에서는 “갈석산은 한 낙랑군 수성현에 있다. (만리)장성이 이 산에서 시작된다.”라는 문장을 인용했다. 그리고는 “내(정약용)가 생각하기에 통전의 설과 같다면 수성은 곧 지금의 의주, 창성의 땅으로서 압록강의 경계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 압록강 서쪽이니 지금 수책(樹柵:목책)의 동두(東頭:동쪽 끝)의 땅이다(鑄案若如通典之說，則遂城，當在今義州昌城之地，鴨水之界。不然，或在鴨水之西，今樹柵東頭之地也)”라고 말했다. 정약용은 낙랑군 수성현을 의주 · 창성의 압록강 경계든지, 압록강 건너 서쪽 만주의 목책의 동쪽 끝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나바 이와기치는 정약용의 논리를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고래로 패수는 대동강’이니 다른 모든 견해를 틀렸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다.

수의 해설에 의심이 있다면 이렇게 이의(異議)를 제기하는 것을 면할 수 없겠지만 패수가 고래(古來)로 유일(唯一)하게 대동강(大同江)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상 수성(遂成)을 이러한 지방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여겼다³⁰⁾. 조지연(趙志淵)³¹⁾도 정약용의 원고(原考)를 의심해서 이렇게 말했다.

고구려사에 따르면 태무신왕 21년에 낙랑을 습격해서 멸망시켰는데, 그후 7년 후에 한 광무제가 낙랑을 정벌해서 그 지역을 취하고 살수 이남을 한나라에 속하게 만들었다. 동천왕 21년에 고구려가 평양성을 축조했다는 말은 즉 살수 이북의 지역과 평양성이 고구려의 소유라는 말이다. 이미 한(漢)나라와 위(魏)

30) 낙랑군 수성현의 위치를 찾는데 중요한 기준은 갈석산이다. 『통전』에서는 갈석산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평주(平州)는 지금의 노룡현(盧龍縣)인데, 은나라 때 고죽국(孤竹國)이었고, 춘추 때는 산옹·비자(山戎肥子) 두 나라의 땅이었다. 지금 노룡현에는 옛 고죽성이 있는데, 백이·숙제의 나라였다. 전국시대 때는 연(燕)에 속해 있었고, 진(秦)나라 때는 우북평 및 요서 두 군의 경계였다. 전한과 후한이 이를 따랐고, 진(晉)나라 때도 요서군(遼西郡)에 속해 있었다. 후위(後魏) 때도 요서군이라고 했는데, 수나라 초에 평주(平州)를 설치했다가 양제 초에 주를 폐지했다가 다시 북평군(北平郡)을 설치했다. 대당(大唐)에서는 이로 인해 북평군을 설치했는데, 소속된 현이 셋이었다.

노룡현은 한나라 때 비여현(肥如縣)인데, 갈석산(碣石山)이 있다. 갈(碣)은 바닷가에 비석을 세워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진 태강 지리지에 말하기를, “진나라에서 장성을 축조할 때 갈석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고려의 옛 경계인데, 이 갈석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나라 요서군의 옛 성이 지금 군의 동쪽에 있는데, 또 한나라 때 영지현성(令支縣城)이 있다. 임려관(臨閼關)의 지금 이름은 임유관(臨榆關)인데, 현성(縣城) 동쪽 180리에 있다. 노룡새(盧龍塞)는 성의 서북쪽 2백리에 있는데, 석성이 한나라의 옛 현이다. 『통전(通典)』 권(卷) 178, 『주군전(州郡典)』.

平州今理盧龍縣，殷時孤竹國，春秋山戎、肥子二國地也。今盧龍縣，有古孤竹城，伯夷、叔齊之國也。戰國時屬燕，秦爲右北平及遼西二郡之境，二漢因之，晉屬遼西郡，後魏亦曰遼西郡，隋初置平州，煬帝初州廢，復置北平郡，大唐因之，領縣三：盧龍漢肥如縣，有碣石山，碣然而立在海旁，故名之。晉太康地志云：「秦築長城，所起自碣石，在今高麗舊界，非此碣石也。」漢遼西郡故城在今郡東。又有漢令支縣城，臨閼關今名臨榆關，在縣城東一百八十里。盧龍塞在城西北二百里。石城漢舊縣。『通典』卷178，『州郡典』。

현 중국 경내에 갈석산은 여러 곳이 있다. 하북성 창려현 북쪽의 갈석산과 산둥성 빈주(濱州) 시 대산진(大山鎭)에도 갈석산이 있다. 2005년 빈주시는 대산진을 갈석산진으로 개명했다. 또 대갈석산과 소갈석산도 있었고, 바닷물에 잠긴 해변 갈석산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고대 한나라와 고조선의 국경 역할을 했던 갈석산이 어디인가 하는 점인데, 이중 가장 동쪽에 있는 갈석산이 현재의 창려현 갈석산이다.

31) 조지연은 누군지 알 수 없다. 비교적 무명인 인물의 글을 제시하려면 최소한 어느 책에서 보았는지 정도는 제시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라 사이에 의주·창성 등은 밀우에 의해서 고구려의 국도가 되었는데, 수성 일현(一縣)이 어찌 낙랑군의 통현(統縣)이 될 수 있겠는가? 이에 근거하면 즉 수성(遂城)이 수안(遂安)이 되었다는 설이 아마도 그럴듯하다.³²⁾

이 설은 참으로 쯤사람의 뜻을 얻었다.

『한서』 「지리지」의 수성(遂成)은 증지(增地)의 이웃현(隣縣)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패수와 떨어진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 「지리지」 낙랑군 아래 ‘수성(遂成), 증지(增地)’라고 되어 있다. 패수현 아래에 “물이 서쪽으로 증지에 다다라서 바다에 들어간다.”³³⁾라고 보인다. ‘수(水)’는 패수를 가리킨다.³⁴⁾

32) 據句麗史, 太武王二十年, 襲樂浪滅之, 後七年漢光武伐樂浪, 取其地, 薩水以南屬漢, 東川王二十一年, 句麗築平壤城云, 則薩水以北之地, 及平壤之城, 句麗所有者, 已在漢魏之際, 而義州昌城等, 地尤爲密邇句麗國都, 遂城一縣, 惡得爲樂浪郡統縣也, 據此則遂城爲遂安之說恐然.

33) 水西至增地入海.

34) 『한서』 「지리지」의 낙랑군(樂浪郡)조는 다음과 같다. 일본과 국내의 식민사학자들이 이를 가지고 낙랑군을 한반도 내로 끌어들이는 전거로 삼았기 때문에 과연 그런지 조금 길지만 원문과 주석까지 모두 소개하겠다. 반절(反切)로 발음을 소개하는 주석은 생략했다. 낙랑군—무제 원봉 3년(서기전 108) 설치되었다. 왕망은 낙선군(樂鮮郡)이라고 말했는데, 유주(幽州)에 속해 있다.(응소는 옛 조선국이라고 말했다) 호수는 6만2천812호이고, 인구는 40만6천748명이다.(운장(雲郞)이 있었다) 25개 현이 있다. 조선현(응소는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말했다) 남감(言+丹)현, 패수현—물이 서쪽으로 증지에 달아서 바다로 들어간다. 왕망은 낙선정(樂鮮亭)이라고 불렀다. 함자(含資)현—대수(帶水)가 서쪽으로 흘러 대방(帶方)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점제(黏蟬)현, 수성(遂成)현, 증지(增地)현—왕망은 증토(增土)라고 불렀다. 대방(帶方)현, 사망(騁望)현, 해명(海冥)현—왕망은 해환(海桓)이라고 불렀다. 열구(列口)현, 장금(長岑)현, 둔유(屯有)현, 소명(昭明)현—남부도위(南部都尉)의 치소이다. 누방(鑊方)현, 제해(提奚)현, 혼이(渾彌)현, 탄열(吞列)현—분려산(分黎山)에서 열수(列水)가 나오는데, 서쪽 점제(黏蟬)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며, 거리는 820리이다. 동이(東曉)현, 불이(不而)현—동부도위의 치소이다. 잠대(蠶台)현, 화려(華麗)현, 사두매(邪頭昧)현, 전막(前莫)현, 부조(夫租)현. 『한서』 「지리지」 ‘낙랑군’.

樂浪郡, 武帝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應劭曰:「故朝鮮國也」)戶六萬二千八百一十二, 口四十萬六千七百四十八(有雲郞)縣二十五:朝鮮(應劭曰:「武王封箕子於朝鮮」)言+丹郡, 涓水, 水西至增地入海, 莽曰樂鮮亭, 含資, 帶水西至帶方入海. 黏蟬, 遂成, 增地, 莽曰增土. 帶方, 騁望, 海冥, 莽曰海桓. 列口, 長岑, 屯有, 昭明, 南部都尉治. 鑊方, 提奚, 渾彌, 吞列, 分黎山, 列水所出, 西至黏蟬入海, 行八百二十里. 東曉, 不而, 東部都尉治. 蠶台, 華麗, 邪頭昧, 前莫, 夫租. 『漢書』 「地理志」 樂浪郡.

이것이 『한서』 「지리지」의 낙랑군(樂浪郡)조의 전부 조항인데, 이를 가지고 워낙 외국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전문을 소개했다. 이 원전을 염두에 두고 이나바 이와기치의 주장을 검증해 보면 외곡 여부를 쉽게 판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패수’는 지금의 대동강이고, ‘증지’는 지금의 진남포(鎭南浦) 서쪽이고, 강서(江西)쪽은 용강(龍岡: 평안남도 용강군)을 가리킨다. ‘증산(甞山)’은 어쩌면 이것의 남은 명칭(遺稱)이 아닐까. 오인(吾人)은 지금 수성(遂成)을 증지의 이웃현(隣縣)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비정(比定)하려고, 패수를 건너서 남쪽으로 가지 않으면 진(秦)의 상하장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니 ‘수성(遂成)’은, 패수 이남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지당하다.³⁵⁾ 『색은(索隱)』에 이르기를 “『한서』 지리지의 살피보니 낙랑군에 운장이 있다”³⁶⁾고 했는데, ‘운장’은 곧 상하장(上下鄣)을 가리킨다.³⁷⁾ 위만(衛滿)이 망명(亡命)했을 때 패수를 건너서 소위 ‘운장’에 들어간다.³⁸⁾

35) 이나바 이와기치는 ‘패수가 왜 대동강인지, 증지가 왜 진남포인지, 강서가 왜 용강군인지’ 아무런 1차 사료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그렇다고 단정하고 있다. 결론을 내려놓고 위치비정을 하는 식민사학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가련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나바 이와기치도 필자나 정약옹과 마찬가지로 『사기』·『한서』·『통전』 등의 사료를 봤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료들은 이구동성으로 낙랑군의 위치는 현재의 하북성 지역으로 나온다. 이런 사료들을 굳이 못 본 척하고 한반도로 끌어들이야 하는데 아무런 1차사료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보니 강한 어조로 단정 짓는 어거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거가 없을수록 어조는 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식민사학자들이 단정적으로 위치비정할 경우 ‘근거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아들 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료를 근거로 설명하는 역사학의 방법론에서 크게 벗어났으니 역사학이 아니다.

36) 案地理志, 樂浪有雲鄣.

37) 『사기』 「조선열전」의 상하장(上下鄣)에는 “『색은(索隱)』: 조사해보니, 『한서』 지리지에는 낙랑군에 운장이 있다(『索隱』案: 地理志樂浪有雲鄣)”는 문장이 있다. 여기에 이나바 이와기치는 ‘운장’은 곧 상하장(上下鄣)을 가리킨다’는 자신의 문장을 삽입해 마치 『사기』 「조선열전」에서 운장을 곧 상하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뒤섞어 놓은 것이다. 낙랑군에 있는 운장이 상하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원문과 자신의 문장을 구별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뒤섞어 놓아서 자신의 문장이 『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기치는 수법이다.

38) 『사기』 「조선열전」에는 위만이 ‘패수를 건너 진나라의 옛 빈땅인 상하장에 거주했다(渡溟水, 居秦故空地上下鄣)’고 나오는데, 이 대목에 『사기 색은』에서 “조사해보니, 『한서』 「지리지」에 낙랑군에는 운장이 있다(『索隱』案: 地理志樂浪有雲鄣)’고 주석을 달았다. 운장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위만이 도읍한 왕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사기 주석가들이 위치를 비정해 놓았다.

『사기집해』 서광이 말하기를 ‘창려에 함독현이 있다’고 했다. 『사기색은』, 위소가 말하기를 ‘옛 읍의 이름이다’라고 했다. 서광은 ‘창려에 함독현이 있다고 했다’, 응소가 주석하기를, ‘지리지에는 ‘요동의 함독현이 조선왕 위만의 도읍이다’라고 했다. 신찬은 말하기를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고 했다. 『사기』 「조선열전」, 함독현 주석.

『集解』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索隱』韋昭云「古邑名」, 徐廣曰「昌黎有險瀆縣」, 應劭注「地理志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 臣瓚云「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也. 『史記』 「朝鮮列傳」, 險瀆縣 註釋.

『위략(魏略)』³⁹⁾에 이렇게 일렀다.

“이때에 이르러 한나라에서 노관(盧綰)을 연왕(燕王)으로 삼으니 조선과 연은 패수를 경계로 삼게 되었다.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연 나라 사람 위만은 망명하는데, 호복(胡服)을 입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준왕(準王)에게 항복했다. 준왕을 설득해 서쪽 경계에 거주하기를 구해서 중국의 망명자들로써 조선의 변방(藩屏: 울타리)이 되겠다고 했다. 준왕이 이를 믿고 총애해서 박사를 제수하고 홀(圭)을 하사하면서 백리의 봉토를 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도록 명했다.”⁴⁰⁾

본문에 따르면, ‘운장’은 ‘기준(箕準: 기자조선 임금 기준)의 서쪽 경계(西界)’로서 한(漢)과 조선(朝鮮)의 변강(邊疆)에 걸리고, 패수 연변(沿邊)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리의 봉토를 주어서 서쪽 변경을 지키도록 했다”⁴¹⁾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략 상하장(上下鄣)의 전체 강역(全境)을 가리키는 것으로, 진(秦) 장성(長城)의 동단도 이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수성(遂成)이 곧 지금의 수안(遂安: 황해도)이라는 것’은 『고려사』 지리지에, “수안은 본래 고구려 장새현이다. 일운 고소어라고 한다”⁴²⁾라고 보인다.⁴³⁾

이나바 이와기치는 하북성 장려에 있다는 험독현을 대동강 남안의 토성동으로 비정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쓴 것이니 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주석들을 못본 체 하고 대동강 남안으로 비정해야 하니 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나바 이와기치의 이런 창작이 현재까지도 한국 주류 식민사학계의 정설로 행세하고 있다.

39)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韓)조’에 삽입된 『위략(魏略)』을 뜻하는데, 현재 위략 자체는 전해지지 않는다.

40)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韓)조’ 及漢以盧綰爲燕王, 朝鮮與燕界於泅水, 及綰反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泅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故中國亡命爲朝鮮藩屏, 準信龍之, 拜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41) 封之百里, 令守西邊

42) 遂安本高句麗鄣塞縣(一云古所於)

43) 이나바 이와기치는 낙랑군 수성현(遂城縣)을 황해도 수안현(遂安縣)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남(西南)에 자비령(慈悲嶺)이 있고, 동북(東北)에 요동산(遼東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자비령은 험(險)해서 경성 의주 간의 가장 험준한 길⁴⁴⁾이라고 일컬어지고, 대동강 유역과 한수(漢水)의 하우(河盂:물이란 뜻인 듯)은 수안(遂安) 부근의 산맥에서 남북을 가르는 것이라 되어 있다. 자비령은 곧 ‘절령(岬嶺)’으로, 고려 원종(元宗) 때 몽고와의 국경 경계(國界)에 관계된다.

『신증 동국여지승람』 황해도 서흥도호부(瑞興都護府)의 산천(山川)조에, “자비령(慈悲嶺)은 부(府)의 서쪽 60리에 있는데, 일명 절령(岬嶺)이라고 한다. 평양에서 서울로 통하는 옛길이다. 세조 때에 호랑이의 피해가 많았고, 또 중국 사신이 대개 극성로(棘城路)로 통행했으므로, 그 길은 드디어 폐지되었다”⁴⁵⁾라고 했으니 이로써 이길을 오가는 것의 어려움을 알 만하다. 직접 다녀본 사람(親歷者)의 설에 따르면, 가장 경사가 급한(最急) 곳은 높이가 약 80간(間)이고 경사가 3분의 1 가량이고 수목이 울창⁴⁶⁾하며 절벽(斷崖)이 깎아지른 듯하다. 고개길(阪路)은 돌이 겹겹이 쌓였는데(石層重疊) 가운데를 가는 것(中央躡)처럼 약방의 버루같은 형상(藥研之狀)을 이루고 이리저리 굽어서(迂餘曲折) 보행조차 또한 어렵

그 근거는 수(遂)자가 같다는 것인데, 아마도 고구려 때 장새현(獐塞縣)으로서 새(塞)자가 들어가는 것도 감안했을지 모른다. 해당 조항의 고려사 해석문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수안현은 본래 고구려 장새현이다(일설에는 고소어라고도 한다). 신라 때는 서암군이 관할하는 영현(領縣)이었는데 고려초에 수안으로 개명하고, 곡주(谷州) 관할로 소속시켰다가 후에 현령을 두었다. 충선왕 2년에 원나라의 사랑을 받는 환관 이대순(李大順)의 요청으로 수주(遂州)로 승격시켰다(일설에는 이 군사령 이연송(李連松)이 나라에 공로가 있다고 군으로 승격시켰다고 한다. 『고려사』 58권, 지리지 3, 서해도.

本高句麗獐塞縣(一云古所於), 新羅時, 爲栖巖郡領縣. 高麗初, 改今名, 屬谷州任內, 後置縣令. 忠宣王二年, 以元嬖宦李大順之請, 陞爲遂州(一云, 以郡人李連松, 有勞於國, 陞爲郡. 『高麗史』 卷五十八, 『地理志』三, 西海道.

『고려사』 지리지를 통해서 수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낙랑군이 설치된 지 1천여년이 지난 고려 때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이나바가 기뻐던 수(遂)자 한 자도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것이다.

44) 最難阪路

45) 『신증 동국여지승람』 권41, 황해도, 서흥도호부(瑞興都護府) 산천(山川) 조. 慈悲嶺, 在府西六十里, 一名岬嶺, 自平壤通京都舊路也, 世祖朝以多虎害, 且中朝使臣, 皆由棘城路以行, 其路遂廢.

46) 樹木鬱蒼

다고 할 만하다.⁴⁷⁾

진(秦) 장성(長城)의 동단(東端)은 지금의 조선 황해도 수안(遂安)의 강역(境)에서 기(起)하여 대동강 상원(上源)으로 나와서 청천강(淸川江)을 끊고(截), 서북으로 달려, 압록강 및 동가강(修家江)의 상원(上源)을 돌아서 개원 동북 지역으로 나온다는 사실은 『한서』 「지리지(漢志)」에 의해서 의심할 바 없다⁴⁸⁾(참고로 말하자면, 낙랑군 패수(溍水) 조(條)에 패수(溍水)의 새외(塞外)에서 온(來)다고 말하지 않았고, 요동군 번한(番汗) 조(條)에 패수(沛水)는 새외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현도군(玄菟郡) 고구려 조(條)에, “남소수는 서북으로 새외를 지난다(南蘇水西北經塞外)⁴⁹⁾”라고 있는 것이 장성(長城)의 위치임을 개견(概見)할 만하다) 종래(從來)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애매모호함 속에 묻어두었다는 사실이

47) 이런 문장을 일러서 연문(衍文)이라고 한다. 아무 내용 없는 군더더기일 뿐이라는 뜻이다.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비령이 험한 것을 잔뜩 나열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인가?

48) 이나바 이와기치는 진 장성의 동쪽 끝이 황해도 수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서』 「지리지」에 의해 의심할 것이 없다”고 썼다. 필자는 이미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를 앞에서 전제했다. 『한서』 「지리지」 ‘낙랑군’조뿐만 아니라 『한서』 「지리지」 전체에 한반도에 관한 서술은 단 한자도 없다. 한(漢) 나라 사람들에게 동쪽 끝은 갈석산이었지 한반도 자체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49) 식민사학의 근거를 파헤치려면 이들이 근거라고 제시한 1차 자료를 직접 검토해야 한다. 『한서』 「지리지」 ‘현도군’조를 보자.

현도군. 무제 원봉 4년(서기전 107)에 설치되었다-고구려를 왕망은 하구려(下句驪)라고 불렀는데, 유주(幽州)에 속해 있다(응소가 말하기를 옛 진번인데, 조선 호국(胡國:이민족 국가)라고 했다) 호수는 4만5천6호이고, 인구는 22만1천845명이다. 현은 셋이 있다. 고구려현-요산(遼山)에서 요수(遼水)가 나와서 서남(西南)쪽으로 요대(遼隊)에 이르러 대요수(大遼水)로 들어간다. 또 남소수(南蘇水)가 있는데 서북쪽으로 새외(塞外)를 지난다(응소는 옛 구려호(句驪湖:구려 이민족)이라고 했다) 상은태(上殷台)현-왕망은 하은(下殷)이라고 했다. 서개마(西蓋馬)현-마자수(馬訖水)가 서북쪽으로 염난수(鹽難水)로 들어가서 서남쪽으로 서안평(西安平)에 이르렀다가 바다로 들어가는데, 2개 군을 지나면서 2천1백리를 간다. 왕망은 현도정(玄菟亭)이라고 했다. 『한서』 「지리지」 ‘현도군’조.

玄菟郡. 武帝元封四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應劭曰:「故真番, 朝鮮胡國」). 戶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 遼山, 遼水所出, 西南至遼隊入大遼水. 又有南蘇水, 西北經塞外(應劭曰:「故句驪胡」). 上殷台, 莽曰下殷. 西蓋馬. 馬訖水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過郡二, 行二千一百里. 莽曰玄菟亭. 『漢書』 「地理志」 「玄菟郡」.

이나바 이와기치는 고구려 조에서 “요산에서 요수(遼水)가 나와서 서남쪽으로 요대에 이르러 대요수(大遼水)로 들어간다”는 앞 구절은 못본 채했다. 요수는 만주에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남소수(南蘇水)를 끌어들여 장성의 동쪽 끝이 수안임을 말해주는 문장인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이쯤되면 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만하다.

지금 그 원인을 깊이 생각(覃思)하니, ‘평양 즉 왕함성’ 설은, 근본적인 의혹을 발생하게 하는 것(釀生)인데, 이 설(說)은 『괄지지(括地志)』에서 비롯되었다. 『괄지지』에는 이르기를,

고구려의 도읍 평양성은 본래 한나라 낙랑군 왕함성이다. 옛날에는 조선땅이었다고 일렀다”⁵⁰⁾

라고 했는데, 이 설이 나오고부터, 『통전(通典)』은, “그 왕이 거주한 평양성은 즉 한나라 낙랑군 왕함성인데 또한 장안성이라고 말했다”⁵¹⁾라고 했고, 『후한서』 「동이전」 주석에는 “평양 즉 왕함성이다”⁵²⁾라고 했고, 『당서』⁵³⁾ 「동이전」에 이르러서는,

“고려는 본래 부여의 별종이다. 그 땅은 동쪽으로는 바다를 건너서 신라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바다를 지나서 백제에 이른다. 서북으로는 요수(遼水)를 건너 영주(營州)와 접하고, 북은 말갈과 접한다. 그 임금은 평양성에 거주하는데, 역시 장안성이라고 이르고, 한나라 때 낙랑군이다. 거리는 경사(京師:서안)에서 5천리 밖에 있다. 산의 굴곡을 따라서 외성을 쌓았는데, 남쪽은 패수와 접해있다(이하 생략)”⁵⁴⁾

라고 명기(明記)해서 지금의 평양성이 곧 한나라 때의 낙랑군이라고 확인했다. 왕함성의 위치는 이렇게 오해되어왔다. 생각건대, 낙랑군은 한무제 원봉(元封) 3

50) 高麗都平壤(一作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古云朝鮮地也。

51) 其王所居平壤城即漢樂浪郡王險城亦曰長安城

52) 平壤即王險城也。

53) 이는 『신당서(新唐書)』 「고구려 열전」의 내용이다. 『구당서』는 이와 조금 다르다 보통 『당서』라고 하면 『구당서』를 뜻한다.

54) “高麗, 本扶餘別種也, 地東跨海距新羅, 南亦跨海距百濟, 西北度遼水與營州接, 北靺鞨, 其君居平壤城, 亦謂長安城, 漢樂浪郡也, 去京師五千里而羸, 隨山屈縵爲郭, 南涯浪水, (下略)”

년에 개치(開置)되었다는 사실이 『한서』 지리지에 실려있다. 그 다스리는 치(治)를 조선현(朝鮮縣)이라고 했다. 『사기』 조선열전에는 이렇게 되어있다.

이때는 효혜(孝惠:서기전 195~188) · 고후(高后:188~180)의 시대로서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었다. 요동태수는 곧 위만(衛滿)을 외신(外臣)으로 삼겠다고 약속해서, 새외(塞外)의 만이(蠻夷)들이 변경을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면서, 여러 만이의 군장들이 입조해서 천자를 뵈려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게 했다.⁵⁵⁾ 천자도 이를 듣고 허락했다. 이로써 위만은 병사의 위세와 재물을 얻게 되어 그 주변의 소읍(小邑)들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진번(真番)과 임둔(臨屯)도 모두 와서 복속해서 사방 수천 리가 되었다.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右渠) 때에 이르러서 한나라의 망명자들을 유인한 것이 자못 많았고, 또 입조해서 천자를 뵈지 않았고, 진번(真番) 주변의 중국(衆國: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를 뵈고자 해도 모두 막고 통하지 못하게 했다.

원봉 2년(서기전 109) 한나라 사신 섭하가 우거를 설득했지만 마침내 천자의 조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섭하는 돌아가면서 국경인 패수에 이르러서 마부를 시켜서 전송하러 나온 고조선의 비왕(裨王) 장(長)을 찔러죽이고 즉시 패수를 건너서 요새로 달려들어갔다. 마침내 천자에게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고 보고했는데, 상(上:한 무제)가 그 이름을 아름답게 여겨서 꾸짖지 않고 섭하를 요동동부도위로 삼았다.⁵⁶⁾

55) 식민사학의 주장대로 고조선이 평안남도에 있었다면 만주의 여러 나라들이 장안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막았겠는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꿴어진 것이다.

56) 『사기』 「조선열전」 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遼東太守，即約滿爲外臣，保塞外蠻夷，無使盜邊，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勿得禁止，以聞，上許之，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真番臨屯皆來服屬，方數千里，傳子，至孫右渠，所誘漢亡人滋多，又未嘗入見，真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又擁關不通，元封二年，漢使涉何誘諭右渠，終不肯奉詔，何去至界上，臨沮水，使御刺殺送何者朝鮮裨王長，即渡，馳入塞，遂歸報天子曰，殺朝鮮將，上爲其名美，即不詰，拜何爲遼東東部都尉。

‘한(漢)과 조선’은 『위략(魏略)]의 설과 마찬가지로, 패수(溟水)를 경계로 여기고, 원봉(元封) 2년(서기전 109), 한나라 사신 섭하(涉何)가 조선을 떠날 때, 전송해서 경계상(境界上)의 패수에 임(臨)했다고 되어 있다. 섭하가 이미 조선의 비왕(裨王)을 찢러 죽였다. 즉 ‘도(渡: 건너다)했다’고 되어 있는 것은 패수를 가리킨다. 도(渡)한 뒤에 요새(塞)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한(漢)의 요새(鄣塞)는, 지금의 대동강의 북안(北岸), 평양 방면에 좇아서(沿) 축조되기 시작(起築)했다는 것으로서, ‘왕험 즉 평양성’이라는 이치의 근거(理據)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 강역(疆域)이, 춘추시대에 있어서는 서쪽으로 요동(遼東)을 겸병(併)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연(燕)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그 변수(邊陲: 변경)를 상실하고, 진(秦)나라가 땅을 개척(開拓)하는 날에는, 만번한(滿潘汗)을 가지고 경계로 삼은 사실은 이전의 설(前說)대로인데, 조선후(朝鮮侯)는 이때 이미 패수 이남 지역으로 물러나고, 물이 험한 것(水險)을 이용해서 서수(西陲: 서쪽 변경)를 지켰다고 생각된다. 진이 망하고 한(漢)이 일어났다. 한은 진나라 변경 요새(秦塞)가 멀어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물러나 대동강 북안(北岸)에 이르렀다.

진(秦)나라의 옛 빈 땅인 상하장(上下鄣)은 그래서 일단 조선이 회복하게 되었지만 위만(衛滿)이 망명했을 때 조선은 다시 이것을 공탈(攻奪)당했다. 『사기』 「조선열전」에 이르기를, “위만이 망명할 때 그 무리 1천여 명을 모아서 북상투를 들고 만이(蠻夷) 복장을 입고, 동쪽으로 달아나서 요새를 나와서 패수를 건너 진나라의 옛 빈땅인 상하장에 살았다. 점차 진번, 조선의 만이(蠻夷) 및 옛 연(燕)·제(齊)나라의 망명자들을 복속시켜 왕이 되었는데, 왕험에 도읍했다”⁵⁷⁾고 했으니, 왕험성이 대동강 남쪽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은 조금도 착오(差謬)가 없다.

57) 滿亡命聚黨千餘人，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渡溟水居秦故空地上下鄣，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險。

왕험성이 조선의 치소(治所)였다는 것에 사한(史漢:『사기』『한서』)이 모두 동일하다면 의심을 품을 만하지 않은데, 나(吾人)는 한 무제가 처음 설치한 낙랑군이 조선현(朝鮮縣)에 치소를 두었음을 안다. 그래서 조선현의, (위만이 왕험성에 치소를 두었음을 얹으로써), 낙랑군의 치소(治所)가 왕험성이라는 것 또한 차오(差謬:착오, 오류)가 없다. 신찬(臣瓚)이 이르기를,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⁵⁸⁾라고 했으니, 왕험성을 패수의 동쪽(涓水之東)으로 여겼다는 것으로서 신찬의 설(說)이 옳다. 다만 『후한서』 「요동속국(遼東屬國)」의 아래 험독(險瀆)의 주석(注)에, “응소가 말하기를 조선왕 위만의 도읍이다. 물이 험한 데에 의지했으므로 험독이라고 했다”⁵⁹⁾라고 되어 있는 설(說)에 서로 끌어다 합쳐서(牽合)하여, 험독(險瀆)에 비겨서(擬) 왕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 차오는 마침내 후세 『괄지지(括地志)』의 차오(差謬)를 붙여온 원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괄지지(括地志)』에서 평양이 왕험성이라는 설을 냄에 따라서 『통전』·『후한서』의 주석과 또 『당서』 등에 저런 착오를 낳은 것인데, 패수의 비정(比定)은 그래서 심한 분규(紛糾)를 초래했다.⁶⁰⁾

정약용(丁鏞)의 「패수변(涓水辨)〔한강역(韓疆域 卷八)〕」⁶¹⁾은 『괄지지(括地志)』때문에 어긋난 총설(叢說)이고, 정밀하고도 박학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나카 박사(那珂博士)⁶²⁾라 하더라도, 이것과 동일한 경로(徑路)를 이탈하지 못했다. 그 설

58) 險城在樂浪郡，涓水之東也.

59) 應劭曰，朝鮮王滿所都也，依水險故曰險瀆

60) 이나바 이와기치는 ‘낙랑군의 치소가 왕험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서』 「지리지」의 주석자 응소(應劭)는 낙랑군의 치소인 조선현은 기자조선의 도읍이고, 요동군 험독현이 위만조선의 도읍인 왕험성 자리라고 달리 말했다. 이를 착오하고 주장하는 것인데, 2세기 말의 학자 응소가 왜 착오 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에 있다는 신찬의 말이 맞다는 이나바의 말 대로라면 왕험성은 대동강 동쪽 강원도나 함경남도에 있어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61) 이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6집 『지리지』 권3 「강역고(疆域考)」의 「패수변(涓水辯)」을 뜻하는 것이다. 정약용의 저서에 「한강역(韓疆域)」이란 편명은 없다.

62) 메이지 시대의 역사학자 나카 미치요(那珂通世:1851-1908)를 가리킨다. 나카 미치요는 메이지시대의 역사학자로 일본에서는 동양사(東洋史)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다. 대표작은 중국통사인 『지나통사(支那通史:1888-1890)』인데 미완이었다.

은 대개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기』의 패수, 즉 압록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마천의 차오(差謬)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다.

설(說)⁶³⁾에 이르기를 “연나라와 (고)조선은 패수를 경계로 획정했으니, 만약 대동강이라면 이는 대동강이 패수에 해당하는데 어찌 다시 조선에서 회복할 수가 있었겠는가? 왕험성은 평양이다. 위만이 이미 대동강을 건너서 저절로 평양을 다시 도읍으로 삼았다면, 패수는 압록강이 된다. 이미 명백하지 아니한가?”⁶⁴⁾라고 말했다.⁶⁵⁾ 또한 이르기를 “우거의 궁성은 패수의 서쪽에 있는데, 곧바로 패수에 임했다면 십하가 어찌 패수의 경계에 임해서 갈 수 있었겠는가? 또 패수를 건너서 요새로 달릴 수 있었겠는가? 패수는 압록이다”⁶⁶⁾라고 했다. 원봉(元封) 2년(서기전 109년) 가을, 좌장군(左將軍) 순채(荀綏) 등이, 조선을 친 것을 해석해서, “좌장군 순채가 요동에서 나와서 또한 압록강 서쪽에 있었지만 양복은 평양에서 패전해서 산중으로 도망갔다. 다시 바닷가로 나와서 가도(槓島) 앞의 바다를 따라서 서쪽으로 굴룡산(窟窿山:봉성(鳳城) 남쪽 2백리에 있다) 아래 도착해서 좌장군과 함께 서로 회담했으니, 만약 패수가 대동강이라면 어찌 이를 해석할 수 있겠는가?”⁶⁷⁾라고 말해서, 위만(衛滿)의 군사는 압록강 서북으로 나왔는

63) 여기에서 말하는 설은 정약용의 『강역고(疆域考)』의 「패수변(洧水辯)」을 뜻하는 것이다.

64) 燕與朝鮮劃洧爲界, 若以大同江, 當此洧水, 豈復有朝鮮乎, 王險者平壤也, 滿既渡大同, 自不得復都平壤, 洧水之爲鴨綠, 不既明乎.

65) 정약용은 패수를 압록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그 다음 문장에서 “지금 사람이 혹 이 문장을 가지고 류하(대요수)를 들어서 패수로 삼았는데, 그 오류가 크다. 한나라가 일어나서 요동의 옛 요새를 회복했으니 이는 곧 이미 요하를 건넜다는 뜻이다. 이미 요녕(遼寧)을 건넜는데, 다시 요수로써 경계를 삼았겠는가? 요하와 압록강 사이에는 큰 강이 없다. 패주는 압록강이다(又按今人, 或執此文. 又以巨流河(大遼水). 爲洧水. 尤大謬也. 漢興, 復修遼東故塞, 則既度遼矣. 既度遼寧, 復得 以遼水爲界乎. 遼河鴨水之間, 更無大水. 洧水者, 鴨綠也)라고 주장한데서 명확해진다. 정약용은 성호 이익을 사숙(私淑)했다지만 지리 지식은 이익의 탁견에 크게 못미친다. 이익은 기간의 통설을 뛰어넘는 통찰이 있는 반면 정약용은 기존 학설에 충실한 편이다.

66) 右渠宮城在洧水之西, 直臨洧水, 涉何安得去至界而臨洧水, 又安得渡洧水而馳入塞乎, 洧水者鴨綠也.

67) 又按左將軍出遼東, 尚在鴨綠江西, 而楊僕敗於平壤, 逃自山中, 還出海口, 從槓島前洋, 西至窟窿山下(在鳳城南二百里)下陸, 與左將軍相會也, 若云洧水是大同, 何以解矣.

데, 한나라 군사는 그것을 격파해서 평양 서북을 포위했다고 해석했다.

정약용의 이 설의 착오는, ‘왕험성은 평양이다’⁶⁸⁾라고 오신(誤信)한 데 바탕을 둔다. 이미 평양을 ‘낙랑군의 치소(治)’라 여기고, 위만의 거주하던 성(居城)도 이것에 다름 아니라 여긴 이상, 한(漢)과 조선의 경계는, 평양 이서의 지역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 사신 섭하(涉何)가 건넌 것도, 가리켜 압록수(鴨綠水)라 여기고, 누선장군(樓船將軍)이 패한 것도, 평양에 있었다고 추측하기에 이르렀다.

가령 정약용(丁鏞)의 설을 따라서 ‘평양 즉 왕험성’이라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진(秦)의 강역에서 구하면 위만이 거주한 곳은 진(秦)의 상하장(上下鄣)이고, 대동강 서안(西岸)은 장성(長城)이 일어난(起) 곳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의주(義州) 창성(昌城)의 지(地), 압수(鴨水)의 경계일까? 그렇지 않다면 압수의 서(西), 지금의 수책(樹柵) 동두(東頭)의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정약용의 설은 오히려 모순의 경향이 없지 않다.⁶⁹⁾

68) 王險者平壤也.

69) 이나바 이와기치의 이 구절은 정약용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6집 『지리지』 권3 『강역고(疆域考)』의 「낙랑고(樂浪考)」를 뜻하는 것이다. 해석문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사기」의 「태감지리지」에서, 「낙랑」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이 『통전』에서는 ‘갈석산은 한 낙랑군 수성현에 있다. (만리)장성이 이 산에서 시작된다. 지금 험한 장성은 동쪽으로 요수에서 끊겨 고구려로 들어가는데, 그 남은 자리가 아직도 있다.(상서에서 말한 것을 생각해 보면, 오른쪽으로 갈석을 끼고 하(河)의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 갈석은 즉 하(河)에 다다른 바닷가인데, 지금 북평군 남쪽 20여리인즉, 고구려 중의 왼쪽이 갈석이다. 이내(정약용)가 생각하기에 통전의 설과 같다면 수성은 곧 지금의 의주, 창성의 땅으로서 압록강의 경계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 압록강 서쪽이니 지금 수책(樹柵·목책)의 동두(東頭·동쪽 끝)의 땅이다. 낙랑군을 설치한 처음에는 대개 중국에서 관리를 보냈지만 그 후에는 혹 추장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太康地理志云, 樂浪遼城縣, 有碣石山, 長城所起. ○通典云, 碣石山在漢樂浪郡遼城縣, 長城起於此山. 今驗長城, 東截遼水而入高麗, 遺址猶存. (按尚書云, 夾右碣石入於河右, 碣石即河赴海處, 在今北平郡南二十餘里, 則高麗中爲左碣石. ○鏞案若如通典之說, 則遼城, 當在今義州昌城之地, 鴨水之界, 不然, 或在鴨水之西, 今樹柵東頭之地也. 樂浪置郡之初, 皆自中國遣吏, 其後或以土酋爲長”

정약용은 이 글에서 낙랑군 수성현을 의주, 창성의 압록강 경계든지, 아니면 압록강 건너 서쪽 만주의 목책의 동쪽 끝으로 보았다. 즉 정약용도 낙랑군 수성현을 만주 서쪽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정약용은 낙랑군 수성현을 의주 창성이든지 아니면 압록강 건너 만주 서쪽이라고 본 것인데, 이나바 이와기치는 아무런 반증 자료의 제시 없이 그냥 모순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의 대동강은 패수(溍水)라는 것이 『한서(漢書)』 「지리지(漢志)」에 이르러 바로잡혔다.⁷⁰⁾ 반고(班固)는 『한서』 「조선전(朝鮮傳)」을 편찬했을 때 순전히 『사기』의 문장에 의거했지만 「지리지」를 찬할 때는 『사기』의 오류를 바로잡았으니 정약용의 설(說) 또한 궁색(窮)하다고 이를 만하다. 반고가 태사공의 오류를 알았다면 어찌 유독 지리지를 찬함에 그치고, 「조선전(朝鮮傳)」에 미치지 않았을 이치가 있겠는가.⁷¹⁾

세 번째 네 번째는, 요동(遼東) 개주(蓋州)의 니하(泥河)와 조선 평산(平山)의 저탄수(猪灘水)에 패(溍)라는 이름이 있다는 설이 있지만 지금 수록하기에는 부족하다.⁷²⁾ 근시(近時) 양성오(楊星畝·수경(守敬))⁷³⁾의 『수경주소요산(水經注疏要

70) 이나바는 『한서』 「지리지」에 의해 패수(溍水)를 대동강으로 바로 잡혔다고 했지만 『한서』 「지리지」 '낙랑군' 패수현(溍水縣)에 대한 설명에서 "강이 서쪽 증지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왕망은 낙선정이라고 불렀다(水西至增地入海, 莽曰樂鮮亭)"라고 말할 뿐이다. 班(志), 溍水出遼東塞外, 西南至樂浪縣西入海(사기 정의, 자치통감 권21)이것이 어떻게 패수가 대동강이라고 단정 짓는 근거가 되는 지 알 수 없다. 식민사학자들은 근거가 없을수록 단정 지어 말하는 공통 특징을 갖고 있다. 『한서』 「지리지」 '요동군' 험독현(險瀆縣)의 주석에서 '응소(應劭)가, '조선왕 위만의 도읍이다. 물이 험한 데 의지했으므로 험독이라고 불렀다(應劭曰,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險瀆」라는 말이 나오고, 신찬(臣瓚)이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 이로부터 험독이라고 했다(臣瓚曰, 「王險城在樂浪郡溍水之東, 此自是險瀆也」)'는 말과 안사고(顔師古)가 '신찬의 설이 옳다(師古曰, 「瓚說是也」)'라는 말이 있을 뿐이다. 험독현이 요동군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반도와는 상관성이 없다는 뜻이라는 점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71) 이나바는 『한서』 「조선전」에 반고가 『사기』의 오류를 바로 잡은 것처럼 묘사했다. 『한서』 「조선전」에는 한과 고조선이 패수를 경계로 삼았다는 말이 나올 뿐이다. 다만 안사고가 '패수는 낙랑현에 있다(師古曰, 「溍水在樂浪縣」)고 주석했을 뿐이다. 또한 한나라 사신 섭하가 패수에 임해서 마부를 시켜 조선의 비왕 장을 찔러 죽였다는 말이 나올 뿐이다. 그 주석에 안사고가 말하기를, '장은 비왕의 이름이다. 섭하를 전송하러 패수에 갔다가 섭하에 의해서 찔려 죽었다(師古曰, 「長者, 裨王名也. 送何至 溍水, 何因刺殺之」)고 주석했을 뿐이다. 식민사학자들의 글을 보면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이 습성일 뿐이니 학자로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

72) 아무 내용이 없거나 전혀 반대의 내용을 이름만 엉뚱하게 적어 놓고 마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내용인 것처럼 바람 잡는 것도 식민사학자들의 수법 중 하나이다. 『요사(遼史)』 「지리지」 '동경요양부(東京遼陽府)조에 '패수가 있는데 또한 니하라고도 한다. 또 현우락이라고도 하는데, 물에 현우(軒芋·도란)가 많기 때문이다(溍水, 亦曰泥河, 又曰軒芋灘, 水多軒芋之草)'라는 말이 있다. 동경요양부 역시 만주 서쪽이다.

73) 양수경(楊守敬·1839~1915)은 청나라 말기의 역사 지리학자이자 금석문자학자로 자는 성오(惺吾), 이고 호는 림소(鄰蘇)인데, 호북(湖北) 선도(宜都)사람이다. 이나바 이와기치가 양수경을 높이 평가한 후로 이병도를 비롯한 한국인 제자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1904년 제자 웅회정(熊會貞)

刪)』⁷⁴⁾은 패수조(泚水條)에서, 역도원 주석(鄙注)의 차오(差謬)를 지적하고, 『사기』·『한서(史漢)』 모두 패수(泚水)는 지금의 대동강을 말함을 상세히 설명(詳說)하고 아울러 왕험성의 위치를 논급한 것이 있어, 제출하여 아직 못 본 인사들(未見之士)에게 보이려 한다. 그 문(文)에 이렇게 일렀다.

력도원은 『수경주』에서, “만약 패수가 동쪽으로 흐른다면, 건넌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 땅은 지금 고구려가 다스리는 지역인데, 내가 번사(蕃使:고구려 사신)를 방문하니 성은 패수의 북쪽에 있다고 말했다”⁷⁵⁾

조씨는 응소의 설을 인용해서 험독이 조선왕의 도읍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험독이 요동에 있었다면 어찌 이 땅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응소가 진실로 틀린 것이다. 신찬은 패수가 낙랑에 있음을 알면서도 험독을 억지로 끌어들었으니 이 역시 그른 것이다.⁷⁶⁾

과 함께 『수경주(水經注)』에 주석을 단 『수경주소(水經注疏)』를 편찬했다. 그는 ‘패수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수경(水經)』의 내용을 잘못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나바와 이병도 등의 생각과 부합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한 것이다.

74) 『수경(水經)』의 패수에 대한 경문(經文:원문)은, ‘패수는 낙랑 루방현에서 나와서, 동남으로 임패현을 지나서,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泚水出樂浪鏤方縣, 東南過臨泚縣, 東入于海)’는 것이다. 여기에 북위(北魏)의 지리학자인 력도원(郦道元:466 혹은 472~527)이 주석을 단 것이다. 력도원은 패수가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는 구절에 의문을 품고 주석을 단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다.

注수경주소요산(水經注泚水出樂浪鏤方縣, 東南過臨泚縣, 東入于海。

許慎云: 泚水出鏤方, 東入海。一曰出泚水縣。《十三州志》曰: 泚水縣在樂浪東北, 鏤方縣在郡東。蓋出其縣南徑鏤方也。昔燕人衛滿自泚水西至朝鮮, 朝鮮, 故箕子國也。箕子教民以義, 田織信厚, 約以八法, 而下知禁, 遂成禮俗。戰國時, 滿乃王之, 都王險城, 地方數千里, 至其孫右渠。

漢武帝元封二年, 遣樓船將軍楊僕, 左將軍荀彘討右渠, 破渠于泚水, 遂滅之。若泚水東流, 無渡泚之理, 其地今高句麗之國治, 余訪蕃使, 言城在泚水之陽。其水西流徑故樂浪朝鮮縣, 即樂浪郡治。漢武帝置。而西北流。故《地理志》曰: 泚水西至增地縣入海。又漢興, 以朝鮮為遠, 循遼東故塞至泚水為界。考之今古, 于事差謬, 蓋《經》誤證也。

75) 注若泚水東流, 無渡泚之理, 其地今高句麗之國治, 余訪蕃使, 言城在泚水之陽。

76) 趙氏引應劭說, 以險瀆為朝鮮王都, 按險瀆屬遼東, 安得在此。應劭固非, 臣鑣知泚水在樂浪, 而又牽合險瀆亦非也。『수경(水經)』 원문은 “패수는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다. 한

『괄지지』는 평양성이 왕험성인즉 고조선이라고 했고, 『후한서』 주석에 왕험성이 곧 평양이라고 한 이래 전거(典據)를 가지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 대저 모두 이 주석과 고구려 사신이 성이 패수의 북쪽에 있다고 말한 설을 따랐을 뿐이다. 내가 『한서』 「조선전」을 읽어보니, 왕험성은 패수의 남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니, 평양성은 왕험성이 아닌 것이다.⁷⁷⁾

그 증거는 넷이 있다. 패수는 지금의 대동강으로서 평양성은 대동강의 북쪽에 있다. 그런데 『사기』·『한서』는 위만이 패수를 건너서 왕험성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했으니 그 증거가 하나이다.⁷⁸⁾

누선장군 양복을 보내서 제나라 바다를 따라 떠서 열구(소림은 바다를 건너면 먼저 닿는 현이기에 열구현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말했다)에 닿았고, 좌장군 순체는 요동으로부터 왔다. 이는 한나라가 누선장군은 해로로 그 남쪽을 공격하게 하고, 좌장군은 육로로 그 북쪽을 공격하게 한 것이다. 누선장군이 먼저 왕험성에 도착했다가 군사가 패해서 산중으로 숨었는데 나아가고 물러남이 모두 패수를 건너지 않았다. 좌장군은 조선의 패수 서군을 공격했는데, 이는 순체가 조선군과 싸운 것인데, 오히려 패수의 서쪽이라고 했으니 왕험성에 닿지

반도 내의 강들은 모두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패수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면 함경도나 강원도 동쪽의 강들이기 때문에 위만이 패수를 건너지 않고도 왕험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양수경(楊守敬)은 고조선이 한반도 내에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하위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의 수도가 한반도 내라는 전제 아래서 험독이 요동에 있으면 어떻게 조선왕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77) 括地志, 平壤城卽王險城, 古朝鮮也, 後漢書注, 王險城卽平壤, 以後則無不以爲典據者, 大抵皆本此注, 蕃使言城在浪水之陽爲說, 余讀史漢朝鮮傳, 而知王險在浪水之南, 平壤城非王險城也.

78) 其證有四, 浪水今大同江也, 平壤城在大同江之北, 而史漢並言滿渡浪水都王險, 證一也. 이천여년 전의 위치 비정을 하면서 지금의 대동강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양수경(楊守敬)의 고증 방법은 역사지리 비정의 기본에서 어긋난다. 양수경은 지금의 평양성은 대동강 북쪽에 있는데 위만은 패수를 건너서 왕험성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했으니 왕험성은 패수의 남쪽에 있는 것으로서, 왕험성은 평양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증거의 둘이다.⁷⁹⁾

우거가 항복하기를 원해서 태자를 보내서 사죄하려고 했는데, 막 패수를 건너려 하다가 패자는 좌장군이 자신을 속여서 죽이려는 것으로 의심해서 패수를 건너지 않고 다시 돌아서 복귀했다. 이것이 증거의 셋이다.⁸⁰⁾

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사군을 설정했는데, 낙랑군의 치소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으니, 왕험 고성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멸망 이후부터 고려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환도성(환도성은 압록강 동북에 있다)을 도읍으로 삼았는데, 삼국 때 위나라 관구검에게 무너져서 고구려 동천왕이 남옥저로 달아났다. 위나라 군사가 퇴각한 후 평양(『조선사략(朝鮮史略)』을 보라)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그때 낙랑·대방은 모두 위나라에 속해 있던 군(郡)이었다. 고구려가 패해서 빼앗긴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 낙랑군의 군치를 빼앗았다. 이것이 증거의 넷이다.⁸¹⁾

79) 遣樓船將軍楊僕 從齊浮海至列口(蘇林曰縣度海先得名之)左將軍荀彘由遼東, 是漢以樓船, 由水道攻其南, 左將軍由陸路攻其北, 樓船先至王險, 軍敗遁山中, 進退皆不言渡浪水, 左將軍擊朝鮮浪水西軍, 是荀彘與朝鮮戰, 尚在浪水之西, 未能至王險城證二也.

양수경의 논리는 이렇다. 누선장군 양복은 바다를 건너 먼저 열구에 달아서 왕험성을 공격했는데 나갈 때나 퇴각할 때 패수를 건너지 않았다는 것이다. 왕험성이 평양성이라면 열구(서해 입구)에서 그 북쪽의 평양성을 공격하려면 패수(대동강)를 건너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좌장군 순체는 육로로 왕험성 북쪽을 공격했는데 패수 서군과 싸웠을 뿐이고 왕험성에 달지 못했다는 것이다. 왕험성이 평양성이라면 직접 왕험성을 공격했어야 하는데, 패수 서군과 싸웠으니 왕험성은 패수 남쪽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결론을 내려놓고 하위논리를 꿰어 맞춘 것이다.

80) 右渠願降遣太子入謝, 方渡浪水, 太子疑左將軍詐殺之, 遂不渡浪水, 復引歸, 證三也. 왕험성이 지금의 평양성이라면 패수는 평양성 남쪽에 있어야 한다. 태자가 패수를 건너려다 건너지 않고 복귀했으니 패수는 평양성의 북쪽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81) 武帝滅朝鮮, 定爲四郡, 以樂浪郡治仍名朝鮮, 其因王險古城可知, 自朝鮮滅後, 高麗始興, 都丸都城(丸都在鴨綠江東北)至三國時, 魏田邱儉所破, 王奔南沃沮, 魏兵退時移都平壤(見朝鮮史略)其時樂浪帶方皆爲魏屬郡, 不容高麗以喪敗之餘, 奪其樂浪郡治, 證四也. 이는 고구려의 평양성이 대동강 북쪽의 평양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존재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기술한 것일뿐이다. 양수경이 왕험성이 지금의 평양성이 아니라고 든 증거의 넷은 모두 근거가 없다. 다만 이나바 이와기치나 양수경이나 모두 패수가 지금의 대동강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왕험성이 대동강의 북쪽에 있었는지, 남쪽에 있었는지를 따지는 중이라는 점이다. 패수는 지금의 대동강이 아니고 따라서 왕험성은 현

이는 평양성이 왕험성이 아님을 살피본 것이다. 고서의 연원은 심오하고, 성의 강은 흘러서 이동한다. 비록 고구려 사신의 본토의 상황을 말한 것이라도 또한 그 상세한 것을 얻을 수는 없다⁸²⁾

양성오(楊星吾:양수경)의 해석은 『괄지지』 이래 천여 년에 이르는 차오(差謬)를 바로잡아 왕험성이 평양성이 아님을 깨뜨려 말한(道破) 것 그 공은 탁월하고 위대(卓偉)하다 할 만하다. 패수(溍水)는 그래서 지금의 대동강이라는 것, 『사기』·『한서(史漢)』 모두 설(說)을 하나로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압록수(鴨綠水)가 마자수(馬訾水)라는 것도, 또한 예부터 깨달은(論)⁸³⁾한 바가 없었다. 진(秦) 장성(長城)의 동단(東端:동쪽 끝) 및 동부(東部)의 위치도 크게 천명(闡明)되기에 이를 만했다. 오인(吾人)은 여기에 있어서 마쓰이(松井) 문학사(文學士)의 “한대(漢代)에 있어서는 진 장성의 동단은 요동이라 여겼었는데 진대(晉代)부터, 이것을 지금의 조선 서북부 변경까지 도달한 것이라고 여겼다”는 해설은 『사기』·『한서(史漢)』의 『조선열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전연(全燕:연나라 전성기)의 영역 및 진(秦)의 요동군의 변경 경계(邊界)를 거꾸로 잃어버린(遺却) 경향이 있음을 재언(再言)하고자 한다.

왕험(王險)은 이미 평양이 아니다. 그것을 대동강 남쪽에서 구하려 하는 것이 야말로 지당(至當)하지만, 오인(吾人)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수안(遂安) 서북

대동강의 북쪽에도, 남쪽에도 있지 않았다. 이들은 비유하자면 서라벌의 위치를 논하면서 금강의 북쪽이었는지, 남쪽이었는지를 따지는 셈이다. 이런 논리가 아직도 주류 식민사학계의 주류 이론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82) 是平壤城非王險城審矣。古書淵奧，城池流移，雖蕃使自言本土，亦不得其詳也(要刪卷十四) 『요산(要刪)』 14권을 보라. 북위의 려도원은 ‘패수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수경』의 내용에 의문을 품고 고구려 사신을 만나 물었더니 고구려 사신이 평양성은 대동강의 북쪽에 있다고 답했다. 그래서 이를 『수경주』에 실어서 패수는 서쪽으로 흐른다고 말한 것인데, 이들은 패수가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맞지만 대동강 북쪽에 있는 평양성이 옛 왕험성이라고 본 것은 틀렸다는 것이다. 대동강 남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83) 원문은 ‘諭る’지만 즐겁다, 구차하다는 의미의 ‘愉’로는 문맥이 맞지 않기 때문에 ‘諭る’로 바꾸었다.

쪽, 대동강 동남쪽 지역에 비정(比定)하는 것을 얻은 외에, 조선현 즉 낙랑군의 치성(治城) 왕험(王險)은 명백히 그것이라 비정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 설달(昨臘) 중 세키노(關野貞)⁸⁴⁾ 공학박사 등이 발견한 대동강면(大同江面:대동강 남쪽〔大同江南〕)의 유분(遺墳)에서는 수개(數個)의 한나라 거울(漢鏡), 칼(刀), 창(矛), 한나라 동전(漢錢) 등이 출토되었는데, 유분(遺墳)의 고전(古磚:옛 벽돌)의 문양 등이 전혀 한나라와 위나라 사이(漢魏之際)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쩐지 오인(吾人)으로 하여금 낙랑 치소(治所)의 유허(遺墟)에 닿을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없지 않다.

「조선열전」은 생각해보면, ‘좌장군이 패수상군을 격파하고 먼저 성 아래에 도달해서 그 서북을 포위했다’⁸⁵⁾고 해서 순체(荀彧)의 군사는 아직 (황해도) 봉산(鳳山), 서흥(瑞興), 및 수안(遂安)에 이르지 못했는데 즉시 왕험성을 포위하였다. 이 일사(一事)는 더욱 오인(吾人)이 유의할 가치가 있다.

동박사(同博士:세키노)의 설(說)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고분들이 대동강 남쪽에 걸쳐 무수히 존재한다고 파악되었다. 과연 이 사이를 잘 편력하면 왕험의 옛 터가 반드시 발견될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겠는가. 우리는 더욱 동박사의 보고를 고대하여 세론해야만 한다.

Ⅲ. 나가는 글

이나바 이와기치가 마지막으로 세키노 타다시의 보고를 고대하여 세론해야 한

84) 세키노 타다시(關野貞:1868~1935)는 도쿄대 공학부 건축학과(造家學科)를 졸업하고, 도쿄대 교수를 역임했다. 건축사가(建築史家)인데, 1910년 조선총독부의 위촉을 받아 한반도 내 중국계 유물·유적들을 조사해서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보고서에서 이 모든 유물들을 모두 ‘우연히’ 발견했다고 서술해서 의문을 남겼다.

85) 在將軍破洩水上軍, 及前至城下, 圍其西北

다고 말한 것은 조선총독부의 잘 짜여진 각본을 말해주고 있다. 세키노 타다시는 1909년 조선총독부의 자금으로 평양의 석암리 유적을 발굴했지만 고구려 유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09~1910년 동안 인류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등이 평양 대동강 좌안의 3기의 고분을 발굴하면서 낙랑군시대의 고분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석암리 고분에서 왕씨(王氏)라는 명문이 나온 철기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낙랑군 왕씨의 유물이라고 주장했고, 세키노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⁸⁶⁾

이후 1913년에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이나바 이와기치(今西龍)·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등은 대동강 남쪽의 대동면 토성리를 낙랑군을 다스리던 치소가 있던 치지(治址)라고 주장하게 된다. 그런데 1913년 9월 23일, 이마니시 류와 야쓰이 세이이치는 대동강을 건너는 배 안에서 마을 사람으로부터 토성리에 토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낙랑군 시대의 것이라고 직감하고 성공을 예감했다고 말하고 있다. 가 보기도 전에 낙랑군 유적으로 단정지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동강 남쪽 대동면 토성리는 낙랑군 조선현으로 조작되었는데, 후지타 료오사쿠(藤田亮策)는 “이 땅을 낙랑군치지(樂浪郡治址)로 보는 것에 많은 역사가들이 의문을 가졌다.”⁸⁷⁾라고 말하고 있다. 너무 트인 곳이라 왕험성 자리로 보기에는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랑군=평양설’이 조선총독부의 시책이었기 때문에 후지타 료오사쿠는 “그러나 이 넓고넓은 황야, 이 양양한 강안이야말로, 강하(江河) 유역에 나라를 만든 한민족(漢民族)이 가장 모여살기 좋아하는 땅이지 않겠는가.”⁸⁸⁾라고 대동면 토성리가 낙랑군 조선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낙랑군 조선현이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이라는 사실은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조선총독부에서 짠 각

86) 關野貞, 『樂浪帶方兩郡の遺蹟及遺物』

87)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昭和 23年(1948), 305쪽.

88) 위의 책, 305쪽

본에 따라 ‘낙랑군=평양설’이 확립되어 갔던 것이다. 이나바 이와기치의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 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 考)」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낙랑군 수성현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황해도 수안군이라고 우긴 것이다. 이런 억지를 국사학계의 태두 이병도 박사가 표절했고, 이를 다시 후학들이 추종해서 『동북아역사지도』에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군으로 표기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참고문헌

『고려사』

『동북아역사지도』

『명사(明史)』 「조선열전」

『사기』 「조선열전」

『사기』 「홍노열전」

『사기』 「화식열전」

『사기색은』

『삼국지』 「위지」

『수경(水經)』

『신당서(新唐書)』 「고구려 열전」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유당전서』 「지리지」

『요사(遼史)』 「지리지」

『통전』 「주군전(州郡典)」

『한서』 「지리지」

『후한서』 「군국지」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 『사학잡지(史學雜誌)』 제 21편(編) 제2호.

이병도, 『낙랑군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昭和 23年(1948)

[Abstract]

**Translation of and Critique on the
“Study on the Eastern End of Jinjangseong
Fortress and Wangheomseong Fortress”
by Inaba Iwakichi**

Lee, Deok-II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started to distort the history restricting the Korean history only to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forcible occupation of Korean peninsula.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restricted the Korean history into the Korean peninsula by deleting the history of Korea in the continent and the ocean and insisted that there were Four Commanderies of Han, the colony of China, on the north and the Japanese Headquarter in Imna, the colony of Japan on the south. The core of the insistence ‘Four Commanderies of Han were the Korean peninsula’ was that Nakrang-gun was Pyeongyang. For such insistence, Japanese scholars produced several theses and manipulated historic sites and relics from the ancient times. One of major theses insisting that ‘Nakrang-gun was Pyeongyang’ was the “Study on the Eastern End of Jinjangseong Fortress and Wangheomseong Fortrrs” by Inaba Iwakichi(1910).

In his study, Inaba insisted that Suseong-hyeon, Nakrang-gun was the Suan-gun, Hwanghae-do. His theory was adopted in the “Study on the Ancient History of Korea(1976)” by Lee Byung-do who was mentioned as the authority in the Korean history as it was. Furthermor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marked ‘Suseong-hyeon, Nakrang-gun’ as ‘Suan-gun, Hwanghae-do’

as producing the ‘Northeast Asian History Map’ with the national treasury of 4.7 Billion KRW. Whe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asked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o present the reason on such marking on the map in 2015, the Foundation pointed out the page 148 in the ‘Study on the Ancient history of Korea’ by Lee Byung-do as the proof.

In the thesis, Inaba Iwakichi insisted that Suseong-hyeon, Nakrang-gun was Suan-gun, Hwanghae-do and the eastern end of the Great Wall made during the Qin dynasty started from Suan-gun, Hwanghae-do. Inaba argued that his thesis admitted no doubt because it was written on the “Geography” section in the Book of Han. However, the “Geography” section in the Book of Han never describe anything about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Suan-gun, Hwanghae-do. Inaba created the story in his thesis to distort the history as if Four Commanderies of Han wer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alse history without any historical basis at all has been accepted as it was in the academic circle on the ancient history of Korea even until now.

key words : Suseong-hyoun Nakrang-gun, Suan-gun Hwanghae-do, Inaba Iwakichi, Lee Byung-do, The Great Wall, in the Book of Han “Geography”

『역사와융합』 제 2집(2018. 6)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계보

—식민사관과 상관성—

임 중 권(송실대)

— 차 례 —

1. 문제제기 :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쟁점
2.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
3.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성격
4. 결론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일제 역사학자들과 이들에게서 배운 한국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근대 역사학인 랑케 실증주의 사학이 한국 역사학계에 수용되었으며 이들이 한국 역사학계를 주도해 오면서 역사연구의 주류가 되었다. 따라서 이런 연유로 인하여 한국 역사학은 끊임없이 식민사관의 논란을 야기해 왔다.

그러므로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랑케가 주장한 바와 다르게 민족의 역사를 개별적이고 특수한 관점이 아니라 보편적 관점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제 역사가들이 랑케 실증주의 사학의 수용 과정에서 자국의 제국주의적인 정치적 이념에 따라 창안해 낸 소위 식민주의 사학의 역사관과 일맥상통한다.

일본 제국주의는 아시아에서 패권확장과 조선의 식민화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역사적 기초가 절실했으며 이러한 정치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일제 역사가들은 역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이란 이름으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을 변형하여 소위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을 창안했다. 따라서 일제 식민통치 시기 일제 식민주의 사학자들에게 역사를 배웠던 한국인 역사학자들이 이러한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을 한국 역사학계에 뿌리를 내리게 한 주역들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랑케류가 아니라 일제 식민주의 사학의 역사관을 특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제어) 실증주의 사학, 랑케, 보편성, 개별성, 민족주의, 식민사관,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

1. 문제제기 :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쟁점

실증주의 사학은 원래 독일 역사학자 랑케가 최초로 수립한 근대 역사학이며 일제 식민통치시기 일본에 유학했던 이병도, 신석호, 이기백 등 한국 역사학자 1세대들에 의해 한국 역사학계에 수용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를 주도해 온 이들이 오늘 날까지 학계의 주류를 형성함으로써 뿌리를 내린 실증주의 사학은 역사연구와 서술의 중심을 차지해 오고 왔다. 그러나 한국 역사학을 지배해 온 이러한 실증주의 사학이 랑케류인지 혹은 일제 식민사관의 성격을 띤 것인지 그 방법론과 역사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상백은 “역사연구에서 일반적인 법칙이나 공식을 미리 가정하여 그것을 민족의 역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한국사의 실증주의는 자연법칙의

과학적 방법을 주장한 콩트식 실증주의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듯이¹⁾ 한국 실증주의는 ‘랑케식 실증주의’로 정의되고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실증주의 사학이 한국 역사학이 끊임없이 식민사관의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알다시피 한국 근대 역사학이 일제 식민주의 사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고 둘째, 한국 실증주의 사학이 소위 ‘랑케류’라고 하나 이는 방법론적인 것에 국한되며 그 내용은 다원적인 유기적 문화사의 성격을 띤 세계사 보편성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역사관이 제국주의의 역사이념인 동시에 식민사관의 핵심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는 랑케 실증주의 사학과 비교를 통해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계보를 분석하고 그 역사관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2.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철저한 고증과 사료비판을 통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방법론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연구와 서술은 어떤 편견이나 사상 혹은 개인적인 판단이 배척되고 오로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각 민족사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방법론에서 과학적인 근대 역사학이지만 역사관으로 말하자면 세계사적 보편성보다 민족의 개별성을 중시한 민족주의 사학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랑케는 역사 발전의 기본적인 단위로써 민족과 국가를 제시하고 역사

1) 이상백, 『韓國文化史研究論攷』, 을유문화사, 1947, 9쪽.

2) 이상백은 “역사의 과학을 실천하는 것은 근대 사학의 과학적 방법에 의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실증주의 역사학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위 책, 6-7쪽. 특히 이기백은 마찬가지로 한국 사학의 실증주의를 콩트와 구별하여 실증사학을 고증사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기백, 『韓國史學의 方向』, 일조각, 1997, 126쪽.

연구의 목표를 민족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은 내재적인 민족정신의 원리 즉 도덕적 에너지에 의해 결정되며, 그리하여 랑케는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 정당성을 신이 부여한 신성한 것으로 파악했다.³⁾ 이에 따라 모든 민족국가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생(生)과 삶의 과정을 겪어 왔으며 또한 이 삶은 각기 고유한 단계들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각 민족국가들은 모든 생명체처럼 멸망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어떤 것과도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국가는 그 자체 생의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는 개체이자 목적이며, 이 모든 것은 이념에 달려 있는데 바로 그 기원이 신에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랑케는 민족과 국가를 신성하고 인간 정신의 독창적인 창조물인 신의 사상(Gedanken Gottes)으로 정의했다.⁴⁾ 랑케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별적인 개체의 자율적인 생명체로 인식하고 신의 섭리에 의한 국가와 민족의 통합 원리를 유기체론으로 설명하며 역사의 궁극적인 이상으로서 민족과 국가를 강조했다. 다시 말해 랑케는 민족과 국가를 역사 과정의 최종 단계로 인식했다.⁵⁾

특히 국가의 현존재는 민족정신이 구체화된 것이므로 국가란 현실적, 정신적 본질(das Real-Geistige Wesen)이다.⁶⁾ 그리고 민족과 국가는 개체성을 지니고 있고 자체의 고유한 삶의 법칙과 형식을 갖고 있으며 현실적이고 정신적인 본질로써 민족과 국가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추론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랑케는 역사

3) 랑케, 『강대세력들, 정치대담, 자서전』, 신서원, 2014, 137쪽.

4) 위의 책, 137-138쪽.

5)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메타역사 :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제 1권, 지식올만드는지식, 2011, 381-400쪽. 원저는 Hayden White, *Metahistory :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Century Europe*(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4)이다. 특히 헤이든 화이트는 19세기 유럽 역사가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로망스, 비극, 희극, 풍자 등의 문학적 작업을 통해 설명하고 했던 바와 같이 랑케 역시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유기체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에 내포된 역사가의 의식에 대한 의미는 전적으로 유기체론적이지만 그 유기체론은 노발리스가 전체 과정에서 찾고자 한 전체론적인 유기체론이 아니라 관찰자가 소우주 속에서 전체에 내포된 부분과 전체와 관계를 지닌 보다 큰 통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랑케의 이 유기체론은 19세기 중반기 사학을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발전시킨 이론구성으로써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의 주요 업적 토대가 되었다. 화이트, 위의 책, 401-402쪽.

6) 랑케, 위의 책, 131쪽.

연구가 특수한 것 혹은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⁷⁾ 그러므로 민족국가는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 혹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전복되거나 소멸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따라서 역사적 실체인 개별국가와 민족만이 역사적 발전의 개체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근대 역사학, 즉 란케 실증주의 사학은 곧 민족과 국가의 통합된 이념 속에서 탄생된 것이므로 역사는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다. 란케 실증주의 사학의 장점은 역사의 개체나 특수성이 전체나 보편성에 의해 무시되지 않고 오히려 이 개체와 특수성이 보편성을 인식하는 길이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이다.⁸⁾ 란케에 의하면 민족의 개별성과 특수성은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민족의 역사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할 때 여러 민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곧 역사법칙이며 보편적 세계사의 개념이다. 이에 따라 란케는 개별성을 통해 전체 또는 보편성 즉 일반적인 목적을 인식할 수 없다고 비판한 헤겔의 견해에 대해 관념적이라며 공격하고 이와 반대로 보편성을 통해 역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들을 인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⁹⁾ 궁극적으로 란케는 개체, 즉 민족국가의 개별성을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서 벗어난 특수하고 고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민족의 개체가 곧 역사연구의 기초단위이며 이러한 인식이 역사지식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각 민족의 개별적인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곧 보편적 세계사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란케의 견해에 따르면 각 민족의 개체, 역사의 각 개별적 민족의 역사가 역

7) 이 문제 대해 란케 연구자들은 그에게서 특수와 보편이 다 같이 중요하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Leonard Krieger, "Elements of Early Historicism : Experience, Theory and History in Ranke", *History and Theory*, Vol. 14, No. 4 (Dec., 1975), 1-14쪽. 그러나 사실상 란케는 특수성이 보편성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의 역사 이론이다. 이상신, 「서문」, 란케, 『강대세력들, 정치대담, 자서전』, 17쪽.

8) 김기봉, 「란케의 'wie es eigentlich gewesen' 본래 의미와 독일 역사주의」, 『호서사학』 39집, 2004, 158쪽.

9) Ranke, "The Pitfalls of Philosophy of History", Georg G. Iggers ed., *The Theory and Practice of History*, (New York : Routledge, 2011), 17-19쪽.

사연구의 기초가 된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에서는 기독교적 보편 세계관이 무너지고 그 대신 민족이라는 보편적 세계관이 지배적인 흐름이 되었다. 말하자면 민족주의 시대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민족과 국가의 개별적 역사가 곧 보편적 역사관보다 더 중시되게 이르렀다. 전통적인 보편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각 민족들은 자신의 조상이 어디에서 왔고 자신의 전통과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 이러한 민족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민족의 역사는 보편적 세계사보다 더 중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랑케는 보편적 세계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각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역사연구에서 민족의 개별적 고유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며 일반성과 보편성 같은 추상적 개념을 배척했다. 각 개별적 민족의 역사는 서로 연결되어 일반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랑케는 각각 개체, 개별적 민족의 역사가 각기 고유한 성격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¹⁰⁾ 왜냐하면 각 민족의 역사를 일반화 시키거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별적 민족의 역사는 무시되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랑케는 역사 발전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민족과 국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민족과 국가는 특수한 개별적 정신적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내재적인 정신의 원리에 따라 진보하게 된다.¹¹⁾ 그러므로 보편성 위에서 민족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민족의 역사에서 보편적 세계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랑케 실증주의 역사이론의 기초이다. 다음은 이러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이 일본 근대 역사학에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었을까.

10) Ranke, "On the relations of History and Philosophy", Georg G. Iggers ed., 위 책, 5-7쪽.

11) Ranke, "Über die Idee der Universalhistory", in Herausgeben von Ludwig Dehio und Walther Kienast, *Historische Zeitschrift Band 178*, (München: Oldenbourg, 1954), 291-301쪽.

2. ‘일제식 실증주의’ (식민주의 사학, 식민사관)

19세기는 유럽 제국주의 시대의 절정기였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에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있었던 일본은 유럽의 열강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최강국으로 군림하기 위한 근대화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일본은 근대 식민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제국주의의 체제를 갖추어 가면서 중국과 조선에 비해 역사적으로 가장 빈곤했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대안이 바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이었다. 일본이 랑케 실증주의 사학에 주목한 이유는 랑케의 역사학이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라기보다 유럽에서 가장 빈곤하고 약소국이었던 독일이 민족주의 역사에 바탕을 두고 짧은 시기에 최강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독일의 사례에 많은 관심을 집중한 일본은 역사의 빈곤을 극복하고 제국으로서 성공을 이룬 독일의 경우처럼 그 해답이 역사학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침내 랑케 실증주의 사학을 수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일본에게 순수한 근대 학문이라기보다 자국의 빈곤한 역사를 극복하고 동시에 제국으로서 아시아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학문적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이를 바탕으로 조선 식민화의 정당화에 역사적 기초가 된 소위 ‘식민주의 사학’을 창안하게 이르렀다.

제국주의 사상을 지지한 일본 역사가들에게 랑케 실증주의 사학이 전격 수용된 것은 그 역사학이 객관성보다 민족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제 역사가들은 이러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이 지닌 사실성과 객관성으로 포장하여 새로운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 사학’ 엄밀히 말하자면 식민주의 사학이었다. 일제는 이렇게 창안해 낸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을 이용하여 민족의 정신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이를 군국주의와 황국사상의 원동력으로 삼았다.¹²⁾ 그리고 마침내 일제 역사가들은 랑

12) 강상중 저, 이경덕 · 임성모 옮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126쪽, 시라토리 구라기치

케 실증주의 사학의 실증이란 방법론 외에 제국주의 이념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랑케의 『강국론』으로부터 보편적 세계관을 활용하게 이르렀다.

예컨대 일본에서 최초로 랑케를 연구한 스즈키 시게타키는 1939년 『랑케와 세 계사학』이란 저서를 통해 “실증주의는 재미없다”며 실증주의 사학의 객관성과 과학성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을 수용한 주요 인물이었던 스즈키가 오히려 랑케 실증주의 사학을 비판한 것은 일제가 랑케로부터 순수한 근대 역사학이 아니라 자국의 이념에 맞는 이론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일제 실증주의 역사가들은 랑케의 역사학을 제국주의 이념과 황국사상에 맞게 재조정해 나갔는데 이에 대한 스즈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랑케의 유산은 국가란 제각각 독자적인 생명을 잉태한 창조적인 개체라는 것, 즉 도덕적 에너지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란 그 발전 계기를 다른 여러 국가와 관계에 힘입는다는 것이다...또한 랑케는 위대한 침략자는 동시에 위대한 문화 전파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의 말은 충분히 음미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매개를 결여했을 때 하나의 국가는 세계에서 단순한 특수에 그치고, 구체적인 보편이 아니면 세계에서 지속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국가는 세계사적 개념이라고 해도 좋다.”¹³⁾

이와 같이 스즈키는 랑케를 언급하면서 사료비판 등 방법론이나 역사사상에

(白鳥庫吉)는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에서 객관성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과학을 넘어선 역사철학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스테판 다나카 지음, 박영재·함동주 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96쪽.

13) 이 인용문들은 스즈키가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전반에 걸친 교토학파의 저작이나 좌담회에서 발언한 것이다. 高坂正顯, 『歴史の世界』, 京都哲學叢書 第25卷, (東京: 燈影舎, 2002); 高坂正顯, 『歴史の意味とその方』, (東京: こふし書房, 2002); 高山岩南, 『歴史の哲學』, (東京: こふし書房, 2001); 高坂正顯, 高山岩南, 西谷啓治, 鈴木成高, 『世界史的立場と日本』, (東京: 中央公論社, 1943) 등 참조.

대해서 전혀 거론하지 않고 국가의 가치와 세계사적 보편성에 대한 추상적인 논리만을 펴고 있다. 물론 랑케가 언급한 세계사의 개념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해온 보편적 역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대 로마제국으로부터 19세기까지 유럽 및 여러 대륙의 식민국가의 역사에 국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즈키는 유럽에서 패권을 차지한 독일과 일본을 결부시키고 있는데, 이는 ‘세계사적 일본’을 의미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그는 랑케의 민족역사의 개별성과 특수성보다 보편적 세계사의 관점에 따라 일본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40년대 이와나미(岩波) 문고에서 1940년 『강국론』 그리고 1941년 랑케의 『정치문답 기타 일편』 번역됐고 1941년 『세계사 개관—근세사의 제 시대』가 간행되는 등 번역된 랑케 저작들의 출판 붐이 일었다.

이 번역서들은 사료비판을 바탕으로 한 실증주의 역사관이 아니라 국가관과 세계사의 구상에 초점을 둔 것들로써, 랑케의 많은 저서들 가운데 일제의 이념에 맞는 것만 뽑아 수용한 것들이다.¹⁴⁾ 이와 같이 일제 역사가들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곧 역사적 법칙이라고 이해하여 이 같은 세계사적 보편성 이념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는 랑케가 『강국론』에서 언급한 말이지만 이

14) 사카구치(坂口昂)은 “랑케는 역사인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의 역사관을 연구할 때 여러 가지 저작 중에서 여기저기 추려 구성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작업은 대개 교토학파들에 의해 이뤄졌다. 坂口昂, 『獨逸史學史』(東京) 岩波書店, 1932, 407쪽. 이 시기 일본에서 간추려 번역 출간된 랑케의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村川堅固 譯, 『世界史論進講錄 Über die Epochen der Neueren Geschichte, Die grossen Mächte, Zur Geschichte der politischen Theorien』, 興亡史論刊行會, 1918; 阿部秀助 譯, 『西州近世史 Geschichten der romanischen und germanischen Völker』, 泰西名著歷史叢書 第5卷, 國民圖書, 1923; 相原信作 譯, 『強國論 Die Grossen Mächte』, 岩波書店, 1940; 相原信作 譯, 『政治問答 他一篇 Politische Gespräch, Die historiae et politicae cognatione atque discrimine』, 岩波書店, 1941; 鈴木成高, 相原信作 譯, 『世界史概觀—近世史の諸時代 Über die Epochen der Neueren Geschichte』, 岩波書店, 1941; 講邊龍雄 譯, 『프리드리히 대왕 Friedrich II. König von Preussen』, 白水社, 1941; 小林榮三郎 譯, 『랑케 선집 제6권 Abhandlungen und Versuche』(三省堂, 1943); 堀米庸三 外 譯, 『랑케선집 제4권—19세기 독일—프랑스사 Zur Geschichte Deutschlands und Frankreichs im neunzehnten Jahrhundert』, 三省堂, 1943; 西村貞二, 祇園寺信彦, 増田重光 譯, 『랑케선집 제5권—傳記』, 三省堂, 1943.

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세계사적 보편성으로써 비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역사가들이 강조하며 수용한 세계사의 보편성의 골자는 국가와 민족 간 상호 대립관계의 국가체제이다. 그러므로 스즈키는 랑케가 『강국론』에서 언급한 대립적인 국가체제가 곧 유럽 중심의 세계관이 라고 비판하고 일본 스스로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거하여 스즈키는 대동아 전쟁을 세계사적 사실이며 역사의 학문적 대상으로 삼았다.¹⁵⁾ 이것은 일본이 랑케의 세계사적 보편성 이념을 편취하여 이를 일제의 패권 정치이념에 적용시킨 사실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니시다 기타로(西田機多郎)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랑케의 『강국론』의 세계사적 보편성 개념을 빌어 대동아 공영과 조선 식민화의 정당성을 제시했다.

“각 국가는 각자 세계사적 사명을 자각하여 하나의 세계사적 세계, 즉 세계적 세계는 구성해야만 한다. 이것이 오늘 날 역사적 과제이다. 지금 동아(東亞)의 여러 민족은 동아민족의 세계사적 사명을 자각하여 각자 자기를 넘어 하나의 특수적 세계를 구성하고 이로써 동아민족의 세계사적 사명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것이 동아공영권의 구성의 원리이다.”¹⁶⁾

니시다의 이런 논리는 랑케가 로마의 정복으로 유럽이 하나로 통일되고 그 이후 하나의 세계를 형성했다고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말하자면 대동아공영은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제의 역사학은 실증주의와 서술자의 주관이 결합된 독특한 일제식 역사관에 기초하여 민족과 국가를 역사연구와 역사서술의 주체로 삼았다. 물론 당시 일본에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마르크스 유물론 사관이나 황국사관과 상호 대립적인 관점에 놓여 있었지만

15) 고야마 사토시(小山哲), 도면회·윤해동 역음, 「『세계사』의 일본적 전유-랑케의 중심으로」, 『역사학의 세기-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휴머니스트, 2009, 113-117쪽.

16) 西田機多郎, 『西田機多郎, 全集』第5卷, (東京) 岩波書店, 1979, 270, 427-429쪽.

궁극적으로 일제의 정치적 이념과 부합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제의 역사학계에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이 무엇을 위한 개별 연구인가, 무엇을 위한 고증인가라는 담론이 1890년대 전후로 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객관성을 앞세워 국가권력이나 정치로부터 독립된 역사서술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황국사관은 역사적 객관성보다 현실을 더 중시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제국으로 향하게 유도해 나갔다.¹⁷⁾

이와 같이 일제의 역사가들은 현실을 앞세우며 랑케 실증주의 사학을 왜곡하여 역사를 민족과 국가에 결부시킴으로써 객관성이 없는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을 창안해 내었다.¹⁸⁾

17) 나가하라 게이지(永原慶二) 지음, 하중문 옮김,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 140~141쪽.

18) 일본 동양사학자들이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을 창안한 주역들이다.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노우에 데스지로(井上哲次郎)는 문화의 특수성을 부여한 ‘신적 의미’-신도(神道) 신의 섭리를 강조하며 일본 민족 정체성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족 역사학을 제시하며 일본역사와 문화는 천황이라는 신(神)과 결합하여 민족의 개별성을 확립했다. 이어서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천황에서 역사의 보편성을 탐구하여 랑케 실증주의 사학 제국주의 역사관과 결합시킨 인물이다. 그는 만철조사부 지원을 받아 만주, 중국, 조선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식민주의 사학을 탄생시켰으며 객관적인 일본 역사를 배척하고 랑케보다 콩트의 실증주의를 선택했다. 한편 이들 동양사학자들은 유럽에서 기독교의 보편성 세계사에 입각하여 일본의 천황이라는 신(神)의 정치라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일본역사에 결합시켰다. 이들은 신의 뜻으로 발전해 온 일본 민족의 역사가 세계사에서 개별적인 진보했다고 주장했는데 시라토리는 랑케의 민족사상을 보편적 법칙과 일치시켜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을 창안(보편적 민족주의 사관, 식민사관)하는데 주역을 맡았다. 그는 제국주의 정치적 이념을 토대로 하여 주변 민족국가의 서열화함으로써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립해나갔다. 일본의 동양사 역사가들에 대한 평가는 吉川幸次郎 編, 『東洋學の創始者たち』, (東京) 講談社, 1976, 참조. 특히 시라토리 구라키치에 대해서는 위 책, 15~70쪽 참조. 한편 일제의 근대 역사학은 대개 도쿄제국대학과 교토제국대학에서 출발했으나 대체적으로 식민주의 사학, 즉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은 교토제국대학 역사가들이 주도했다. 교토제국대학 사학과에는 주로 유럽 유학파들이 포진하고 있었으며 주요 인물들은 하라 가쓰로(原勝郎), 우치다 긴조(内田銀藏),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사카구치 다카시(阪口昂) 등이다. 이들은 유럽 역사를 일본에 접목시켜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과 대치된 ‘일제식 민족주의 역사관 창안’하였다. 교토제국 대학 서양사학자들은 중세유럽을 일본 교토 가마쿠라 막부체제에 적용하여 유럽 역사에 나타난 세계사적 보편성과 역사진보가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됐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조선에 적용하여 소위 조선 정체론(랑케의 민족국가 역사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진보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역사진보를 각 민족역사에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을 확립했다 이들은 랑케 역사관을 왜곡하여 인위적으로 일본역사에 적용시켜 나갔는데 유럽 세계사에서 민족과 사회를 지배한 보편적 질서와 힘의 법칙을 발견하고 강국이 보편적 세계 질서를 지배한다는 역사적 법칙에 일본을 포함시켜 식민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등은 일본이 중국이나 인도의 문화와 역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 소위 ‘탈아론(脫亞論)’을 주장했다. 福澤諭吉, 「脫亞論」, 『福澤

諭吉全集』第10卷(東京) 岩波書店, 1960, 238-240쪽, 사카구치 다카시(阪口昂)는 랑케의 세계사의 확장 사업에 선두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세계관은 문화사적 성격을 지녔으며 랑케의 『강국론』에서 언급된 세계의 조화(약한 민족이 강한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세계사가 아니라 각 민족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관계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세계사)를 왜곡시켜 대동아 공영 논리를 창안하기도 했다. 스즈키 시게다카(鈴木成高)는 『랑케와 세계사학』출간 랑케에게서 실증주의를 제거하고 세계사 보편성을 추구한 인물이다. 요네타니 마사후미(米谷匡 史)는 동아협동체 즉 대동아공영을 주장한 역사가로서 동아시아에서 개별적 민족과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자고 강조했다. 미키 키요시(三木清)는 '세계사 철학'에서 동양을 해방시켜 신질서 건설하자며 동아협동체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고사카 마사사키, 니시타니 게이치, 고야마 이와오, 스즈키 시게타키, 등 교토학파들이 내세운 '세계사 철학'과 '동아협동체' 등이 곧 대동아공영이 되었다. 이들 교토학파의 '세계사 철학'은 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문화를 포괄한 다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문화 유형학의 담론을 만들어 내어 동양의 통일론을 이루고자 했다. 이러한 교토학파의 '세계사 철학'과 '다문화주의적 세계상'은 일제의 일본과 조선의 내선일체 정책의 이념으로 작용한 것이다. 세계사 개념-고대사는 세계주의적, 개인주의적인 반면 근대 국민국가는 민족국가이고 국수주의이다. 이들 교토학파들은 민족과 국민을 군대의 산물로 인식하고 문화사적 관점에서 국민이 단일민족이 아니라 다인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본, 중국, 조선 등이 일본국가 국민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즉 근대 국민국가는 혈통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적으로 공동된 아시아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한 소위 '대동아 공영의 논리'의 핵심이 되었다. 제국주의 세계관은 각 민족의 개별적 문화와 역사 무시한 개념으로써 이러한 교토학파의 세계사 이념은 곧 '내선일체'의 정책과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교토 학파는 다문화적 세계상과 랑케의 세계사 이념을 결합시켜 대동아 공영논리를 확립한 주역들이다. 특히 일제의 국학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론(脫亞論), 타루이 토키치(樽井藤吉)이나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의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식민주의 사학의 근거는 당시 독일 중심으로 한 유럽 학계의 흐름으로써 예컨대, 일제 식민주의 사학자들은 오스트리아 인류학자인 빌헬름 슈미트(Wilhelm Schmitt) 등이 제시한 전파주의(Diffusionism) 즉 확산 이론과 에드워드 버르네트 타일러(Edgard Burnet Tylor)의 진화주의(Evolutionism) 이론을 사용하여 조선 문화의 열등성을 주장하며 식민사관을 확립했다. 또한 일제 식민주의 사학자들은 19세기 독일 지리학계에서 제시된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의 인류 지리학(Anthropogeographie) 그리고 정치 지리학(Politische Geographie) 의 이론도 사용하여 소위 '반도적 성격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제 식민주의 사학자들은 1920년대 독일에서 유행했던 인종주의적 민족성 이론에 따라 조선 민족을 불변의 고정적 민족성으로 규정했다. 특히 조선의 사회경제에 적용된 정체성 이론은 19세기 말 칼 뮐러(Karl Bücher)가 제시한 독일 역사주의 경제사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광, 『한국 사학사의 인식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0, 199-202쪽, 이러한 교토학파의 역사관의 특징은 랑케가 아니라 콩트의 실증주의에 가깝다. 콩트의 역사관은 개별적인 민족이나 국가, 혹은 고유한 민족의 언어나 문화를 모두 배척하고 인류의 진보를 위한 세계사를 추구했다. 예컨대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세계사의 보편적 질서를 일본에 적용하기 위해 콩트의 사회학 개념과 콩트의 실증주의 사학을 도입하여 일본을 세계의 질서 속에 포함시키고 인류 공동체의 유기적 사회를 추구했다. 시바타 미치오(紫田三千雄)는 "콩트의 실증주의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랑케의 실증주의와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고 콩트의 인류의 역사의 진보에서 보편성과 조화를 통한 유기적 관계를 강조한 반면 랑케는 이와 반대로 개별성, 특수성과 균형을 강조했다. 콩트가 제시한 각 민족의 유기적 관계로 맺어진 인류의 보편적 세계사는 일제가 추구한 '대동아 공영'과 '내선일체' 정책과 맞아 떨어지 이론이며 이러한 역사학풍이 바로 교토제국대학이 중심이었다. 역사의 보편성 속에서 일본사를 연구하면서 개별역사 속에서 보편성 법칙을 찾아내려 했던 니시다 나오지로(西田直二郎)는 역사를 문명의 발전사로 파악하고자 한 문명사학자로 분류되고 있다. 나이토 고난(内藤湖南)은 문화중심 이동설을 제시하고 아시아 문화 중심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동

이러한 일제 역사학계의 현상이 바로 식민통치 시기 한국 역사학계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랑케는 민족국가들이 각기 개별적인 역사 그리고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한 힘, 즉 ‘도덕적 에너지’ 말하자면 민족정신을 강조했던 것이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역사가들은 랑케가 『강국론』에서 의미한 민족국가와 역사의 개별성 및 특수성을 모두 빼고 강국이 약소국을 지배해온 세계사적 보편성만 역사연구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식민사관의 본질이다.

3.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성격

식민주의 사학과 민족주의 사학 둘 다 민족과 국가를 연구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그 방법론은 랑케 실증주의 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²⁰⁾ 이 점이 오늘 한국

했다며 일본이 아시아 지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교토학파들은 문화주의에 입각하여 여러 민족이 하나로 통합된 ‘다문화 세계상’을 구상했다. 이런 구상에 의해서 확립된 대동아공영이나 내선일체는 철저하게 세계사적 보편주의란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이 바로 식민사관으로서, 이는 일본제국주의 식민정책의 정당성에 역사적인 근거로 활용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사카구치의 제국주의적 세계사 개념은 동양의 지배와 조선의 식민통치를 정당화 시키고 독일의 사례를 모방하여 언어로써 지배 민족을 동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선 식민통치에 도입시켰다. 역사와 언어교육을 통한 피지배민족의 동화정책을 유럽 제국으로부터 배운 사카구치의 이러한 세계사 개념을 일제는 조선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갔듯이, 교토학파의 역사이론은 식민사관의 중심을 이루었다. 임종권, 『한국역사학의 계보-실증주의와 민족주의-』, 여울목, 2017, 제3장. 특히 스테판 다나카 지음, 박영재·함동주 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나가하라 게이치 지음, 하종문 옮김,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를 보라.

19) 랑케, 『강대세력들』, 웅진, 102쪽. 랑케는 역사 속에서 각 민족은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며 각 민족국가들이 존속될 때 자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 말이다. 이러한 랑케의 역사사상은 세계사를 보편적 관점에서 본 세계 이성의 역사철학을 배척한 것이다. Leopold von Ranke, *Die gro Ben Mächete. Politisches Gespräch mit einem Nachwort von Ulrich Muhlack*(Frnkfurt am Mein und Leipzig, 1995), 주 195.

20) 김종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 소명출판, 2013, 19-20쪽. 식민주의 사학에 대해서는 이기백, 김용섭, 홍이섭, 이만열 등이 선구적으로 분석하여 그 윤곽이 잡혔고 그 뒤에 식민주의 사학의 논리를 추적한 비판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 조동걸,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2000, 241-242쪽 각주 1, 2를 볼 것.

실증주의 사학이 민족주의 사학과 식민주의 사학의 양면성을 지니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근대 역사학의 첫발이며 과학적 방법론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서술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역사학이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라는 개별성 그리고 세계사라는 보편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 랑케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르다. 개별성으로 볼 때 실증주의 사학은 민족주의 사학의 방법론이기도 하고, 보편성으로 볼 때 식민주의 사학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역사의 개별성과 보편성이란 두 대립적인 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역사학은 민족역사의 개별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동시 추구하고 있어서 항상 내적인 대립관계를 보여 왔다.

이 같은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양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한국 근대 역사학, 말하자면 실증주의 사학의 출발이 순수한 랑케가 아니라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학의 식민사관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국 근대 역사학, 다시 말해 실증주의 사학은 일본 제국대학에서 일본인 역사학자로부터 사학을 배운 한국인 역사가들과 조선 경성제국대학 출신들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일제 조선 총독부는 식민통치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조선사 편찬사업을 추진하자 여기에 일제 역사학자들과 경성제국대학이 참여했다.²¹⁾

그리하여 조선 총독부는 조선과 일본의 동화정책으로 착수된 조선사 편찬사업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조선사를 일본사의 일부로 편입시켜나갔다.²²⁾ 우선 학교 교육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조선 역사보다 식민주의 사학을 강제로 가르

21) 예컨대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편찬 사업을 들 수 있다. 장신,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磁場」, 『역사문 제연구』 26, 2011, 45-83쪽.

22)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1934년 1월 28일, 29일자 사설, 『동아일보』 1935년 2월 16일자.

쳐야 했다. 이로 인해 식민시기 말기에 이르면 한국 지식인들은 일본 역사를 달달 외우고 창시 개명을 자랑스럽게 여겨 점차 민족성을 잃어갔는데 이것이 바로 식민주의 사학을 교육한 결과였다.²³⁾ 이처럼 일제는 조선을 일본화 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식민주의 사학을 가장 유효한 전략으로 삼았다. 이렇듯 조선에 미친 식민주의 사학의 영향은 실로 막대했다. 해방 이후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일제히 역사학 방법론에 대한 이론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역사의 개별성과 특수성보다 보편성에 대한 강조, 또 현실성 부재, 사료의 나열과 문헌고증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마침내 일제 식민시기 실증주의 사학과 결별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들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현실적인 민족과 세계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사를 구상하게 되었는데, 이들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새로 구상한 민족사는 민족에 초점을 둔 역사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 역사도 민족사로서 특수성을 인정하되, 보편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⁴⁾ 이는 역사의 개별성을 중시하되, 보편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써, 말하자면 개별성과 보편성은 서로 상반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개별성과 세계사 보편성을 결합했던 일제 역사가들의 방식을 한국의 실증주의 사학자들조차 그대로 따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 역사학계의 새로운 민족사 연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이었다. 이기백의 주장을 살펴보자.

“실증사학에서는 특수성을 띤 구체적인 사실의 인식을 통하여 보편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사를 세계사의 보편성에서 인식하려는 것은 한국사학의 일단의 진전이었다. 그러나 종래에는 보편성을 강조했을 경우, 그것

23) 조동걸, 『現代韓國史學史』, 315쪽.

24) 이인영, 「우리 民族史의 性格」, 『學風』, 창간호, 을유문화사, 1948, 10-11쪽.

은 일원적인 입장에 선 것이었다. 즉, 역사는 다스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었고,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원적인 보편적 법칙에서 어긋나는 점들이 곧 특수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면 여기서 특수성이라고 인식된 사실들은 원칙이 없는 우연으로 처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사가 한국사로서의 면목을 드러내는 그 특수성이 우연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은 결코 학문적으로 바람직한 결론이 되지 못한다. 특수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무런 법칙성 없는 무질서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²⁵⁾

민족역사의 개별성(특수성)을 통해서만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곧 랑케 실증주의 사학의 핵심이다. 이와 반대로 실증주의적인 보편적 역사관은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의 중심을 차지한다. 따라서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가 “한국 역사학자들은 한국사의 발전 모델을 일본의 역사 발전에서 찾고 있다”라고 비판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난 온 말이다.²⁶⁾

이처럼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역사 연구에서 민족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보편적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 연구의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했으나 이후 개별성과 보편성이 상호 양립될 수 없는 모순점을 발견하고 역사 주체로서 민족을 인간으로 바뀌버린다. 다음의 글을 보자.

“역사는 곧 인간의 역사이며, 한국사는 곧 한국인의 역사이다. 이것은 다룰 수 없는 진리이다. 그런데 종래 한국사의 서술은 종종 인간이 없는 역사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설서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누구 역사를 만들고 움직여 왔는가 하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건과 제도의 서술로써 만족하여 왔

25) 이기백, 『한국사 신론』, 일조각, 2005, 8-9쪽에서 인용.

26)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임지현·이성시 역음, 『동아시아의 근대화, 식민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105-135쪽.

던 것이다. 한국의 근대 사학에서는 인간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민족을 중요시 한 것, 유물사관에서는 계급을 중요시 한 것 등은 그러한 예에 속한다. ...그러나 추상화된 민족이나 공식화 된 계급에 의한 서술은 한국사의 실제 움직임과 거리가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한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한국사를 그 근본으로부터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에서 인간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붙드는데 그치고 말 염려가 있다.”²⁷⁾

이렇듯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특수성과 개별성의 특징인 민족을 슬그머니 빼고 보편적 의미의 인간으로 대체했다.

해방 직후 손진태와 이인영은 민족의 초계급적 동질성과 민족주의 보편적 발전을 역사서술의 목적으로 삼고 세계사 속에서 민족사를 자리매김 하는데 노력했다. 이어서 신민족주의 이름 아래 안재홍, 손진태, 이인영 등이 이를 역사서술에서 구체화했다.²⁸⁾ 그리하여 세계사적 보편성에서 민족사의 개별성을 추구한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의 역사관은 궁극적으로 랑케 실증주의 사학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결과를 낳았다. 역사연구에서 랑케 실증주의 사학과 달리 민족의 개별성보다 보편성을 더 우위에 둔 것은 세계사적 보편성을 추구한 식민주의 사학의 방향과 같다. 한국의 실증주의 사학은 일제 역사학자들로부터 배운 것만큼 그 수용과정에서 왜곡된 내용이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통해 알 수 있

27) 이기백, 『한국사 신문』, 일조각, 2005, 7-8쪽.

28) 원래 신민족주의 역사학은 안재홍이 1930년 『조선일보』에 「朝鮮上古史管見」을 연재하고 이어 잡지사인 新朝鮮社인의 『與猶堂全書』 간행에서 정인보와 함께 교열을 맡아 연구하는 중 역사에 대한 관심과 신민족주의 기초 사상으로서 民世主義 사상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조동걸, 『現代韓國史學史』, 385쪽. 특히 일제 시기 민족과 국가란 주제를 제거하거나 혹은 왜곡했던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역사관을 주장하게 된 것은 기존의 실증주의 사학에서 신민족주의 사학으로 나아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기백, 『한국사학의 방향』, 일조각, 1978, 118쪽; 김성준, 『鶴山이인영의 역사관』, 『국사관 논총』 84, 국사편찬위원회, 1999, 135쪽.

듯이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애초부터 식민주의 사학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²⁹⁾

그러므로 식민주의 사학을 극복하게 위해서는 먼저 민족주의 사학을 재평가해야 하며 이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³⁰⁾ 이는 곧 식민주의 사학이 곧 실증주의 사학이며 근대사학은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새로운 역사 구분을 의미한다.³¹⁾ 이러한 도식에 따르면 일제 역사학자들을 통해 배운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곧 식민사관으로 해석되기 쉽다.³²⁾

김용섭은 한국사에 대한 이 두 시각들, 즉 실증주의 사학과 민족주의 사학이 대체로 우리 역사와 민족을 과소평가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반대로 이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우월성을 자랑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자(실증주의 사학)는 일제 식민의 교육정책과 식민주의 사학자들의 한국사 연구가 남겨준 유산이며 후자(민족주의 사학)는 해방 후 식민사관에 대항하여 민족정신을 양양시키려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³³⁾ 이 가운데 식민사관을 배운 많은 지식층들은 있는 그대로 한국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일제 식민통치 시기 일본인 역사가들은 한국사 연구를 주도하면서 한국사를 제국의 식민통치에 부합하도록 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까지 한국 역사학계에서 이들의 연구 업적에 의지하고 있는 바가 적지 않다. 바로 이들

29) 김용섭, 「일본,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 서술」, 『역사학보』 31, 1966, 147쪽.

30) 강만길은 해방 직후 식민사관과 실증사학의 영향 때문에 민족 사학이 부각되지 못했이라며 민족사학이 한국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반식민사학’의 확립이 한국 근대사학의 발달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강만길, 「일제시대의 反植民史學論」, 『한국사학사의연구』, 을류문화사, 1985, 232쪽 ; 「민족사학론의 반성-(민족사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68집, 1975.

31) 이러한 도식은 이병도 제자 김철준가 단재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을 더 근대적이라고 평가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실증주의 사학이나 사회경제사학이 역사의 과학성을 주장하면서도 비과학적인 학풍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철준, 「국사학의 성장과정과 그 방향」, 『한국의 민족문화 : 그 전통성과 시대성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 266-273쪽.

32) 한우근은 식민주의 사학이 실증사학의 속류(俗類)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한우근, 『민족사의 전망』, 학술정보, 2001, 271-277쪽.

33) 김용섭, 「일제 사학자들의 한국사관-일본인은 한국사를 어떻게 보아왔는가?」, 『한국사의 반성』, 신구문화사, 1969, 29쪽.

의 연구들이 오늘 날 한국 역사학계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식민주의 사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 역사가들이 편취한 랑케의 역사사상은 우리 사학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편성과 세계사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 것이다.³⁴⁾

결국 한국 역사학계는 식민주의 사학의 극복을 위해 민족역사와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여전히 일제가 왜곡한 랑케의 『강국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역사학이 스스로 민족주의 정신과 문화전통 및 근대화를 강조한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 역시 새로운 ‘후식민사학’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³⁵⁾ 결국 한국 역사학계는 식민주의 사학의 실체를 척결하지 못하고 민족 역사의 문제로 분열과 논란만 가중시켜왔다.³⁶⁾

이와 같이 한국 역사학계에서 식민주의 사학과 관련하여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에서 실증주의 사학이 지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민족주의 사학을 수용하여 식민주의 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식민주의 사학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³⁷⁾ 한국 역사학계가 식민

34) 이 같은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사학자들은 대개 독일어 혹은 영어 등 유럽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외국어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한국 역사학 1세대들은 일본어에 능하기 때문에 자연히 일본 학자들의 번역본이나 해석, 혹은 논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 사학자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랑케의 저작을 읽고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 줄 수 있는 역사이론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의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35) 이종욱은 이병도 이기백으로 이어지는 한국 실증주의 사학 계보 원조는 일본의 식민주의 사학자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종욱은 이기백의 실증주의 사학에까지 이어지는 ‘후식민사학’의 해체를 전제로 하여 한국사를 재구성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식민주의 사학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민족인가, 국가인가? 신라 내물왕 이전 역사에 답이 있다」, 소나무, 2006. 참조.

36) 김종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 소명, 2013, 제 4장을 참조.

37) 김종준, 「한국사학계 반식민 역사학 정립 과정에서 실증사학의 위상 변화」, 『역사문제연구』 31호,

주의 사학의 극복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고 한 비판은 무슨 까닭일까.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일제 역사가들이 미처 연구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를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일제에 의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 잡아 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신의 연구가 구체적으로 식민주의 사학의 성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아온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역사학계에서 식민주의 사학의 극복 문제는 궁극적으로 서로 편 가르기가 반복되고 있다.³⁸⁾ 잘못 보면 역사에서 국가의 개입은 랑케 실증주의 사학에 부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를 역사의 중심으로 한 랑케의 역사학은 어디까지나 역사가의 주관이나 사상의 개입이 배제된 순수한 객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³⁹⁾ 객관성이 결여된 역사연구는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 연장선에서 볼 때 민족주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랑케 실증주의 사학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랑케 실증주의 사학의 핵심은 말 그대로 실증을 추구하는 역사학, 다시 말해 역사의 과학화이다. ‘실증주의 사학’ 혹은 ‘실증사학’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자주 혼용하여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이 둘 다 대체적으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을 의미한다.⁴⁰⁾ 그렇다면 한국 역사가들은 일제 식민지 시기의 일본 역사가들에게 배운

역사문제연구소, 2014, 56쪽.

38) 이러한 실례로서 1974년 3월 국사교과서에 동학 난을 동학혁명으로 수정한 것과 관련된 논란을 들 수 있다. 김종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 소명, 2013, 175-176쪽.

39) 랑케는 과학으로서 역사 서술은 역사가의 철학이나 사상의 개입이 없는 즉, 비당파성적으로 파악하여 순수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Ranke, "On the Character of Historical Science" Georg G. Iggers ed., *The Theory and Practice of History*, (New York : Routledge, 2011), 14쪽.

40) 그러나 이 둘의 용어는 성격이 다른 만큼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도 있지만 한국사학계에서는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홍승기, *위 책*, 124쪽 이 두 용어의 혼용에 대한 지적은 김영한, 『실증주의 사관-코트와 버클을 중심으로』, 『사관이란 무엇인가』, 1. 차하순편, 청람문화사, 2001, 60-61쪽을 보라.

랑케 실증주의 사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상백의 경우, 어떤 사실에 이르는 결론을 내릴 때 정밀한 관찰과 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독단적으로 해석하거나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 아니고, 과학적 방법도 아니라고 설명한다.⁴¹⁾

그가 말한 실증주의 사학은 실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는 것, 즉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연구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상백이 말하는 실증주의는 랑케의 ‘역사 과학적 방법’인가 아니면 콩트의 ‘자연 과학적 방법’인가? 콩트 실증주의는 자연과학을 적용하여 보편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며, 랑케 실증주의 사학이 추구한 역사과학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이상백은 역사과학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과학적 방법에 의한 연구를 의미한다고 말한다.⁴²⁾

이에 비추어 보면 이상백은 랑케 실증주의 사학에 속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이기백은 ‘실증사학(실증주의 사학)’을 콩트 실증주의 사학과 구별하여 고증사학이란 말이 더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⁴³⁾ 어찌했든 일제 역사가로부터 수입된 실증주의 사학은 랑케 실증주의 사학이었다.⁴⁴⁾ 그러나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일제 역사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이해에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주장한 실증주의 사학의 특성은 랑케 실증주의 사학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랑케로부터 사실과 실증의 중요성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랑케가 중시한 것은 ‘사실(事實)’ 인 반면 한국의 실증주의 사학은 ‘실증(實證)’을 더 강조하고 있다.

41) 이상백, 『序』 『韓國文化史研究論巧』, 을유문화사, 1947, 9쪽.

42) 이상백, 앞 책, 3쪽.

43) 예컨대 시바타 미치오(紫田三千雄)은 고증사학과 실증사학을 동일시하고 콩트의 실증주의와 구별했다. 그에 따르면 실증이란 의미는 비합리적인 역사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헌비판과 고증을 바탕으로 한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을 의미한다.

44) 김용섭, 『日本, 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 敍述』, 『역사학보』 31, 역사학회, 1966, 140쪽.

말하자면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방법론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달리 말해 한국 실증주의 역사가들은 사료 비판이나 고증을 통하여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성을 탐구하기보다 스스로 설정한 가설 혹은 역사사건 그 자체를 입증시키는 것에 더 몰두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역사연구 방식은 한국 사학계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입각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⁴⁵⁾ 다시 말해 이는 한국에서 역사연구가 비과학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병도의 실증주의 사학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랑케 실증주의 사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하자면 그의 방식의 실증주의이다. 이러한 역사학의 흐름은 랑케 실증주의 사학에 반대하여 콩트의 과학적 실증주의를 수용함

으로써 문화주의 사학으로 나아갔던 일제의 교토학파의 역사 철학자들이나 일제 실증주의 사학자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에게서도 일제 역사학자들의 경향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한국 실증주의 사학과 랑케 실증주의 사학의 차이점은 각각 보편성과 개별성, 그리고 인류라는 객관성과 민족이라는 특수성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한국 역사학은 이런 시각의 간극 속에서 실증주의 사학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 한국 역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문제점을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 보편성을 추구한 역사학은 역사연구의 일반성으로 수용되기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민족의 역사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보편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편

45) 홍승기, 『한국사학론』, 일조각, 2001, 125-126쪽.

견이나 이념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보편성에 기반을 둔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된 역사학은 철저하게 배척되어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연구가 가능하다. 결국 민족은 주관적인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역사연구의 주제이며 이 점에서 민족주의 사학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한다. 설령 한국 역사학계가 그 어떤 현대의 역사학의 흐름을 과감하게 수용하더라도 랑케 실증주의 지향점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민족역사의 서술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학계의 ‘통설通說’, 혹은 ‘정설定說’이란 말을 자주 즐겨 사용한다. 인문학 특히 역사학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야말로 학문의 독선이다. 과거 역사적 사실은 모두 역사가의 해석과 추정으로 설명되는 것이지 그 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학계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비정(比定)한다’라고 말하지 않은가? ‘통설’, 혹은 ‘정설’ 등 같은 독선적인 결론은 또 다른 연구 성과나 해석을 가로막기 마련이며 결국 역사연구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참고문헌

국내저서

- 강만길, 『한국사학사의연구』, 을류문화사, 1991.
- 강상중 저, 이경덕, 임성모 옮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 김종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 소명출판, 2013.
- 나가하라 게이지 지음, 하종문 옮김,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
- 랑케, 이상신 옮김, 『강대세력들, 정치대담, 자서전』, 신서원, 2014.
- 스테판 다나카 지음, 박영재 · 함동주 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 이기백, 『한국사 신문』, 일조각, 2005.
- 이기백, 『한국사학의 방향』, 일조각, 1978.
- 이상백, 『韓國文化史研究論攷』, 을유문화사, 1947.
- 이종욱, 『민족인가, 국가인가? 신라 내물왕 이전 역사에 답이 있다』, 소나무, 2006.
- 임종권, 『한국역사학의 계보—실증주의와 민족주의—』, 여울목, 2017.
- 조광, 『한국사학사의 인식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0.
- 조동걸,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2000.
- 한우근, 『민족사의 전망』, 학술정보, 2001.
- 홍승기, 『한국사학론』, 일조각, 2001.
-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옮김, 『메타역사 :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1, 2권, 지식을 만드느지식, 2011.

국내논문

- 강만길, 「민족사학론의 반성—〈민족사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68집, 역사학회, 1975.
- 김성준, 「鶴山 이인영의 역사인식」, 『국사관 논총』 84, 국사편찬위원회, 1999.
- 김용섭, 「일제 사학자들의 한국사관—일본인은 한국사를 어떻게 보아왔는가?」, 『한국사의 반성』, 신구문화사, 1969.
- 김용섭, 「日本, 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 敍述」, 『역사학보』 31, 역사학회 1966.
- 김영한, 「실증주의 사관—공트와 버클을 중심으로」, 『사관이란 무엇인가』, 청람문화사, 2001.

- 김종준, 「한국사학계 반식민 역사학 정립 과정에서 실증사학의 위상 변화」, 『역사문제연구』 31호, 역사문제연구소, 2014.
- 김철준, 「국사학의 성장과정과 그 방향」, 『한국의 민족문화 : 그 전통성과 시대성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
- 미야지마 히로시, 임지현 · 이성시 역음, 「동아시아의 근대화, 식민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 이인영, 「우리 民族史 의 性格」, 『學風』, 창간호, 을유문화사, 1948.
- 장 신,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磁場」, 『역사문제연구』 26, 역사문제연구소, 2011.

외국 저서

- 高坂正顯, 『歴史的世界』, 京都哲學叢書 第25卷, (東京)燈影舎, 2002.
- 高坂正顯, 『歴史の意味とその方』, (東京)こふし書房, 2002.
- 高山岩南, 『歴史の哲學』, (東京)こふし書房, 2001.
- 高坂正顯, 高山岩南, 西谷啓治, 鈴木成高, 『世界史的立場と日本』, (東京) 中央公論社, 1943.
- 坂口昂, 『獨逸史學史』, (東京)岩波書店, 1932.
- 吉川幸次郎 編, 『東洋學の創始者たち』, (東京)講談社, 1976.
- 岩波講座, 『世界歴史』 第30 別卷, (東京)岩波書店, 1971.
- Hayden White, *Metahistory :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Century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4.
- Leopold von Ranke, *Die gro ßen Mächete. Pölitisches Gespräch mit einem Nachwort von Ulrich Muhlack*, Frnkfurt am Mein und Leipzig, 1995.

외국 논문

- 福澤諭吉, 「脫亞論」, 『福澤諭吉全集』 第10卷, (東京)岩波書店, 1960.
- Leonard Krieger, “Elements of Early Historicism : Experience, Theory and History in Ranke”, *History and Theory*, Vol. 14, No. 4, Dec, 1975.
- Ranke, “Über die Idee der Universalhistory”, in Herausgeben von Ludwig Dehio und Walther Kienast, *Historische Zeitschrift* Band 178, München: Oldenbourg, 1954.
- Ranke, “On the Character of Historical Science” Georg G. Iggers ed., *The Theory and Practice of History*, New York : Routledge, 2011.

신문

『조선일보』, 1934년 1월 28일, 29일자 사설.

『동아일보』, 1935년 2월 16일자.

「Abstract」

The Genealogy of Positive History of Korea

Lim, Jong-Gwon

This thesis is on the character and making of Positive History in Korea. First, Modern History, Ranke's Positive History had been accepted by Korean historians, who had learned from historians of Japan empire, as it were an imperialist. So, these historians have been the mainstream of history studies in Korea and have taken lead the academic word of history. Hence, Korea history studies have provoked many disputes of the colonial view of history.

Therefore, the Positive History of Korea maintain to have to study a history of nation on the universal point of view, not individual and special in contrast with Rank'e view. The view of history like this and the colonial view of history that historians of Japan empire had made to answer the purpose of a politic ideology of imperialism have something in common.

Japan empire was urgently needed a historical basis to establish the justification of colonization of Korea and supremacy in Asia, meeting the politic demands like this, historians of Japan empire builded up 'the Positive History of Japanese style' by transshaping Ranke's Positive History in mame of objectivity and scientific characteristic.

So, Korean historians who had learned the historical studies from colonialist historians of Japan in the period of colonization are encountered criticism to be lead role of a making the Positive History of Japanese style' put down roots in Korea. Thus, it is said that Positive History in Korea has a characteristic of the colonial view of history, not Rank's view.

Key words : Ranke, Positive history, Imperialism, Universality, Individuality, Nationalism, The Colonial View of History. ‘The Positive History of Japanese style’.

『역사와융합』 제 2집(2018. 6)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

그 계승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 청산 과제와 방법

임 찬 경(국학연구소)

－ 차 례 －

1. 머리말 : 계승을 통한 청산의 과제를 위해
2. 독립운동가의 역사학은 ‘민족주의사학’ 아닌 ‘독립운동사학’
3. 독립운동가의 역사 적폐 청산 노력과 그 좌절
4. 독립운동가 고대사 인식 계승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 청산 과제와 방법
5. 맺음말 : 문재인 정부의 역사 적폐 청산을 위한 제언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우선 독립운동가들이 연구 및 저술한 역사학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독립운동가들이 역사를 연구 및 저술한 목적은 전적으로 독립운동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을 특별히 ‘독립운동사학’으로 명명하였다.

본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역사 적폐 청산 노력에 대해 검토하였다. 독립운동가들은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이라는 두 가지의 역사 적폐를 동시에 청산하고, 우리의 역사를 정립(正立)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적폐 청산 시도는 철저하게 좌절되었다. 본고에서는 그 좌절의 원인

도 살펴보았다.

본고의 세 번째 부분은 독립운동가 고대사 인식의 계승에 관한 논의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독립운동가의 역사 인식 중에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계승할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역사 적폐 청산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2017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사학계의 적폐 청산은 어떻게 시도되어야 할지, 그 적폐 청산의 과제와 방법을 간략하게 검토해보았다.

(주제어) 독립운동가, 고대사, 독립운동사학, 민족주의사학, 역사 적폐 청산, 과거사 청산, 한국사학계

1. 머리말

：계승을 통한 청산의 과제를 위해

필자는 2014년 6월부터 교육부의 예산지원으로 연구하여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이란 결과물을 제출하였는데,¹⁾ 본고는 그 결과물의 결론 부분을 일부 보충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독립운동가들이 연구 및 저술한 역사학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독립운동가들이 역사를 연구 및 저술한 목적은 전적으로 독립운동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을 ‘독립운동사학’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부각시켜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할 것이다. 또한 민족사학 혹은 민족주의사학이란 모호하고 부정확한 개념을 사용하는 배경에 우리 역사학의 식민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AKS-2013-KSS-1230004)의 결과물을 활용한 논문이다.

1) 이 연구는 2017년 9월 25일 최종결과물을 제출하면서 종료되었다. 결과물은 머지않아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이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할 것이다.

본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역사 적폐 청산 노력과 그 좌절에 대해 검토하였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우리 역사를 찾았을 때, 당시의 그 어디에도 우리의 '참역사'는 없었다. 즉 우리 민족을 주체로 세워 우리의 자주독립과 발전을 추구하게 할 역사가 당시에 없었던 것이다. 조선왕조 시기에 서술된 기존의 역사들은 사대사관에 의해, 봉건세력의 지배를 가능하게 할 왕조사(王朝史)가 중화(中華) 및 소중화(小中華)의 논리 아래 산만하게 편집된 것이었다. 거기에 한반도를 침략하여 영구적으로 지배하려는 일제는 사대사관을 변형시킨 식민사관을 급조(急造)하여, 우리 역사의 정체성과 식민성을 부각시키며, 식민지 국민을 형성하는 도구로서 식민사학을 악용하려 했다.

이에 독립운동가들은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이라는 두 가지의 역사 적폐를 동시에 청산하고, 우리의 역사를 정립(正立)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적폐 청산 시도는 철저하게 좌절되었다. 심지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이 청산하고자 시도했던 역사 적폐는 아직도 살아 현재의 한국 역사학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좌절의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의 세 번째 부분은 독립운동가 고대사 인식의 계승에 관한 논의이다. 사실, 독립운동가가 연구 및 서술한 역사를 우리의 정사(正史)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독립운동가의 역사 연구 및 서술에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었음은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독립운동가의 역사 인식 중에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계승할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역사 적폐 청산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청산하려 시도했던 역사 적폐 즉 사대사관 및 식민사관 청산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아직 과제로 남겨져 있는 부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역사학계의 적폐 청산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되었던 '과거사 청산'과도 연관이 있으며, 그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좌절되

고 왜곡되었던 역사적 적폐 청산 과제를 다시 되살리는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 2017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사학계의 적폐 청산은 어떻게 시도되어야 할지, 그 적폐 청산의 과제와 방법을 간략하게 검토해보았다.

2 독립운동가의 역사학은 ‘민족주의사학’ 아닌 ‘독립운동사학’

2.1 기존 한국사학사의 민족주의사학이란 용어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검토

독립운동의 목적으로 역사를 연구 및 저술하고 또 그 역사를 확산시키려 했던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을 검토하는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에서, 필자는 ‘독립운동역사가’와 ‘독립운동사학’이란 두 가지의 새로운 용어를 창안(創案)하여 사용하였다.

‘독립운동역사가’는 독립운동 차원의 역사연구를 진행하고, 또 그 연구에 의한 일정한 역사저술을 남긴 독립운동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창안되었다. 독립운동과 역사연구라는 두 가지의 시대적 역할을 동시에 담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그 성격을 특히 부각시키는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려 한 것이다.

‘독립운동사학’이란 독립운동역사가들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는 용어로서 새로 창안해낸 것이다. 즉 독립운동역사가들의 역사학을 기존의 한국사학사(韓國史學史)에서처럼 ‘애국계몽사학’을 뒤이은 ‘민족주의사학’으로 분류하여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계몽사학’을 뒤이은 ‘독립운동사학’으로 분류하여 검토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것이다.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운동 차원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역사가의 역사연구들을 특별히 ‘독립운동사학’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구분하여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의도 때문이다.

① 소위 민족주의사학의 성립

독립운동 차원의 역사연구를 진행하여 일정한 저술을 남긴 대표적인 독립운동 역사가로서 이상룡, 박은식, 유인식, 김교헌, 이시영, 계봉우, 신채호, 김정규, 김승학, 이원태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한국역사학계에는 이들 독립운동역사가들을 대체로 ‘민족주의사학’을 추구한 ‘민족주의사학자’ 유형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역사가의 독특한 면모(面貌)를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국역사학계의 이러한 분류 경향을 반드시 재검토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만열(李萬烈)은 『한국근대역사학의 이해』(1981)에서 19세기말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의 민족주의사학 태동(胎動)과 성립 및 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민족주의사학의 태동 : 국가 자주(自主)의 시련으로 이 시기의 역사학은 민족적 자각을 위한 방편으로 환기 고조되었고 애국계몽사상의 중요한 소재와 내용이 되었다. 애국계몽이 중요한 임무였던 만큼 자주성 교양에 역점을 두고 교과서 등을 통해 민족사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랬던 만큼 일제 통감부(統監府)와의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한편 뜻있는 선각자들은 민족 전통의 계승을 위해 민족적인 고전(古典) 간행에 열을 올렸다.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가 발족(發足)되는 것은 이때다.

민족주의사학의 성립 :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 일제는 어용학자들을 동원, 그들의 조선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소위 식민주의사관을 안출(案出)하기에 광분한다. 이에 대하여 박은식·신채호·남궁억 등은 한국사의 연구와 보급이 국권회복·독립투쟁의 중요 방편임을 인식하고 민족사 연구에 정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전통적인 역사연구 방법을 답습한 것이 아니고, 식

민족주의사학에 대항할 역사의식과 방법론을 확대 심화시켰던 것이다. 이 결과 한국의 소위 근대역사학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민족주의사학의 분화 : 1920년대 말기부터 민족사학은 사관과 방법론을 달리 하는 여러 유파가 형성된다. 흔히 민족주의사학 · 실증주의사학 · 유물사관(사회경제사학으로도 불리어진다)으로 3대별(大別)된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 일본의 소위 근대사학에 자극받았고 근대교육에 접했던 소장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학회를 조직하여 학술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진단학회(震檀學會)의 성립과 활동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1940년대에 이르면 민족주의사학은 표면상으로는 거의 침묵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²⁾

민족주의사학의 태동, 성립, 분화에 대한 위의 인용문은 한국사학계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은 이만열이 1976년에 작성한 것인데, 이보다 앞서 김용섭(金容燮)도 1971년에 유사한 관점을 제시했었다. 김용섭은 1971년 및 1972년에 발표된 글에서 박은식과 신채호의 근대역사학을 먼저 서술한 뒤, 이를 계승한 1930년대 및 1940년대의 민족주의 역사학을 서술하고, 이어서 일본 역사학의 ‘관학(官學) 아카데미즘’의 학풍과 방법론을 그대로 도입하여 성립된 실증주의 역사학을 서술하고 있다.³⁾ 또한 김용섭은 민족주의 역사학 및 실증주의 역사학과 같은 시기에 맑스와 엥겔스의 사적유물론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성립된 사회경제사학도 언급하고 있다.⁴⁾

물론 일제의 침략으로 얼룩진 근대 역사학의 발전과정을 민족주의사학, 실증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식은 근대사학을 전반적으로

2) 李萬烈, 『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 文學과知性社, 1981, 116~117쪽.

3) 위에 소개한 김용섭의 논의는 『文學과 知性』 제2권제2호(통권4호, 1971)과 『文學과 知性』 제3권제3호(통권9호, 1972)에 수록되어 있다.

4) 사회경제사학에 대해서는 김용섭이 1970년대에 강의 등에서 언급했지만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을 정리하여 그의 회고록인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 - 해방세대 학자의 역사연구 역사강의』(지식산업사, 2011)에 실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를 참고하였다.

체계 있게 개괄(概括)함에 매우 유용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책에서 검토한 독립운동역사가의 역사연구를 단순히 민족주의사학으로만 분류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민족주의사학이란 명칭 자체부터 한 번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독립운동역사가들과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사학의 상관성

원칙적으로 독립운동가들에게 민족주의란 침략적 제국주의, 외세와 영합하여 식민지의 지배계급으로 다시 살아남은 매국적(賣國的) 봉건 잔재세력, 침략적 제국주의와 이에 영합한 매국적 봉건 세력이 식민지에 이식(移植)하여 강화하려는 식민주의 등에 맞서는 개념으로 설정된 것이다. 신채호의 논설인 「제국주의와 민족주의」(1909)를 살펴보면, 신채호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의 속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 신채호는 1910년에 발표한 또 다른 글에서, 당시 세계의 추세를 “제국주의의 세계, …민족주의의 세계”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그런데 이 글에서 주목할 점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신채호는 제국주의도 물론 그 자체 안에 민족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제국주의 내부의 민족주의는 지배계급의 계급적 지배를 강화하거나 혹은 국민을 동원하여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지배이데올로기⁷⁾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제국주의

5) 申采浩, 「帝國主義와 民族主義」, 『大韓每日申報』, 1909. 5. 28.

6) 申采浩, 「二十世紀 新國民」, 『大韓每日申報』, 1910.2.22~3.3.

7) 지배란 지배하는 자와 지배되는 자와의 사이에 성립하는 노골적인 사실관계이며,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지배하는 측의 힘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지배되는 측이 그 지배를 어쩔 수 없는 것, 혹은 자진하여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논리나 사상 같은 것이 없으면 지배는 역사적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지닐 수가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지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인상을 지울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 등을 지배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다. 呂博東, 「日本近代天皇制의 統治構造와 지배이데올로기」, 『일본학지』 Vol.10,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의 민족주의는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배타적이고 또 폭력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교하여, 제국주의에 의해 침략당하는 국가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에 맞서 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로서, 그 저항에는 제국주의 침략은 물론 자기 국가 내부의 반민족주의적인 온갖 세력과도 맞서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독립운동가들 또한 제국주의에 맞서는 ‘저항적 민족주의’ 차원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존 한국사학계에서 민족주의사학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가 과연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시대에 맞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이해하고 선택했던 ‘저항적 민족주의’의 속성을 정확히 반영한 용어인가? 이러한 의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960년 4·19혁명의 정신적 영향력 아래에서 1960년대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소위 민족주의사학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후기 및 1970년대 초기에 한국 근대사학의 흐름을 정리하고,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속에서 더 구체화되었다. 이 시기에 민족사학은 민족주의사학과 동의어(同義語)로 불려지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기백(李基白)은 『사상계』 1963년 2월호에 「민족사학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뒤에 이기백이 자신의 저서인 『민족과 역사』(1974)에 제목을 「민족주의사학의 문제」로 바꾸어 쓰는 정도였다. 대체로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민족사학이라고 부르던 것을 1970년대 이후 민족주의사학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다.⁸⁾

서중석(徐仲錫)은 민족사학과 민족주의사학의 차이점, 민족주의사학의 개념 및 성격 그리고 식민사학과 관계, 민족주의사학의 범위 등을 검토한 그의 논문에서 민족주의사학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991, 64~65쪽.

8) 서중석, 「민족주의사학의 논쟁」 『진단학보』 80, 1995, 208쪽.

민족사학과 민족주의사학을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성도 있다. 예컨대 민족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양자는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도 있다. 민족주의가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두리뭉실하게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용어라고 볼 수는 없다. 민족운동이라는 말은 민족주의운동이라는 말보다는 더 광의(廣義)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연구자에 따라서 일제시기에 민족주의와 민족개량주의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비록 반일민족해방투쟁이 아니고 일제의 통치 내(內)라고 하더라도 민족이라는 한 단위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면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비슷하게 민족사학은 민족주의사학보다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임을 시사한 바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조동걸(趙東杰)은 보다 적극적으로 양자의 구별을 시도하였다.⁹⁾

위의 인용문에 언급되었듯, 조동걸은 그의 논문인 「민족사학의 분류와 성격」에서 민족사학과 민족주의사학을 구별해서 볼 것을 제안하고, 그 이유로 1930년대의 맑스주의사학(사회경제사학)이 민족사학이기는 하지만 민족주의사학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동걸은 민족사학이란 말은 식민사학에 대칭하는 용어이고, 민족주의사학은 민족사학의 분류상의 호칭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족사학에 맑스주의사학과 더불어 실증사학을 포함시켰던 것이다.¹⁰⁾

그러나 민족사학이란 매우 포괄적인 조동걸의 개념 설정에 대해, 서중석은 “친일행위를 한 자들의 사학도 민족사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¹¹⁾ 사실 이러한 비판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

9) 위의 책, 209쪽.

10) 조동걸, 「민족사학의 분류와 성격」,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3, 368쪽 및 414쪽.

11) 서중석, 앞의 책, 209~210쪽.

다.

식민사학에 대칭하는 용어로서의 민족사학이란 조동걸의 개념 설정에 의하면, 민족사학이라는 큰 범위 안에 일제의 식민사학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한국사학들이 포괄(包括)되는 것이다. 당연히 실증주의사학 혹은 문화사학 등의 분야에서 친일을 한 한국 국적의 학자도 모두 민족사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동걸의 경우, 민족사학이란 식민사학에 정확하게 대칭되는 개념이기보다는 단순히 한국사학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실제로 조동걸의 『현대한국사학사(現代韓國史學史)』(1998)에서는 ‘한국사학(민족사학)’이라는 큰 범주에 한국사학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민족사학은 한국사학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조동걸은 위의 저서에 〈한국사학의 분류도〉란 [도표]를 제시하였으며, 여기에서 한국사학(민족사학)의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우선 민족사학과 민족주의사학이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것은 민족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이 다른 것과 같다. 민족사학은 식민사학의 대칭이고, 민족주의사학은 보편주의사학의 대칭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사학은 유물론사학과 절충식 경제사학을 총괄한 의미의 호칭으로 이해하였다. 식민지 시기 민족주의사학은 민족해방의 인식에 기초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민족주의사학은 민족통일을 지향한 것이어야 하듯이 민족주의사학은 민족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표방할 점이 다른 것도 유의하여 이해해야 한다.¹²⁾

조동걸은 위에 인용한 논고의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도표]에 대해, 보충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위의 [도표]에서 왼쪽 즉 관념사학, 사회경

12)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45쪽.

제사학, 실증사학은 역사학 방법론에 의한 분류를 나타내는 것이며 오른쪽 즉 민족주의사학, 보편주의사학, 고증학은 식민지 현실인식의 기준에 의한 분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조동걸은 “종래에 학계에서는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으로 분류해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국사학을 이해하는데 고도(高度)의 사고가 없으면 논리를 세우기가 힘들었다.”며, 여러 검토 끝에 아래의 [도표 1]와 같은 분류가 가능했음을 밝히고 있다.¹³⁾

[도표 1] 위의 본문에 언급된 조동걸의 〈한국사학의 분류도〉¹⁴⁾

	*역사학 방법론에 의한 분류		*식민지 현실인식의 기준에 의한 분류
한국사학 (민족사학)	관념사학	유심론사학	민족주의 역사학 (민족주의사학)
		초기 문화사학	
		후기 문화사학	
	사회경제사학	역사주의 경제사학	보편주의 역사학
		절충식 경제사학	
		유물론사학	
	실증사학		고증학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관(史觀)은 무엇보다도 역사적 시간에 대한 강한 자각(自覺) 즉 사회와 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시간적 선후(先後) 관계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¹⁵⁾ 조동걸은 근대사학이 사실의 실증(實證)과 역사적 논리 즉 인과관계(因果關係)의 규명에 의한 역사발전의 논리를 탐색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탐색 과정에 역사를 변천시키는 힘의 존재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관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듯하다.

13) 위의 책, 518~519쪽.

14) 조동걸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45쪽에 실린 도표를 그 책 518~519쪽의 설명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15) 車河淳, 『史觀이란 무엇인가』, 청람, 1982, 9쪽.

이런 인식에 의해, 위의 [도표 1]에서 언급되었듯, 조동걸은 역사변천의 해석에서 정신적 요소를 중시하는 관념사학을 설정한 것이다. 위의 [도표 1]에서, 또한 조동걸은 다시 관념사학을 유심론사학(唯心論史學)과 문화사학으로 나누고 있다. 신채호나 박은식의 경우처럼 혼(魂), 민기(民氣), 낭가사상(郎家思想) 등 정신적 힘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관점을 유심론사학이라고 해석했고 황의돈(黃義敦)이나 안확(安廓) 등처럼 인간의 문화적 기능에 의하여 역사가 변천한다고 본 방법론은 문화사학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2.2 ‘독립운동사학’을 설정하고 그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

문제는 위에 소개한 이만열과 조동걸 등의 근대사학 분류를 적용할 경우, 독립운동역사가들이 보여준 역사인식의 특성을 제대로 밝히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만열과 조동걸 등의 분류에 따를 경우, 독립운동역사가들은 소위 기존의 민족주의사학의 범주 안에서 기존의 여러 역사학자들이 이미 분석한 것과 같은 결과들에서 논의를 더 진전시킬 수 없을 수 있는 것이다.

조동걸은 한국사학(민족사학)을 역사학 방법론에 따라 관념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으로 나누고 신채호와 박은식 등의 독립운동가들은 관념사학 아래의 분화(分化)된 개념인 유심론사학에 분류하고 있다. 또한 유심론사학, 문화사학은 사회경제사학 아래의 분화된 개념인 절충식 경제사학과 함께 식민지 현실인식이란 기준에 의해 민족주의사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로써 그 분석 대상들을 서로 연관시켜 인식하면서, 오로지 독립운동으로서의 역사를 연구했던 독립운동역사가들의 독특한 면모를 제대로 밝힐 수 있겠는가?

일찍이 강만길은 위에 언급한 이러한 분류와 민족주의사학(당시에는 민족사학이라고 혼용하기도 한)이란 용어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적이 있다.

식민지 치하에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더 나아가서 그 지도이론의 한 갈래로서 이루어진 사론(史論)을 〈민족사학〉이라 이름지은 것은 다소 막연히 민족주의적 입장에 선 국사학이란 의미에서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이란 말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여 왔다. 따라서 민족주의도 여러 가지 단계(段階)와 유형(類型)이 있으며 같은 시대의 민족주의도 그 대내적 기능과 대외적 기능이 서로 다르다. 우리는 〈민족사학〉이란 용어 자체가 그다지 적당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더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한층 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¹⁶⁾

위와 같은 여러 논의를 검토한 결과, 필자는 ‘독립운동사학’이란 새로운 개념을 세워,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 본문에서의 자료수집과 분석의 잣대로 삼았다. 즉 필자는 독립운동역사가를 ‘민족주의사학’이란 개념의 틀로 분석하지 않고, ‘독립운동사학’이란 특성(特性)화시킨 개념의 틀로서 독립운동역사가만을 뚜렷이 구분하여 그 특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의 서술을 시도하려 한 것이다.

‘독립운동사학’은 독립운동가와 역사학을 융합시킨 용어이다. 즉 독립운동가들이 그 연구 주체가 되어 형성한 역사학을 범주화한 것이 ‘독립운동사학’이다. 부연하면, ‘독립운동사학’이란 독립운동역사가들이 연구 및 저술한 역사의 의미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는 용어로서 새로 창안해낸 것이다. 즉 독립운동역사가들의 역사학을 기존의 한국사학사(韓國史學史)에서처럼 ‘애국계몽사학’을 뒤이은 ‘민족주의사학’으로 분류하여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계몽사학’을 뒤이은 ‘독립운동사학’으로 분류하여 검토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것이다.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운동 차원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역사가의 역사연구들을 특별히 ‘독립운동사학’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구분하여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의도 때문이다.

16) 강만길, 「〈民族史學〉論의 反省」, 『창작과비평』11(1), 1976, 320쪽.

‘독립운동사학’이란 자칫 민족주의사학에서 분화된 개념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의 근대사학에서는 ‘독립운동사학’에서 뒤의 ‘민족주의사학’(1945년 8월의 해방 이후에도 역시 민족의 과제로 남은 자주, 식민세력 청산, 민주와 통일의 과제 실현을 위한 역사학으로 이런 용어가 굳이 필요하다면)이 잉태되고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분명한 점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역사가들이 형성한 사학은 그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로 ‘독립운동사학’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독립운동사학’이란 새로운 개념의 설정은 본 연구를 통해 한층 진전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독립운동역사가들의 재조명(再照明)은 물론 그 계승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 사회, 우리 역사학계가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에서 검토한 독립운동역사가들의 독립운동 및 역사연구에의 열정과 피땀과 방법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서는 물론 그 역사정신의 계승에서 그간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제부터라도 그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계승을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다소 새로운 시도를 하자는 차원이기도 한 것이다. ‘독립운동사학’이란 다소 생소한 개념의 설정과 함께, 그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3. 독립운동가의 역사 적폐 청산 노력과 그 좌절

3.1 독립운동가의 역사 적폐 청산 노력

사대적이고 봉건적인 조선이 해체되며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근대적 방법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하고 또 복원하려는 독립운동역사가들이 본 당시 우리역

사의 현실은 실로 참담한 것이었다. 신채호가 “조선에 조선사라 할 조선사가 있었는가 하면 수궁하기 어렵다.”고 하던가, “내가 보건데, 조선사는 내란이나 외구(外寇)의 병화(兵火)에서보다 곧 조선사를 저작(著作)하던 그 사람들의 손에서 더 탕잔(蕩殘)되었다 하노라.”라고 하던가, “예전 조선의 역사가들은 …도깨비도 뜨지 못한다는 땅 뜨는 재주를 부려 졸본(卒本)을 떠다가 성천(成川) 혹은 영변(寧邊)에 놓으며, 안시성(安市城)을 떠다가 용강(龍崗) 혹은 안주(安州)에 놓으며”라고 비판했듯,¹⁷⁾ 기존 조선 역사의 서술이나 연구방법은 물론 그 서술 주체 등 모두가 전반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했다.

고려 중기 이후부터 조선시대를 거치며 사대사관에 의한 한국민족사의 왜곡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신채호가 그의 글에서 “조선에 지금까지 조선사가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할 정도로, “조선적 조선을 적은 조선사거나, 위인적(偉人的) 조선을 지은 조선사이거나, 다만 조선을 주체로 하는 충실히 적은 조선사”라 할 수 있는 ‘참 조선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¹⁸⁾

독립운동가들이 볼 때,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위기의 시기에 우리민족을 각성시키고 단합시켜 독립운동의 동력을 이끌어낼 우리의 민족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독립운동을 위한 차원의 역사서술이 절실했고, 그 역사서술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바로 독립운동역사가였던 것이다.

17) 申采浩, 「二. 史의 三大元素와 朝鮮舊史의 缺點」, 『朝鮮日報』, 1931. 6. 11. 위의 인용문에서 “도깨비도 뜨지 못한다는 땅 뜨는 재주를 부려 졸본을 떠다가 성천 혹은 영변에 놓으며”라는 구절은 조선시대의 사대적 역사가들이 고구려의 첫 도읍인 졸본을 한반도 안의 성천이나 영변에 있었던 것처럼 서술한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고려시대의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고구려의 첫 도읍인 졸본이 현재의 요하 서쪽 의무리산 일대에 있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고려시대의 고구려 첫 도읍에 대한 통설(通說)은 졸본이 현재의 요하 서쪽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조선시대의 사대사관과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에 의해 고구려의 첫 도읍이 현재의 중국 요령성 환인 일대라는 소위 통설(通說)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임찬경, 「고구려 첫 도읍 위치 비정에 관한 검토」, 『선도문화』 20, 2016, 참조).

18) 신채호, 「조선사 정리에 대한 사의」, 『룡과 룡의 대격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216~223쪽.

① 사대사관 및 식민사관과의 역사전쟁

그러나 독립운동역사가들이 독립운동을 위한 우리의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을 때, 그러한 시도들은 출발부터 크나큰 장벽에 부딪혔다. 조선을 침략하여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제는 처음부터 조선의 주체적인 민족사 서술, 독립운동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선인의 역사서술을 근본적으로 철저히 막아내려 했다. 독립운동역사가들이 직면한 당시의 암담한 역사 연구 관련 상황은 박은식의 망명과 관한 다음의 서술에 잘 나타나 있다.

합병과 동시에 여러 언론기관이 문을 닫고, 또 모든 국사책을 압수하니 (박은식) 선생은 “나라는 비록 망하였으나 국혼(國魂)이 소멸되지 않으면 부활(復活)이 가능한데 지금 국혼인 국사책마저 태워 없애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 말과 글자 하나의 자유가 없으니 오로지 해외로 나가서 4천년 문헌을 모아서 편찬하는 것이 우리민족의 국혼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탄하면서 망명을 계획하였다.¹⁹⁾

일제의 조선 강점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이 이 땅에서 우리 역사를 새롭게 쓸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식민지 상황으로 전락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우리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시도하는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독립운동과 함께 역사서술에 나섰다. 이들 독립운동역사가들에 의해 ‘독립운동사학’의 역사서술이 시작된 것이다.

독립운동역사가들이 독립운동과 역사서술을 위해 이 땅을 떠나야했던 이러한 시대상황은 우리역사학의 근대사학으로의 순조로운 발전적 전환을 가로막았다. 이때 조선을 침략하여 영구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제는 “조선에 참다운 조선사

19) 李萬烈 編, 『白巖 朴殷植 연보』, 『朴殷植』, 한길사, 1980, 359쪽.

가 없는” 그런 시대상황을 오히려 악용하였다. 즉 일제는 조선의 주체적 민족사 서술을 강력히 탄압하는 한편, 더 나아가 조선고대사를 왜곡하고 조작하여 일제가 조선민족을 문화적으로 영구히 지배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다. 일제의 조선사 왜곡이 조선 역사를 말살(抹殺)하는 수준이었음을 박은식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본인 요시다 도고(吉田東梧)는 문학박사로서 조선 역사를 없앨 것을 소리높이 주장하였다. 조선 역사가 존재하면 일본이 조선 문화를 받았다는 것이 남아 있게 되어, “조선 역사를 없애 그 흔적까지 없애버리는 것만 같지 않다.”라고 말하였다.²⁰⁾

그러므로 일제는 식민사관(植民史觀)이란 논리로 무장했고, 그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된 조선사의 논리들을 만들어 전파하는 시도에 착수했다. 그러므로 독립운동역사가들은 조선이란 봉건왕조에서 오랫동안 사대사관에 의해 왜곡되어온 기존의 역사서술은 물론 일제가 새로이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해대는 역사서술에 동시에 맞서면서, 조선의 민중을 각성시켜 독립운동으로 내세울 수 있는 민족사를 연구하고 서술하는 작업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다.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적폐 청산 즉 사대사관 및 식민사관 극복 노력이 독립운동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② 독립운동역사가들이 청산하려했던 역사적 적폐의 본질

독립운동역사가들이 청산하려했던 역사적 적폐의 하나는 오랫동안 깊이 뿌리 내린 사대사관이었다. 사대사관의 형성은 고려 중기 이후와 조선시대 지배층이

20) 朴殷植, 『韓國痛史』 1915.

지닌 문화의식 및 사대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 사대사관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가능했다.

해동(海東)은 그 국호가 일정하지 않았다. 조선이라고 일컬은 이가 셋이 있었으니, 단군·기자(箕子)·위만이 바로 그들이다. 박씨·석씨·김씨가 서로 이어 신라라고 일컬었으며, 온조(溫祚)는 앞서 백제라고 일컫고, 진휼(甄萱)은 뒤에 후백제라고 일컬었다. 또 고주몽은 고구려라고 일컫고, 궁예는 후고구려라고 일컬었으며, 왕씨는 궁예를 대신하여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 지역을 몰래 차지하여 중국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 명호를 세우고 서로를 침탈하였으니 비록 호칭한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무슨 취할 게 있겠는가? 단 기자만은 주무왕(周武王)의 명령을 받아 조선후에 봉해졌다. 지금 천자(*필자주:명의 태조를 가리킴)가, “오직 조선이란 칭호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유래가 멀고 오래다.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하늘을 체받아 백성을 다스리면, 후손이 길이 창성하리라.”고 명하였는데, 아마 주무왕(周武王)이 기자에게 명하던 것으로 전하에게 명한 것이리니, 이름이 이미 바르고 말이 이미 순조롭게 된 것이다. 기자는 무왕에게 홍범(洪範)을 설명하고 홍범의 뜻을 부연하여 8조(條)의 교(敎)를 지어서 국중에 실시하니, 정치와 교화가 성하게 행해지고 풍속이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러므로 조선이란 이름이 천하 후세에 이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제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니, 기자의 선정(善政) 또한 당연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²¹⁾

조선의 개국과 통치기반 확립을 주도했던 정도전(鄭道傳, 1342~1398년)이 작성한 위의 「조선경국전」은 그 뒤 조선왕조를 움직이는 통치이데올로기가 되었다.

21) 『三峰集』 第13卷, 「朝鮮經國典」上 國號.

그 통치이데올로기의 핵심에는 기자(箕子)가 있었다. 즉 기자조선을 계승하는 의미의 국호를 지닌 조선은 “기자의 선정(善政) 또한 당연히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도전은 기자가 주무왕(周武王)의 책봉을 받아 고조선의 임금이 되었듯, 이성계가 명(明)의 책봉을 받아 조선의 왕이 된 것을 연결시켜, 조선 건국의 대내외적 정당성을 드러내려 하였다.²²⁾ 물론 그 결과는 사대(事大), 소중화(小中華), 화이관(華夷觀)의 함정에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이었다.

한편 조선 초기부터 사대적 역사인식과 서술이 강화되면서 역사지리에서 나타난 현상은 단군, 기자, 위만, 한사군의 낙랑 등이 모두 현재의 대동강 강변 현재의 북한 평양 일대로 설정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동국여지승람』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들 수 있다.

[평양부] 본래 삼조선과 고구려의 옛 도읍으로 당요(唐堯) 무진년(戊辰年)에 신인(神人)이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왔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워 임금을 삼아 평양에 도읍하고 단군이라 일컬었으니, 이것이 전조선이요, 주무왕(周武王)이 상(商)을 이기고 기자를 여기에 봉하니, 이것이 후조선이요, 전하여 41대 손인 준(準)에 이르러 연인(燕人) 위만이 그 땅을 빼앗아 왕험성(險은 儉이라고도 쓰니, 바로 평양이다)에 도읍하니, 이것이 위만조선이다. 그 손자 우거가 한(漢)의 조명(詔命)을 받들려 하지 않으니 무제가 원봉 2년에 장수를 보내어 토벌하여 사군(四郡)으로 만들고 왕험성으로 낙랑군을 삼았다. 고구려가 장수왕 15년(427)에 국내성으로부터 옮겨와 도읍하였다.²³⁾

그 이후 조선 중후기에 들어서면, 기자(箕子)가 도읍하여 문명을 교화한 평양에서 시작하여, 우리민족 전반 역사의 강역을 한반도에 한정하는 유형의 역사서

22) 유성선, 「栗谷의 華夷論 研究」, 『인문과학연구』 Vol.34, 2012, 380쪽.

23) 『新增東國輿地勝覽』 第51卷, 平安道 平壤府.

술이 지배적 관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약용인데, 그의 『아방강역고』는 우리민족 고대사의 영역이 원래부터 대체로 한반도 지역 안에 있었음을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⁴⁾

이 무렵의 대표적 역사지리서라 할 수 있는 『동사강목』과 『아방강역고』는 조선 시대 중후기의 학자들이 역사를 구성하는 일정한 틀로 작용한 소위 ‘정통론’에 의해 우리 역사를 서술한 것들이다. 이러한 ‘정통론’에서의 조선역사는 반드시 기자(箕子)로부터 시작되어, 기자를 중심에 세워, 그 정통을 계승하는 역사를 서술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사대적이다. 정약용 『아방강역고』의 첫 부분인 ‘조선고(朝鮮考)’도 “조선이란 이름은 평양에서 생겼는데, 실은 기자가 도읍한 본지(本地)를 말한다.”며 기자로부터 우리 역사 서술을 시작한다.²⁵⁾ 『동사강목』은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을 정통으로 세웠는데, 실제로 『동사강목』 본문의 역사 서술은 기자 원년(元年)으로부터 시작한다.²⁶⁾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해야 할 점은, 조선시대 지배계급의 역사편찬 논리인 정통론은 실은 중화(中華) 혹은 소중화(小中華) 혹은 사대(事大)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근본적으로 사대주의(事大主義) 입장에 선 것이란 점이다. 정통론이란 실제로 ‘중화계승의식’의 역사학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²⁷⁾ 기자가 현재의 평양 일대에서 조선이란 나라를 문명국으로 교화시키고, 뒤에 한(漢)의 무제가 그 평양에 낙랑군을 세웠으며, 한사군 중의 현토군은 압록강 중류 일대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고구려가 건국되었으니, 고구려의 첫 도읍은 압록강 중류 이북 일대에 비정된다는 논리가 조선시대에 나타나서 지배적 인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조선시대의 사대사관은 한반도를 침략하여 영구히 지배하려는 일제에

24) 趙誠乙, 『《我邦疆域考》에 나타난 丁若鏞의 歷史認識』, 『奎章閣』 Vol.15, 1992, 91~92쪽.

25) 정약용 지음, 이민수 옮김, 『朝鮮考』, 『我邦疆域考』, 범우사, 1995, 21쪽.

26) 『東史綱目』 第1 上, 己卯年 朝鮮 箕子 元年.

27) 許太榕, 「17세기 말~18세기 초 中華繼承意識의 형성과 正統論의 강화」, 『震檀學報』 Vol.103, 진단학회, 2007, 75쪽.

의해 악용되었다. 일제는 사대사관을 변용하여, 짧은 시간에 식민사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 식민사관의 큰 틀은 조선시대의 사대사관과 다르지 않다.²⁸⁾

예를 들면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는 1892년에 출간한 『조선사』에서 “옛날 은(殷)이 망함에 기자가 도망하여 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 9백년이 지난 준왕(準王) 때 연(燕)의 위만에게 쫓겨나고, 위씨(衛氏)가 대신 통치한 지 대략 80년 만에 한(漢)의 무제에게 멸망되었다. 무제가 그 땅을 나누어 사군(四郡)으로 삼고, 소제(昭帝) 때 이를 합하여 이부(二府)로 하였다. 결국 기자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1천여 년 동안 모두 중국인이 통치한 셈이 된다.”라고 조선고대사를 요약하고 있다.²⁹⁾ 조선시대의 사대사관과 틀은 같지만 대외종속성을 더욱 강조한 이런 관점 즉 식민사관으로 한국 민족사를 재구성하여 확산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에 맞서,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을 동시에 극복하려했던 독립운동역사가들은 고대사 연구를 통해 우리민족사의 첫 출발점에 우선 단군(檀君 혹은 壇君)을 세우려 했다. 단군에서 우리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았고,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로서 우리민족을 각성시켜 독립운동에 나설 동력을 찾으려 했다. 당연히 독립운동역사가들은 고대의 한반도에 기자(箕子)가 와서 조선을 다스렸다는 사대적(事大的) 역사 인식을 극복하려 했다.

서기전108년 무렵 한(漢)의 무제(武帝)가 위만조선(衛滿朝鮮)을 멸망시키고 한반도 일대에 설치했다는 소위 한사군(漢四郡)의 논리 역시 독립운동역사가의 고대사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독립운동역사가들은 조선시대의 사대적인 역사가들이 기자나 한사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므로써 우리민족의 역사적 강역을 한반도 안으로 축소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만주대륙(滿

28) 필자는 조선시대의 사대사관과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한다. 일제가 강점을 전후한 짧은 시간에 식민사관을 형성하여 조선 역사왜곡에 바로 작동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사대사관을 식민사관으로 변용시켰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29)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著, 편무진 · 김현욱 · 이태훈 역, 『조선사』, 인문사, 2013, 51~52쪽.

洲大陸)을 강역으로 하는 우리민족 고대사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다.

또한 독립운동역사가들은 단군에서 부여(扶餘)-고구려-발해를 거쳐 여진(女眞)과 고려로 이어지는 민족사 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따른 대륙국가를 우리역사의 본모습으로 설정하려 애썼다. 만주대륙을 우리민족 본래의 역사 강역으로 보는 이러한 역사 인식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은 만주대륙을 터전으로 독립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었고, 독립운동으로 쟁취할 자주독립국가의 건설 구상에서도 만주대륙을 미래의 우리 강역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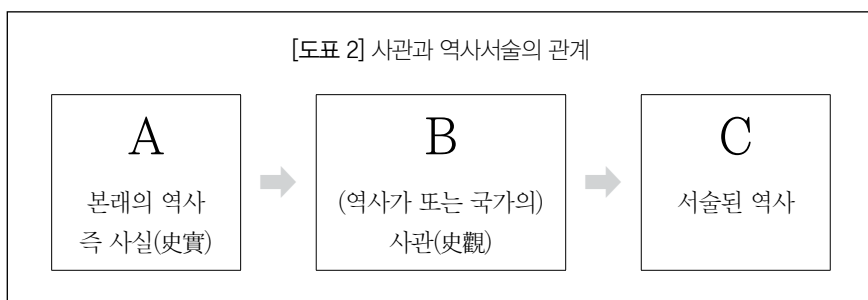
3.2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적폐 청산 시도가 좌절된 원인

해방이 되었지만, 1945년 이후의 한국사회는 청산되어야 할 일제 식민 요소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사회 곳곳을 지배하는 불행한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1945년 8월 이후 미군정은 한반도 남부 장악의 편의를 위해 친일 부역자들을 이용하였고, 1948년에 성립된 이승만 정권 역시 한국사회 지배를 위해 친일 및 반민족세력을 온존시켰기 때문에 부끄러운 식민의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1949년에는 당시 사회를 장악한 친일파들에 의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됨으로써, 친일협력자 척결의 초보적인 기회조차 무산되었다. 뒤이은 1961년 박정희 등의 5·16쿠데타, 1979~1981년의 전두환 등 신군부 권력 장악 등의 사건은 과거청산의 기회를 결정적으로 무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적폐 청산이 좌절된 원인도 이러한 한국의 역사상황에 의한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일제를 대신하여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하게 된 미군정 아래에서 냉전(冷戰)의 대립구조에 편승하여 권력을 장악하게 된 집단은 독립운동가들이 시도했던 역사 적폐 청산을 반대하는 세력이었다. 즉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을 1945년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의 남부에 온존시켜야만 하는 세력이 한국사회

의 집권세력이 된 것이다. 그러한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과거청산의 계기가 총체적으로 무산되어 왔던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지배집단이 된 친일 매국세력은 왜 사대사관은 물론 식민사관을 척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회에 계속 온존시키려 하는가? 그 이유는 그러한 사관을 유지시켜야, 그들의 기득권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위의 [도표 2]에서 보듯, 본래의 역사 즉 사실(史實)은 사관(史觀)을 통해 국민들이 접하는 역사로 서술된다. 그 경우 국가는 그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사관을 통해, 지배집단의 지배를 유리하게 할 내용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사대사관으로써 역사를 서술하여, 그 역사로써 백성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했다. 일제는 강점 이후 한반도에 대한 영구지배를 목적으로 식민사관을 형성하였고, 이 식민사관으로써 한반도 침략과 영구지배의 논리를 확산시켜왔다.

독립운동가들은 조선의 봉건지배세력은 물론 조국을 침략하여 영구히 지배하려는 일제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 독립운동가들은 민중을 각성시키고, 또 독립운동에 나서게 할 방편으로서의 역사 연구 및 서술을 중시하였는데, 당연히 그들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가능케 할 ‘독립운동사관’으로 ‘독립운동사학’의 역사를 서술하여 민중에게 확산시키려 하였다. 그러

나 1945년 ‘미완의 광복’이 되고, 미군정과 그에 뒤이은 이승만 일당에 의해 다시 친일의 매국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집단이 되면서, 그들은 그들의 지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을 한국사회에 온존시킬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지배집단은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의 역사로써 그들의 지배를 합리화하려 했던 것이다. 당연히 독립운동가들이 추구했던 역사 적폐 청산은 한국사회의 지배집단에 의해 철저히 억압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 적폐 청산이 이렇게 좌절되는 사회상황이 지금까지 줄곧 지속됨에 따라, 청산되어야 할 역사 적폐는 소위 ‘통설(通說)’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의 역사학계를 장악해왔으며, 그 적폐를 답습하는 소위 일부 역사학자들은 일종의 학문 권력이 되어 역사 관련 학계와 역사연구 및 역사교육 관련 기관을 장악하였고, 오히려 사회 전반을 적폐의 모순으로써 점점 오염시켜 왔다. 지금 한국사회의 역사학계는 조선시대의 사대사관과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 등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적폐들을 심화시켜, 기형적인 모습으로 우리 역사의 정립(正立)을 방해하는 장애가 되어 있다.

4. 독립운동가 고대사 인식 계승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 청산 과제와 방법

4.1 독립운동가 고대사 인식 계승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 청산 과제

우리 사회, 우리 역사학계에서 독립운동역사가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그에 대한 계승은 아직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립운동역사가의 연구성과 중 고대사 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및 비판적 계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우리 역사학계의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우리 역사학계가 왜 아직도 독립운동역사가의 고대사 연구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및 비판적 계승의 과제를 안고 있게 된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이만열은 독립운동역사가 중의 대표적 인물인 단재 신채호의 사례로서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195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신채호)의 이름은 국사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홍이섭(洪以燮) 등 몇몇 민족주의사학 계열의 학풍을 계승한 학자들이 대중 잡지와 신문의 한 귀퉁이에 그를 소개하고 있을 정도였다. 1936년 그가 사망했을 때만 하더라도 『조광(朝光)』 같은 잡지에서 그에 관한 특집호를 낼 정도로 민족운동가로, 사학자로 알려졌던 그가 해방·독립된 조국에서 거의 백안시(白眼視)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냉전 체제의 고착으로 그 여파(餘波)를 가장 심하게 받았던 1950년대 전후의 우리 사회에서, 민족주의를 금기시(禁忌視)했던 한국의 전반적 분위기에 뿌리를 박고 있던 당시 국사학계의 풍토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³⁰⁾

물론 위의 인용문에서 “그것은, 냉전 체제의 고착으로 그 여파를 가장 심하게 받았던 1950년대 전후의 우리 사회에서, 민족주의를 금기시했던 한국의 전반적 분위기에 뿌리를 박고 있던 당시 국사학계의 풍토”라는 부분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당시 한국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가 ‘민족주의’를 금기시했다기보다는 “과거 일제강점기나 혹은 일제에 의해 온존된 그 이전 시기의 어떠한 역사적 적폐(積弊)에 대해 따지는 것을 금기시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일제강점기 혹은 이미 그 이전 시기부터 당시까지 줄곧 여러 적폐에 기반하여 한국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지배세력에게 역사 적폐는 물론 그 어떤 적폐와 관련된 사소한 부분이라도 청산하자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시대상황이 당시까지도 지속되고 있

30) 李萬烈, 『丹齋 申采浩의 歷史的 研究』, 문학과지성사, 1990, 12~13쪽.

었던 것이다.

일제의 식민사학에 맞서 싸우며, 독립운동과 함께 역사연구를 진행하며, 역사적폐 청산을 외쳤던 신채호가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당시의 상황은 바로 식민사학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현실이었던 것이다. 한국사회의 지배집단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의식과 역사적폐 청산 시도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대 및 식민사관을 온존시키고 또한 그 틀에 갇혀있던 당시 상황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의 상황은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2017년 5월 10일에 성립된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화에 온존해온 각종 적폐 청산에 적극적이다. 한국사회는 2016년 10월부터 적폐 청산을 주장하며 촛불을 들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선 ‘시민혁명세력’의 합성으로 가득했었다. 그리고 한국사화에 누적된 적폐에 의한 총체적 모순을 청산하려는 ‘시민혁명’ 형식인 촛불집회가 2017년 5월의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³¹⁾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의 명분과 함께 청산을 가능하게 할 일정한 동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바로 적폐 청산이 사회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고 또 실행되어질 수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의 역사학계도 역시 적폐 청산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역사학계 자체가 스스로 적폐 청산에 나서지는 않는다. 그 자체가 적폐 덩어리일 수 있는 역사학계가 적폐 청산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우리 역사의 정립(正立)을 희망해왔던 우리사회의 다수 구성원은 지난 시기에 이미 역사적폐를 위해 노력했던 독립운동역사가들의 역사

31) 촛불집회는 항의나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폭력 평화시위의 한 방식이다. 2000년 이후 한국사회에는 여러 목적의 촛불집회가 다수 있었다. 그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퇴진’ 관련 촛불집회는 2016년 10월 29일에 시작되어 2017년 4월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누적인원 1,700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및 퇴진에 이어 구속되었으며, 동시에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세력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적폐 청산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의 기록』 Vol.1-2,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백서팀, 2018, 참조.

인식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에 의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또한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장악한 일제 유사집단(類似集團)에 의해 중단되거나 좌절되었던 역사 적폐 청산 작업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독립운동가 역사 인식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실천 방식이다. 현재의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시도했었지만 좌절되었던 우리 역사학계의 적폐 청산을 다시 시도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4.2 문재인 정부 이후 역사학계 적폐 청산 과제와 방법

역사학계 내부의 연구와 토론만으로는 역사학계의 오래고 고질적인 적폐를 결코 청산할 수 없다. 한국 역사학계의 적폐는 학술적 영역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국 역사학계의 적폐 청산은, 학계 이외 우리사회 각계 구성원 다수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렇도록 한국 역사학계의 적폐는 복잡하고 심각한 지경이다.

역사학계 적폐 청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역사학계 적폐 청산의 주체 형성

: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의 역사학계 적폐 청산에 관한 동의 및 참여 확산과 조직

한국사회는 이미 과거사 청산을 시도했던 몇 단계의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시기에 한국에서는 이승만 정부에 의해 친일 청산이 좌절된 이후 독재의 정치가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 그리고 4.19와 5.18이라는 시민의 고귀한 희생 위에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1997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김대중 정부에

연이어 노무현 정부까지 집권한 10년을 상징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과거사 청산’이다.³²⁾

민주화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화 이후 한국의 ‘과거사 청산’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6월 항쟁을 전후한 시기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가 ‘과거사 청산’의 핵심 문제로 다루어졌다. 제2단계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시기로, 김대중 정부 이후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분단체제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해결로 ‘과거사 청산’의 문제 영역이 확장되었다.³³⁾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전의 과거 청산 작업을 승계하면서 친일진상규명법 등의 제정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식민지배의 유산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사태를 겪은 뒤 2004년 5월 14일 국정에 복귀하면서 ‘과거사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는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광복 60주년이던 2004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보편적 방식에 입각한 포괄적 ‘과거사 청산’을 제안함으로써 과거청산 입법에 힘을 실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진실규명에 나섰다. 이미 각 영역에서 ‘과거사 청산’ 운동을 추진해오던 시민단체 및 피해자단체들도 노 대통령의 포괄적 ‘과거사 청산’ 제안을 환영하며 그에 대응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³⁴⁾ 포괄적인 ‘과거사 청산’ 관련 법안을 준비하였고, 정치권과 연계하여 입법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과거사정리 입법은 여야의 대립으로 계속 지연되었다. 이에 범국민위에 결집한 관련 유족들은 과거청산 입법을 적극 촉구하는 집회와 농성투쟁에 나

32) 김정인, 「역사는 무기다」, 『참여사회』 통권203호, 참여연대, 2013.10, 37쪽.

33) 정근식,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 또는 복합적 과거청산」, 『한국의 과거사 청산과 민주화』, 제주 4·3연구소, 2010, 17쪽.

34) 참여단체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KAL858기사건진상규명시민대책위 등이다.

섰다. 몇 개월 동안 연이어진 농성과 기자회견에도 입법은 지연되다가, 2005년 5월 3일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범국민위는 과거청산과 관련된 각종 법률들과 의문사위에서의 활동경험 등을 종합하여, 가장 실효적인 과거사정리 법안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범국민위원회(안)’을 만들어 열린우리당에 제안하며 입법 활동에 참여했다.³⁵⁾

이러한 지난 시기 ‘과거사 청산’의 입법화 경험은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역사학계 적폐 청산 운동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다. 식민지의 잔재로서 청산이 시급한 역사학계 적폐의 본질을 다수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널리 알리면, 다수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통한 조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사회에는 역사 적폐를 청산하려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의 연대를 통한 청산활동의 확산도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수 국민들의 높은 ‘반일의식’과 ‘식민잔재 청산으로서의 식민사관 청산’ 및 ‘올바른 역사 정립’이라는 주요한 이슈들을 결합시키고, 역사 적폐 청산으로 새로 자리잡을 사관(史觀)이 ‘나라다운 나라’ 및 ‘자주 · 민주 · 통일의 역사 서술’을 가능하게 할 것이란 점을 특별히 부각시킨다면, 동의하는 많은 국민들을 참여시키고 조직화하여 역사 적폐 청산의 동력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준비조직으로서 ‘역사 적폐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약칭 “역적청산범국민위”)’를 설립하여,³⁶⁾ 제반 실무를 진행할 수 있다.

35)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참조.

36) 그 ‘역사 적폐’를 ‘역적’으로 줄여서 부르는 ‘역사 적폐’를 우리사회에서 청산해야할 대상으로 뚜렷이 상징화하는 의미가 있다. ‘역사 적폐’를 ‘역적(歷積) 즉 역사적폐’ 혹은 ‘역적(逆賊)’으로 불러서 청산해야 할 반사회적 개념으로 분명하게 상징화하는 것이다.

② 역사학계 적폐 청산의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역사학계 적폐 청산은 법과 그 법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사회에는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수많은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역사학계 적폐 청산과 관련이 있는 최근의 입법 사례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들 수 있다.

이 특별법은 2004년 3월 22일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고, 2005년 1월 27일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특별법은 일본제국주주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것들 중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와 “일본제국주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가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일제강점기의 역사학계 적폐 대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정작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11월 27일 발표한 조사결과에는 역사 부문에 이능화(李能和)와 최남선(崔南善)을 포함시켰지만, 이병도(李丙巽)와 신석호 등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³⁷⁾ 이런 결과는 2008년 2월에 성립된 이명박 정권의 과거사 청산 반

37)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다 먼저 2009년 11월 9일에 발표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명단에는 이병도와 신석호가 포함되어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모두 ‘진상규명과 정의실현’이란 목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결과가 다른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반민족행위자 1,006명의 명단을 밝혔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4,389명의 친일행위자 명단을 밝혔다. 이런 차이가 생긴 원인은 친일 행위의 유형과 죄의 정도,

대 입장은 물론 그 정권의 친일적 성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³⁸⁾ 그럼으로써 이 특별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48년 9월 22일 일제 강점기 중의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4조에도 “종교, 사회, 문화, 경제 등 각 부문에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와 “개인으로서 악질적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었다. 이 법에 의해 최남선은 1949년 2월 7일 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서울신문』(1949. 2. 9.)에 의하면, 최남선의 죄목은 중추원 참의, 조선사편수회 편수위원, 언론보국회 회원 등을 지냈다는 것이다.³⁹⁾ 그러나 반민특위가 1949년 6월 이후 점차 무력화되면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른 역사학계 적폐 청산은 제대로 시도되지도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지난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역사학계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본 적이 없다. 청산과 관련한 법의 입법도, 청산과 관련된 제도적 기구도 설치해본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 역사학계의 적폐 청산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다수 시민들의 참여로 먼저 역사 적폐 청산 관련 입법화 운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과거사 청산’의 개념을 확장하여,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식민사학과 그 잔재를 현재 우리사회가 시급히 척결해야할 과제로 선정하고, 그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정근식·이병천 엮음, 『5장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책세상, 2012, 262~266쪽).

38) 2007년 12월의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4일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우선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아시아경제』, 2008. 1. 4.). 그 이후 이명박 정권과 집권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뉴라이트 집단에 의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여러 과거사 청산 작업은 동력을 잃고 결국 무산되었다.

39)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나남출판, 2003, 114쪽과 244쪽 및 408~409쪽.

청산을 사회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식민사학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제껏 한국사를 왜곡시켜온 여러 인원 및 기구와 기관을 반드시 정리할 때가 된 것이다.

‘식민사학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한 특별법’에는 청산의 주체 설정과 제도적 장치 마련, 청산 대상의 범위, 청산의 방법, 청산의 결과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③ 역사학계 적폐 청산의 대상

: 기존 식민사학 역사 연구 및 저술 또는 그 관련 인원과 기관에 대한 청산

현재의 한국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 적폐의 대상은 다소 복잡하다. 적폐 청산에서의 적폐의 내용 자체가 원래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지닌 여러 적폐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적폐 청산의 ‘적폐’라는 뜻은 오랫동안 쌓여온 그런 폐단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비단 앞의 정부에서만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성장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런 어떤 사상을 추구하는 사이에 그 그늘 속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폐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⁴⁰⁾

사실 우리사회가 청산해야 할 역사 적폐는 그 실체가 자못 ‘거대하고’ 또 ‘심각’하다. 1945년 해방 이후의 한국사회가 청산해야 할 역사 적폐를 그대로 온존시켰기 때문에, 일제가 심어놓으려 했던 식민사학은 해방 이후에 오히려 더 확산

40)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345>)에 게재된 <문재인 대통령 한상대회 참석자 차담회 인사말>(2017. 10. 28) 참조.

되었다. 분단에 이은 동족 상잔(相殘)의 전쟁도 식민사학의 적폐가 한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널리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과정에 역사 적폐는 확대되었고, 나름대로 견고하게 조직화되어 있으며, 소위 역사학계의 소위 ‘통설’이란 학술 권력과 연구 기관 및 기구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역사 적폐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속성 때문에 우리사회의 역사 적폐는 청산 대상으로서 뚜렷이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다수 시민의 참여와 동의로 ‘식민사학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그 청산 대상으로서의 역사 적폐의 설정은 크게 어렵지 않다. 역사 적폐 청산의 대상은 크게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청산은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제도적 청산은 과거의 적폐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법이나 제도 등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⁴¹⁾ 청산의 중심은 기존에 서술된 식민사학에 의한 한국사 연구 및 서술 전반은 물론, 그 식민사학을 아직도 의도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연구자들, 그 연구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식민사학의 논리를 유지 및 재생산하고 있는 각종 역사 관련 연구기관 및 기구가 될 것이다.

④ 사대사관 및 식민사관 극복을 통한 사회변혁과 통일조국의 추구

문재인 정부 이후 다수 시민의 참여에 의해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추진될 한국사회 역사 적폐 청산은, 이미 위에서 밝혔듯, 단순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근본적 사회변혁과 분단극복 및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역사 적폐는 왜곡된 지

41) 김동준, 「한국 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 자료집 '청산하지 못한 역사, 어떻게 할 것인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2005, 12쪽.

배권을 유지하며 또 분단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기득권층에 의해 형성 및 유지되는데, 역사 적폐 청산은 이들 기득권층의 형성 및 유지 기반을 와해시킴으로써 결국 사회변혁과 통일을 앞당기는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고대사 관련 논쟁의 중심에 있는 한사군 중의 낙랑 위치 문제를 살펴보자. 낙랑의 위치 문제는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한사군 중의 낙랑 문제는, 실은 현재의 평양이 고대의 기자조선(箕子朝鮮)이나 위만조선(衛滿朝鮮)이 있던 지역이며, 또 서기전108년에 한무제(漢武帝)가 이곳을 정벌하여 한사군 중의 낙랑군을 설치했다는 식의 역사왜곡에 의해 고정(固定)된 것이다. 우선 조선시대의 지배계급들은 사대사관에 의해 이러한 낙랑 관련 역사왜곡을 스스로 조작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정통(正統)으로 여기는 기자(箕子)의 조선을 평양에 꼭 위치시켜야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기자가 다스리는 주(周)의 속국으로서 문명화되었으며, 이로서 중화(中華)에 대응하는 소중화(小中華)로서의 조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했다. 사대주의(事大主義)가 예(禮)의 기본이던 조선의 다수 지배계급에게 사대(事大) 및 사대사관(事大史觀)은 조금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와 비교하여 일제는 조선 역사의 식민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재의 평양에 낙랑을 반드시 위치시켜야 했다. 이때 일제는 조선시대의 사대사관을 변용(變容)시켜, 짧은 시간에 식민사관을 형성했다. 그러므로 일제 식민사관의 큰 틀은 조선시대의 사대사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⁴²⁾ 예를 들면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는 1892년에 출간한 『조선사』에서 “옛날 은(殷)이 망함에 기자가 도망하여 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 9백년이 지난 준왕(準王) 때 연(燕)의 위만에게 쫓겨나고, 위씨(衛氏)가 대신 통치한 지 대략 80년 만에 한(漢)의 무제에게 멸망되었다. 무제가 그 땅을 나누어 사군(四郡)으로 삼고, 소제(昭帝) 때 이를 합하여 이부(二

42) 필자는 조선시대의 사대사관과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한다. 일제가 강점을 전후한 짧은 시간에 식민사관을 형성하여 조선 역사왜곡에 바로 작동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사대사관을 식민사관으로 변용시켰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府)로 하였다. 결국 기자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1천여 년 동안 모두 중국인이 통치한 셈이 된다.”라고 조선고대사의 원천적 식민성을 강조하고 있다.⁴³⁾ 결국 현재의 평양에 한(漢)의 무제(武帝)가 설치한 낙랑군이 있었다는 한사군 인식은, 일제에 의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사대사관으로, 일제는 식민사관으로 한사군 중의 낙랑 논리를 강화한 것이다.

문제는 21세기로 넘어선 이 시점에도 역시 조선시대의 사대사관과 일제의 식민사관으로 왜곡시킨 한사군 중의 낙랑 위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논리로 ‘고대사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다.

조선시대의 봉건적 지배계급이 사대사관으로 낙랑의 위치를 현재의 평양에 위치시키려 했던 이유, 그 뒤에 일제가 식민사관으로 역시 낙랑의 위치를 평양에 위치시키려 했던 이유, 1945년 이후 일제 식민사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이 역시 서기전108년에 처음 설치된 낙랑이 현재의 평양에 위치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 당대(當代) 지배계급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연관이 있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낙랑의 위치를 현재의 평양에 위치시키려는 세력들의 역사관과 목적 등을 [도표]로 작성하면, 아래의 [도표 3]과 같다.

43)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著, 편무진 · 김현욱 · 이태훈 역, 『조선사』, 인문사, 2013, 51~52쪽.

[도표 3]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낙랑 평양설 주장 세력의 사관과 목적 등

시기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현재까지
관점	기자조선=평양 위만조선=평양 한사군 낙랑=평양	기자조선=평양 위만조선=평양 한사군 낙랑=평양	위만조선=평양 한사군 낙랑=평양
사관	사대사관	식민사관	식민사관
목적	사대주의 유지 소중화 논리 형성 봉건 지배 유지	한국사의 식민성 강조 식민지 지배 유지	친일·반민족·반민주 정권 유지 식민사학 통설(학문 권력) 유지
지배 계급	사대적 유학집단	일제 친일매국집단	과거 기득권 유지 세력 (실체 복잡)
극복 시도		독립운동사학	‘과거사 청산’ 진보적 국학운동(역사 부문)

위의 [도표 3]에서 보듯, 각 시기별로 서기전108년 설치된 낙랑의 위치를 평양에 위치시키는 당시의 지배계급의 사관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그런 역사인식으로서 당시 지배계급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시민사회가 나서서, ‘식민사학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낙랑’의 첫 위치 문제 등을 주체적(主體的) 역사관점으로 바로잡아 나간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낙랑의 위치’를 바로잡는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역사 왜곡의 그늘 아래 기생(寄生)했던 우리사회의 여러 모순이 함께 드러나면서, 여러 부문과 연관된 적폐 청산의 시도가 연이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 이후 우리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역사 적폐 청산 작업은 단순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근본적 사회변혁과 분단극복 및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 문재인 정부의 역사 적폐 청산을 위한 제언

문재인 정부에게도 역사 적폐 청산이란 물론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더 미루어 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또한 역사 적폐 청산이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성립시킨 동력으로서의 ‘촛불’을 들었던 우리 시민사회의 진정한 요구 또한 역사 적폐 청산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가능하도록 민주적 토대를 마련해준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을 계승하는 차원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역사 적폐 청산에 무엇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역사 적폐 청산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역사 적폐 청산이 가능하려면, 한국사회의 시민사회는 모든 역량을 모아 역사 적폐 청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적극 지지해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사회는 노무현 정부가 ‘과거사 청산’을 통한 우리사회의 변혁을 시도했을 때, 우리 시민사회의 온 힘을 모아 지지하지 못함으로써 그 ‘과거사 청산’이 완성되지 못함은 물론 노무현이란 ‘사람다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던 불행한 역사를 공유(共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며, 그 의미있는 ‘청산’이 왜 불가능했는지, 그리고 당시 우리 시민사회는 왜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에 온 힘을 모아주지 못했는지에 대해 당시 신문의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사람들이 왜 이토록 노무현을 증오하는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가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천문학적 인 돈을 해먹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김영삼처럼 나라 살림을 거덜낸 것도 아니다. ...단순히 실책만으로 정도를 넘어서는 증오를 설명하기는 무언가 부족하다. 노대통령에 대한 비난 이상의 증오, 살기마져 느껴지는 분노는 그가

우리 역사의 잊고 싶은 그 역린(逆鱗)을 끊임없이 들추면서 우리를 괴롭혀 온 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보기 싫은 진실, 이른바 ‘불편한 진실’을 보도록 끊임없이 들추어 왔다. 끊임없이 들추면서 우리를 괴롭혀 온 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친일 청산의 문제이고, 그것에 기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배계층의 정통성의 문제이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의식의 문제이다. 그것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이념 문제가 되고 남북 문제가 되어 우리의 발목을 꼭꼭달짝 못하도록 만들어 왔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쉬쉬하는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노무현 집권으로 그 카르텔에 금이 가면서 묵하 대한민국의 지배계층의 기원과 본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지배계층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감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탄핵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때부터 노무현은 고립되었고, 여당조차도 더 이상 아군이 아니었다.

정동영의 실용주의는 바로 그 이탈의 신호탄이었다. 사실 여당이라 해도 아군인 적은 했지만 아군인 적은 없었다. 그들도 엄연한 지배계층이었고 침묵의 카르텔의 일원이었다. 대선에 패배하고 난 뒤 모두가 노무현 탓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태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정·언·관의 융단 폭격 속에 민심의 이반도 함께 일어났다. 왕조 시대라면 이미 탄핵으로 반정(反正)이 완성된 것이다.

...어두운 진실을 밝은 햇빛 속에 드러내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무현 정부 5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⁴⁴⁾

문재인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 시도를 계승하는 혹은 그를 뛰어넘는 역사 적폐 청산 시도는 우리 시민사회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44) 김미선, 「불편한 진실과 노무현」, 『국제신문』 칼럼, 2007년 12월 28일.

그리고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을 방해했던 소위 ‘침묵의 카르텔’ 조차도 과감하게 청산해낼 의지를 시민사회가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왜곡된 역사의 그늘 아래 온존할 수 있는 ‘침묵의 카르텔’. 그것이 서서히 문재인 정부를 또한 잠식해가지 못하도록,⁴⁵⁾ **오히려 문재인 정부 스스로 서둘러 앞장서서 먼저 ‘식민사학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감히 제언(提言)한다.**

위의 본고에서 필자는 독립운동가들이 지녔던 고대사 인식의 실체를 검토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극복하려했던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이 현재까지 온존하는 우리의 역사상황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 중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으로서의 역사 적폐 청산이 우리시대의 과제라는 인식 아래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사회 역사 적폐 청산 과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다. 필자의 서술 중 부족한 점은 이후의 연구를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45) 역사 적폐 청산이란 시대적 과제를 가로막으려는 ‘침묵의 카르텔’ 즉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항상 우리사회 다수의 적폐 청산 의지를 좌절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다. 우리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항상 분명하다. 문제는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제압하는 것이냐이다. 이재명,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국회토론회』, 2017.1.3, 12쪽.

참고문헌

『三峰集』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史綱目』

申采浩, 『帝國主義와 民族主義』, 『大韓每日申報』, 1909. 5. 28.

申采浩, 『二十世紀 新國民』, 『大韓每日申報』, 1910.2.22.~3.3.

朴殷植, 『韓國痛史』, 1915.

申采浩, 『二. 史의 三大元素와 朝鮮舊史의 缺點』, 『朝鮮日報』, 1931. 6. 11.

신채호, 『조선사 정리에 대한 사의』, 『룡과 룡의 대격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강만길, 『〈民族史學〉論의 反省』, 『창작과비평』 11(1), 1976.

李萬烈 編, 『白巖 朴殷植 연보』, 『朴殷植』, 한길사, 1980.

李萬烈, 『丹齋 申采浩의 歷史的 研究』, 문학과지성사, 1990.

李萬烈, 『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 文學과知性社, 1981.

車河淳, 『史觀이란 무엇인가』, 청람, 1982.

呂博東, 『日本近代天皇制의 統治構造와 지배이데올로기』, 『일본학지』 10,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1991.

趙誠乙, 『《我邦疆域考》에 나타난 丁若鏞의 歷史認識』, 『奎章閣』 15, 1992.

조동걸, 『민족사학의 분류와 성격』,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3.

서중석, 『민족주의사학의 논쟁』, 『진단학보』 Vol.80, 1995.

정약용, 이민수 옮김, 『朝鮮考』, 『我邦疆域考』, 범우사, 1995.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나남출판, 2003.

김동춘, 『한국 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 자료집 '청산하지 못한 역사, 어떻게 할 것인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2005.

許太榕, 『17세기 말~18세기 초 中華繼承意識의 형성과 正統論의 강화』, 『震檀學報』 Vol.103, 2007.

김미선, 『불편한 진실과 노무현』, 『국제신문』 칼럼, 2007년 12월 28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 정근식,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 또는 복합적 과거청산」, 『한국의 과거사 청산과 민주화』, 제주4·3연구소, 2010.
- 김용섭,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 - 해방세대 학자의 역사연구 역사강의』, 지식산업사, 2011.
- 유성선, 「栗谷의 華夷論 研究」, 『인문과학연구』 34, 인문과학연구소, 2012.
- 정근식·이병천 엮음, 「5장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 『식민지 유산, 국가형성, 한국 민주주의』, 책세상, 2012.
- 김정인, 「역사는 무기다」, 『참여사회』 통권203호, 참여연대, 2013.10.
-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著, 편무진·김현욱·이태훈 역, 『조선사』, 인문사, 2013.
- 임찬경, 「고구려 첫 도읍 위치 비정에 관한 검토」, 『선도문화』 Vol.20, 선도문화연구원, 2016.
- 이재명,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국회토론회』, 2017.1.3.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의 기록』 Vol.1-2,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백서팀, 2018.

[Abstract]

The Perception of Ancient History of Independence activist

: The Tasks and Methods to liquidate the cumulative evils of
Korean historical academia through the Succession

Im, Chan-kyoung

In this paper, first, I analyzed the character of History that independent activists have studied and written. The purpose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research and writing of History is entirely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refore, I named the History of independence activists as 'Independent movement History(History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particular.

In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I reviewed the efforts of the independence activist to liquidate the cumulative evils in History. Independent activists tried to liquidate both the historical view subordinated to Chineseism and the historical view subordinated to colonialism as the cumulative evils in History, at the same time tried to establish our right history. But the independence activists' attempt to liquidate the cumulative evils in History was thoroughly frustrated. In this paper, I also looked at the cause of the frustration.

The third part of this paper is the discussion about the succession of the recognition of the ancient history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What we can say for sure is that there is a part of the history awareness of the independence activist that we must inherit. In this paper, i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succession to be mentioned, and it refers to the liquidation of the cumulative evils in History. Finally, in Moon Jae-in Government Established in 2017, briefly explained how to try to liquidate the cumulative evils of Korean historical

academia, reviewed the tasks and methods of liquidating the cumulative evils briefly.

Key words : Independence activist, Ancient history, ‘Independent movement History(History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Nationalistic History, Cumulative evils in History, Liquidation of Past History, Korean historical academia

『역사와 융합』 제 2집(2018. 6)

숙신 · 산융 · 동호는 (고)조선의 이칭(異稱)

황 순 중(고대사연구가)

1. 머리말
2. 숙신에 대한 고찰
3. 산융에 대한 여러 문제
4. 동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
5. 맺음말

【국문초록】

현재 중국의 만주 전역과 내몽골, 하북성 일대에서는 비파형 동검 같은 고조선의 유물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고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대신 산융(山戎), 또는 동호(東胡)라는 용어 등을 사용한다. 이를 고조선의 유물로 인정하면 동북 3성과 내몽골, 하북성 일대까지 고조선의 강역이 되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이다. 숙신 · 산융 · 동호에 대한 중국의 논리는 대략 숙신은 만주족(여진족)의 선조이며, 산융과 동호는 선비족의 전신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동북공정 등의 각종 공정을 통해 이들을 자국사의 범주에 넣어 분류하고 있다. 반면 한국 고대사학계는 숙신 · 산융 · 동호 등을 외국사로 보아 한국사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식민사학의 계통을 그대로 잇고 있는 한국 고대사학계는

숙신 · 산융 · 동호를 고조선 · 부여 · 예맥 등 우리 민족과는 다른 별 개의 민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일제강점기 때 민족사학자와 해방 후 북한의 리지린 같은 연구자들과 국내의 일부 연구자들은 숙신이나 동호를 고조선과 같은 실체로 보기도 했다.

실제로 『사기』, 『산해경』, 『일주서(逸周書)』 등 비롯한 중국의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숙신 · 산융 · 동호는 고조선과 같은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사기』를 비롯한 중국의 고대 문헌과 일부 선행 논거를 토대로 숙신 및 산융 · 동호가 고조선과 같은 실체였음을 밝혀서 한국고대사 연구의 인식과 지평을 대폭 넓히고자 한다.

[주제어] 숙신, 산융, 동호, 고조선, 요동, 『사기』

1. 머리말

한사군의 위치를 한반도 북부로 비정함으로써 고조선의 강역을 축소하고, 여차하면 북한 강역까지 넘보고 있는 중국의 침략주의 사관, 즉 동북공정에는 모순이 있었다. 한반도 북부에서만 출토되어야 할 고조선의 유물이 만주 전역과 내몽골, 하북성 일대에서도 출토된다는 점이였다. 한사군의 위치가 한반도 북부라는 동북공정의 논리는 조선총독부의 침략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지만, 역으로 (고)조선의 유물이 출토되는 지역을 고조선의 강역으로 인정하게 되면 만주는 물론 하북성 일대까지 한국 고대사의 강역이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고조선의 강역이라고 설명해야 할 지역을 산융(山戎)이나 동호(東胡)의 강역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냈다.

일제 식민사학에서도 이런 이론적 편린이 엿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논리를 본격화한 것은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이었다. 문제는 한국 사학계도 이런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현재의 하북성, 내몽골, 만주지역이 과연 동북공정과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처럼 산융과 동호의 강역이었는지를 살펴보려는 의도로 썼으며, 이들의 주장이 과연 사료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숙신·산융·동호에 대한 그간의 논리는 대략 숙신은 만주족(여진족)의 선조이며, 산융과 동호는 선비족의 전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중국은 이들을 자국사의 범주에 넣어 분류하는 반면 한국사학계는 외국사로 보아 한국사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민사학의 계통을 그대로 잇고 있는 한국 고대사학계는 숙신·산융·동호를 고조선·부여·예맥 등 우리 민족과는 다른 별 개의 민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며, 다만 이병도 이후 노태돈, 송호정 등 후학들의 일부 저작에서 단편적으로 논한 것이 거의 전부인 셈이다. 이들의 논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사기』를 비롯한 중국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숙신·산융·동호는 과연 고조선과 다른 민족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간 일제강점기 때의 민족사학자와 해방 후 북한의 연구자 및 국내의 일부 연구자들이 숙신이나 동호를 고조선과 같은 실체로 보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연구사적 검토는 생략하고 본문에서 필요에 따라 다루었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일부 선행 논거를 토대로 숙신 및 산융·동호가 고조선과 같은 실체였음을 밝혀서 한국고대사 연구의 인식과 지평을 대폭 넓히고자 한다.

2. 숙신에 대한 고찰

2.1 숙신에 대한 그간의 연구 동향

그간 숙신은 한국사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다. 진수(陳壽)의 『삼국지』에서 「오환선비동이전」으로 동이를 오환 · 선비와 같이 서술했음에도 각각 분리해서 인식해 왔다. 숙신은 중국의 후한시대 이후 읍루 · 물길 · 말갈 · 여진 등으로 기록되었던 민족의 선조라는 것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근거로 이용한 것이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 ‘읍루(挹婁)’ 조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었다.

읍루는 부여에서 동북쪽으로 천여 리 밖에 있는데 큰 바다에 닿아 있으며, 남쪽은 북옥저와 접하였고……옛 숙신씨의 나라이다.¹⁾

‘옛 숙신씨의 나라이다(古之肅慎氏之國也)’라는 이 구절을 근거 삼아 숙신을 읍루의 전신이자 물길 · 말갈 · 여진 등의 전신으로 여겨서 한국사의 영역에서 배제해 왔다. 읍루는 지금의 흑룡강성 동부 일대에 있던 나라로 보고 있는데 진수가 읍루의 옛 나라라고 한 숙신은 정작 『삼국지』보다 먼저 출간된 『사기』나 『한서』 등에는 산동성이나 그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학자 중에서도 부사년(傅斯年) · 하광악(何光岳) ·金玉불(金毓黻) 등은 숙신이 산동이나 요령성 지역에 있다가 길림성으로 옮겼다고 보기도 했다.²⁾ 이런 숙신동천설(東遷說)은 전국시대 이후 연(燕) · 진(秦)의 영토확장에 따라 숙신이 동북쪽으로 밀려나 옮기게 되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국내 학자 임찬경은 숙신동천설의 근

1) 『三國志』 「東夷傳」 挹婁 挹婁在夫餘東北千餘里，濱大海，南與北沃沮接……古之肅慎氏之國也。

2) 임찬경, 「중국 동북사의 숙신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학연구』 제14집, 국학연구소, 2011, 122 쪽. 이들의 견해에 대하여는 傅斯年의 『東北史綱』, 何光岳의 『東夷源流史』 및 金毓黻의 『東北通史』 참조.

거가 막연하여 수궁하기 어렵다면서 『사기』의 「사마상여열전」이나 「공자세가」·「5제본기」등의 기록을 분석하면 숙신이 전한(前漢) 때까지도 산둥성이나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³⁾

한편 북한의 리지린은 『고조선 연구』에서 고대의 숙신이 읍루의 선조라는 설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고대 문헌에 보이는 숙신은 곧 고조선을 말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⁴⁾ 그는 『상서』·『사기』·『국어』·『관자』·『일주서』·『산해경』·『춘추좌전』·『회남자』 등에서 숙신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숙신의 중족적 실체를 분석했다. 그는 숙신과 조선이 항상 같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서기전 12세기 전후에는 숙신이 고조선족의 명칭이었다고 결론 내렸다.⁵⁾ 정약용도 『여유당(與猶堂) 전서』 「지리책(地理策)」에서 숙신을 조선으로 보았으며,⁶⁾ 신채호와 정인보도 『만류원류고』에서 주신(珠申)의 음이 숙신으로 되었다면서 숙신을 조선으로 보았다. 이처럼 숙신을 고조선과 동일 세력으로 본 학자들은 예부터 적지 않았다.

한편 교원대학교 교수 송호정은 숙신을 조선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일제시대 신채호나 북한 학계의 주장처럼 숙신이 조선과 발음 및 명칭상 유사하다는 점만을 가지고 고조선과 동일한 실체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 할 수 있다.⁷⁾

송호정은 주장은 많지만 늘 근거는 부족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다. 리지린의

3) 임찬경, 같은글, 114~120쪽.

4) 리지린, 『고조선 연구』, (서울)학우서방, 1964, 201~213쪽.

5) 위의 책, 211~212쪽.

6) 朝鮮之號, 遠自檀君肅愼之名載在周乘.

7) 송호정, 「고조선 국가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18쪽.

경우만 봐도 수많은 자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임에도, 송호정은 구체적인 반박 논리도 없이 ‘잘못된 인식’이라고 결론 짓는 것이다. 그럼 송호정은 숙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기원전 8세기 말~7세기 초 춘추시대가 기록되어 있는 문헌을 뒤져 보아도, 중국 동북부에서 활약한 종족으로 산융 · 영지 · 고죽 · 도하 등이 등장할 뿐 숙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원전 8~7세기를 전후한 춘추시대 이후에는 길림성 북쪽 일대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⁸⁾

송호정은 서기전 8~7세기 이후 숙신이 중국 동북 지방에 있었다고 나타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길림성 북부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그가 가장 기초적인 중국 고대 사료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이다. 숙신은 송호정의 희망 사항처럼 서기전 8~7세기 이후에는 중국 고대사료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 때인 서기전 2세기에도 산동에 있었다고 『사기』 「사마상여열전」에 나와 있다.

또 제(濟)나라 동쪽에는 큰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낭야(瑯邪)가 있습니다. 성산(成山)에서 유람하고 지부(之罘)에서 활을 쏘며, 발해에 배를 띄우고 맹제(孟諸)에서 노는데, 동북쪽으로 비스듬히 숙신과 이웃하고 있으며, 오른쪽은 탕곡(湯谷)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지금 제(濟)나라는 동쪽의 제후가 되었는데도 밖으로는 사사로이 숙신과 통하고 있으며….⁹⁾

이는 사마상여가 쓴 「자허부(子虛賦)」의 내용을 사마천이 『사기』에 실은 것이

8)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49쪽.

9) 『史記』 「司馬相如列傳」 且齊東諸巨海, 南有瑯邪, 觀乎成山, 射乎之罘, 浮勃解, 遊孟諸, 邪與肅慎爲鄰, 右以湯谷爲界……今齊列爲東藩, 而外私肅慎……

다. 「자허부」는 한나라 경제(景帝:재위 서기전 157~서기전 141) 때 완성된 서기전 2세기 때 작품이다. 다른 문집도 아닌 『사기』에 서기전 2세기 때 지금의 산둥반도 서쪽에 있던 제나라가 동북쪽으로 숙신과 이웃하고 있다고 나오는 것을 송호정은 보지 못했다는 뜻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등장하는 낭야·성산·지부·탕곡 등은 모두 산둥에 있는 지명인데, 제나라는 숙신과 탕곡에서 경계하고 있다고 했으니 숙신 역시 산둥이나 그 북쪽에 있었다는 뜻이다. 필자가 ‘비스듬히’라고 번역한 사(邪)자는 사(斜)와 통하는 글자로서 『사기정의』는 사(邪)자에 대해, “동북쪽으로 접하고 있는 것을 이른다.”고 주석하고 있다.¹⁰⁾ 그래서 북경대 대리총장과 국립대만대 초대총장을 역임했던 부사년(傅斯年)은 「이하동서설(夷夏東西說:1935)」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사마상여의 <자허부>에, “제나라는 비스듬히 숙신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한 것에 의하면, 옛 숙신은 당연히 한나라 때의 조선이지 후세의 읍루와는 관계가 없다.¹¹⁾

이처럼 서기전 2세기 때 제나라와 인접했던 옛 숙신은 한나라 때의 (고)조선이라는 이야기다. 부사년은 『동북사강(東北史綱:1932)』에서는 앞에서 임찬경이 지적한대로 연나라 부근에서 길림성으로 옮겼다고 보았다가¹²⁾ 그 견해를 수정했다. 이처럼 자신의 견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수정하는 것이 학자다운 자세인데 국내의 식민사학자들은 아무리 사실에 어긋나도 이른바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처럼 새로운 변형논리를 만들어 생명연장을 도모할 뿐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10) 『史記正義』 「司馬相如列傳」 邪謂接於東北.

11) 傅斯年, 「夷夏東西說」 據馬相如子虛賦. 齊斜與肅慎爲界, 是古肅慎當即漢之朝鮮, 與後世之挹婁無涉.

12) 傅斯年, 『東北史綱』, (상해)상해고적출판사, 17쪽.

2.2 숙신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숙신의 위치를 알기 위해 『사마상여열전』에서 제(齊)와 숙신의 경계라고 한 탕곡의 위치를 찾아보자. 탕곡은 양곡(陽谷)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역사의 초기인 제요(帝堯) 때부터 등장하는 지명으로서 공자도 『상서(尙書)』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희중(羲仲)에게 따로 명하여 우이(嵎夷)에 살게 하니 바로 양곡(陽谷)이란 곳인데 해가 뜨는 것을 공손히 맞이하여 봄농사를 짓게 했다.¹³⁾

『사기』 「5제본기」 ‘제요’ 조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 다만 우이를 육이(郁夷)라고 기록한 것이 다르다. 우이를 육이라고도 불렀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사기집해』는 “동쪽 바깥의 땅을 우이라고 칭한다. 해는 양곡에서 뜬다. 희중은 동쪽을 다스리는 관직이다.”¹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기정의』에서는 “상고해 보니 우이는 청주(靑州)이다. 요가 희중에게 명해 동쪽 청주 우이의 땅을 다스리게 했는데, 해가 나오는 곳을 양명지곡(陽明之谷)이라고 이름 지었다.”¹⁵⁾ 고 주석하고 있다. 청주는 산둥반도에 있는 지명이며 양곡(=탕곡) 역시 지금의 산둥반도에 있던 지역이었다. 우이는 중국 동쪽의 구이(九夷)의 하나로 동이족의 한 종류이다.

탕곡은 『산해경』에도 보이는데 「해외동경」과 「대황동경」에 “탕곡에 부상국이 있다(湯谷上有扶桑)”고 하였는데, 그 위치는 「해외동경」·「대황동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역시 산둥반도임을 추론할 수 있다. 『설문(說文)』은 “상(桑)은 신목(神

13) 『尙書』 「堯典」 分命羲仲宅嵎夷曰陽谷, 寅賓出日, 平秩東作.

14) 『史記集解』 「五帝本紀」 東表之地稱嵎夷, 日出於陽谷. 羲仲, 治東方之官.

15) 『史記正義』 「五帝本紀」 安, 嵎夷靑州也. 堯命羲仲, 理東方靑州嵎夷之地, 日所出處, 名曰陽明之谷.

木)으로서 해가 뜨는 곳이다”¹⁶⁾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고대 중국인들은 산동을 해가 뜨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탕국의 부상국에 대하여 사천(四川)대학 교수로서 중국 고대사와 경학(經學)에 저명했던 몽문통(蒙文通:1894~1968)은 삼한(三韓), 즉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부상 땅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고구려의 관직에 대로(大廬)가 있는 점과 또 혼인풍습에 데릴사위가 있는 점이 부상과 같으면서 그 곳을 옛 구이(九夷)의 땅이라고 설명하였다.¹⁷⁾ 이처럼 탕국과 경계했던 숙신은 서기 전 2세기에도 산동반도에 있었다.

그럼 숙신이란 이름과 조선이란 이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송호정은 박사학위논문(1999)에서 숙신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숙신은 기원전 8~7세기(춘추시대) 이후에는 이미 중국 가까이에 있지 않았다. 돌화살촉에 맞아 죽은 새매를 보고 고전에 통한 공자만이 그 화살이 중국 가까이에 있던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실은 숙신이 주(周)의 중심인 북경(北京)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⁸⁾

송호정은 숙신이 주(周)의 중심인 북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 즉 지금의 길림성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주나라의 중심이 낙양(洛陽)이 아니라 북경이라는 희한한 주장인데, 주나라의 중심도 모르고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쓴 송호정이나 이를 통과시킨 노태돈이나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그저 머릿속에 고조선을 부인하고 그 강역을 축소할 생각만 가득 차 있으니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간과하는 것이다. 또한 새매는 북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하남성에 있던 진(陳)나라 궁정에 있었다는 사실이 다름 아닌 송호정이 인용한 공자에 대

16) 『說文』 桑, 神木, 日所出也

17) 蒙文通, 『古史甄微』, 『蒙文通文集』 第五卷, 59쪽.

18) 송호정, 앞의 글, 18쪽.

한 기록에서 나온다. 『사기』 「공자세가」를 보자.

진(陳)나라 궁정에 새매가 와서 죽었는데 호시(檣矢)가 꽂혀 있었다. 돌화살촉인데 화살은 1척 8촌이었다. 진나라 민공이 사자를 보내어 공자에게 묻자, 답하기를 “매는 멀리서 왔으며 이것은 숙신의 화살입니다.……”라고 답했다.¹⁹⁾

이 사례는 『태평어람』을 비롯해서 중국의 여러 문헌에 실려 있는데, 공자가 매가 멀리서 왔다고 말한 것은 산둥에서 하남의 진나라까지 왔다는 뜻이다. 화살을 맞은 매가 산둥에서 이웃인 하남까지 온 것도 대단히 먼 것이다. 그런데 송호정은 길림성에서 수천 리 떨어진 북경까지 왔다면서 북경을 주나라의 중심이라고 횡설수설하고 있으니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자체가 인내를 요구한다. 북경이든 하남이든 길림성에서 화살 맞은 매가 날아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

숙신은 서기전 23세기 경의 『죽서기년(竹書紀年)』에 처음 문헌에 등장하는데, 이때는 식신(息慎)으로 기록하고 있다. 식신은 숙신과 같은 용어인데, “우순(虞舜) 25년, 식신(息慎)씨가 내조하여 화살을 바쳤다.”는 기록이다. 『사기』 「5제본기」 「제순(帝舜)」 조에도 식신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남쪽으로는 교지(交趾) · 북발을, 서쪽으로는 융(戎) · 석지(析枝) · 거유(渠庾) · 저(氐) · 강(羌)을, 북쪽으로는 산융(山戎) · 발(發) · 식신(息慎)을, 동쪽으로는 장(長) · 조이(鳥夷)를 위무하여……²⁰⁾

제순 때 중국의 북쪽으로 산융 · 발과 인접해서 식신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

19) 史記, 「孔子世家」 有隼集于陳廷而死, 檣矢貫之, 石磬, 矢長尺有咫, 陳棼公使使問仲尼. 仲尼曰, 隼來遠矣, 此肅慎之矢也.

20) 『史記』 「五帝本紀」 南無交趾 · 北撝, 西戎 · 析枝 · 渠庾 · 氐 · 羌, 北山戎 · 發 · 息慎, 東長 · 鳥夷……

해 『사기집해』에는 “정현이 말하기를 ‘식신은 또는 숙신이라고 하는데 동북이(東北夷)다.’라고 말했다.”²¹⁾고 했다. 순임금의 도읍지 포판(蒲坂)은 현재 산서성 최남단으로서 하남성에 인접한 운성(運城)시 산하의 영제(永濟)시라고 비정하고 있으니 그 동북쪽에 있던 숙신이 지금의 길림성을 말한 것이 아님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지금의 산둥지역이나 그 서쪽·북쪽 등지를 말한 것이다. 제순 때보다 약 1,300년 뒤인 주(周)나라 초기에도 『춘추좌전』은 숙신이 중국의 북쪽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경왕(周敬王)이 말하기를, “무왕이 은(殷)나라를 이기고 난 뒤……이르기를, ‘포고와 상엄은 나의 동쪽 땅이며……숙신·연·박(亳)은 나의 북쪽 땅이다.’”라고 했다.²²⁾

낙양이 중심이었던 주나라 북쪽에 숙신이 연·박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 주나라 북쪽이 길림성이 아니라는 사실도 말할 나위가 없다. 리지린은 이 기록이 숙신의 위치를 가장 구체적으로 전하는 자료로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고대 중국인들이 숙신의 지역을 주의 북방이며 동시에 연과 인접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춘추시대 연의 영토는 결코 오늘날의 난하 이동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숙신의 영역을 대체로 난하 동·서 지역이라고 인정하게 된다.²³⁾

리지린은 숙신을 연나라와 인접했다고 보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숙신은 제나

21) 『史記集解』「五帝本紀」鄭玄曰, 息慎或謂之肅慎, 東北夷.

22) 『春秋左傳』昭公十七年 周敬王曰, 武王勝殷……曰蒲姑·商奄吾東土……肅慎·燕·亳吾北土.

23) 리지린, 앞의 책, 206쪽.

라와도 인접했다. 이상의 사료들은 숙신이 연의 북쪽 내지 동쪽이자 제의 북쪽에 있던 나라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숙신은 『산해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숙신씨의 나라가 백민(白民) 북쪽에 있다. 낙당(雒棠)이라는 이름의 나무가 있는데, 성인(聖人)이 대를 이어 서면 이 나무에서 옷을 취해 입는다.²⁴⁾ (『해외서경』)

『산해경』 『해외서경』에는 숙신이 백민 북쪽에 있다고 했는데, 같은 책 「대황동경」에는 백민국 바로 다음으로 청구국을 기록했다. 또 같은 책 「해외동경」에는 청구국이 중국의 동남쪽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군자국 등 몇 개의 나라를 지나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중국의 동남쪽 바다에서부터 북쪽으로 군자국 · 청구국 · 백민국 등이 있고 그 북쪽에 숙신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군자국 · 청구국 · 백민국 · 숙신국 등은 우리 민족의 별칭이거나 흰 옷을 입고, 군자풍이었다는 우리 민족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이는 『산해경』이 기록된 전국시대 이전부터 동이족이 중국의 동해안 지역에 정착해 있었음을 말해준다.

청구(靑丘)에 대해서는 앞에 인용한 『사기』 「사마상여 열전」에도 등장하는데, 제나라가 숙신과 동북쪽으로 비스듬히 접하고 있고 탕곡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한 바로 다음 구절이다. 이 청구에 대해 『사기정의』는 복건(服虔)의 입을 빌려 “청구국은 해동(海東) 3백리에 있다”²⁵⁾ 고 설명하고 있다. 또 『사기집해』는 곽박(郭璞)의 입을 빌려 “청구는 산의 이름이다. 역시 밭이 있고 구미호(九尾狐)가 나오는데, 해외(海外)에 있다”²⁶⁾ 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외란 바다 건너란 뜻이 아니라 중국의 강역 바깥이란 뜻으로서 서기전 2세기경 청구국과 숙신

24) 『山海經』 「海外西經」 肅慎之國在白民北。有樹名曰雒棠。聖人代立。于此取衣。

25) 『史記正義』 「司馬相如列傳」 靑丘國在海東三百里。

26) 『史記集解』 「司馬相如列傳」 靑丘山名。亦有田出九尾狐。在海外。

국의 위치는 지금의 산둥성 바닷가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편 『일주서(逸周書)』 「왕회해(王會解)」에는 서기 전 12세기 주나라 성왕(成王) 때 개최한 성주(成周) 대회에 참석한 나라들을 기록하였는데 직신(稷慎: 즉 숙신)을 필두로 예(穢) · 양이(良夷) · 발(發) 등 동이족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청구는 해동(海東)의 지명이고, 백민은 동남이(東南夷)라고 주석했다. 이들의 위치가 『산해경』 및 「사마상여열전」의 위치와 일치하고 있는데, 산둥을 비롯한 중국의 동해안 지역들이다. 그럼 숙신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2.3 숙신과 조선의 명칭과 위치

조선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주나라 초기 무왕 때인 서기 전 12세기로서 기자(箕子)가 동쪽 조선으로 갔다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는 춘추시대 『관자』의 「경중갑(輕重甲)」에 제나라 환공(桓公: 서기전 685~643)과 관중이 나누는 대화에 조선이 등장한다.

환공이 말했다. “사이(四夷)가 불복하니 그들이 나의 정치에 역행하는 것이 천하에 퍼져서 과인을 상하게 할 것이 두렵다. 과인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이 도가 있겠는가?” 관중이 대답하여 말했다. “오월(吳越)이 입조(入朝)하지 않는 것은 구슬과 상아를 예물로 삼았기 때문이고, 발·조선(發朝鮮)이 입조하지 않는 것은 문피(文皮)와 털옷을 예물로 청했기 때문입니다. 웅씨(禹氏)가 입조하지 않는 것은 백옥을 예물로 청했기 때문이고, 곤륜(崑崙)이 입조하지 않는 것은 여러 옥을 예물로 청했기 때문입니다. 고로 무릇 쥐고 있으면 손을 볼 수 없고, 다물고 있으면 입을 볼 수 없으니 구슬을 천금으로 쳐준 연후에 8천 리의 오월이 입조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마리 표범의 가죽을 금으로 쳐서 준 연

후에 8천 리의 발조선이 입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²⁷⁾

윗 구절에서 8천 리는 이민족의 강역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관용어지 실제로 8천 리라는 뜻은 아니다. 오월도 8천 리, 발조선도 8천 리, 웅씨도, 곤륜도 모두 8천 리라고 표기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송호정은 이를 산둥반도에 있던 제나라와 한반도 서북부에 있던 고조선이 그만큼 멀다는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산둥반도에 있던 제나라와 한반도 서북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의 『사기』 「5제본기」에는 “북쪽으로는 산용 · 발 · 식신(發息慎)이 있다”라고 기록했는데, 『관자』에는 ‘발 · 조선(發朝鮮)’으로 기록하고 있다. 모두 같은 내용을 표시한 것인데 ‘식신(숙신)’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조선’으로 표기하기도 했던 것이다.

발(發)에 인접한 숙신과 발에 인접한 조선은 같은 나라, 즉 조선을 달리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숙신 · 식신)이 발의 인근에서 중국의 북쪽에 있었다는 뜻이니 이 당시 중국인들이 보는 조선은 반도에 있지 않았다. 아니 이 당시 중국인들은 현재의 한반도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었다. 두 기록은 1,600년이란 긴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숙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 등장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대로 숙신은 한나라 때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두 기록은 모두 조선을 달리 부른 것임을 말해준다. 학문에 밝았던 청나라 건륭제는 『만주원류고』 「유지(諭旨)」에서 ‘숙신’과 ‘조선’을 같은 명칭이라고 말했다.

우리 선조들이 처음 일어날 때 옛 만주(滿珠)에 소속된 것을 주신(珠申)이라고

27) 『管子』 「輕重甲」 桓公曰, 四夷不服, 恐其逆政, 遊於天下, 而傷寡人. 寡人之行爲此有道乎? 管子對曰, 吳越不朝, 珠象而以爲幣乎! 發朝鮮不朝, 請文皮毳服而以爲幣乎! 禺氏不朝, 請以白璧爲幣乎! 崑崙之虛不朝, 請以璆琳琅玕爲幣乎! 故夫握而不見於手, 含而不見於口, 而辟千金者珠也, 然後八千里之吳越可得而朝也. 一豹之皮容金而金也, 然後八千里之發朝鮮 可得而朝也

하였다. 뒤에 만주(滿珠)로 고쳐 불렀는데, 글자가 서로 잘못되어 만주(滿洲)로 되었다. 사실 옛 숙신은 주신의 음이 변한 것이다.²⁸⁾

옛 숙신은 주신의 음이 변한 것이라는 뜻이다. 신채호도 ‘조선’의 어원을 만주어의 ‘주신’이라고 추론하였다.²⁹⁾ 이 두 견해를 종합하면 원래 ‘주신’이라는 토착어가 한자로 옮겨지면서 발음이 유사한 ‘숙신’(또는 식신·직신)이나 ‘조선’으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숙신의 위치가 산동반도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살펴보았으므로 지금부터는 조선의 위치를 살펴보자. 조선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 자료가 『산해경』이다. 『산해경』 「해내경」에는 “동해의 안쪽, 북해변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³⁰⁾ 고 하였으며, 「해내북경」에는 “조선은 열양(列陽)의 동쪽, 바다의 북쪽·산의 남쪽에 있다. 열양은 연나라에 속한다.”³¹⁾ 라고 하였다. 「해내경」에서 말하는 동해의 안쪽, 북해변은 중국에서 볼 때 지금의 발해를 뜻한다. 이는 앞에서 산동 바닷가에 있었다는 숙신과 같은 지역이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견해에 따라 (고)조선을 시종 반도 서북쪽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송호정은 『산해경』의 이 기록도 고조선의 위치를 논하는 자료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산해경』 「해내경」에서 ‘동해의 안 북해의 가’ 라고 한 것은 조선이 크게 말해 동해의 범위 안 즉 동해에 면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동해 북부의 한 쪽 가에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산해경』의 기사는 개략적인 상

28) 『滿洲源流考』 「諭旨」 我朝肇興時舊稱滿珠所屬曰珠申. 後改稱滿珠而漢字相沿, 訛爲滿洲. 其實即古肅慎爲珠申之轉音.

29) 신채호, 『조선상고문화사』 제1편 제1장.

30) 『山海經』 「海內經」 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曰朝鮮.

31) 『山海經』 「海內北經」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

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고조선의 본래 위치를 논하는 자료로는 부적합하다.³²⁾

송호정의 글을 보면 불리한 자료는 감추거나 호도하고, 논점을 모호하게 흐려서 결국에는 고조선에게 불리한 결과를 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윗 글도 그렇다. 『산해경』은 조선의 위치에 대해 ‘동해 안쪽, 북해변(『해내경』), ‘연나라에 소속된 열양 동쪽, 바다 북쪽, 산의 남쪽(『해내북경』)’이란 여러 지리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송호정이 정상적인 학자라면 이런 여러 정보들을 다른 사료와 비교해서 조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연구해서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송호정의 머릿 속에서 고조선은 반도 서북부에 있어야 하므로 『산해경』의 기사는 개략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고조선의 본래 위치를 논하는 자료로는 부적합하다’라고 엉뚱한 결론을 내린다. 고조선이 산동반도에도 있으면 고조선을 소국으로 모는 식민사학의 모든 논리가 무너지므로 식민사학 특유의 우기기를 동원한 것이다.

『해내북경』은 조선이 열양 동쪽에 있다고 말했는데, 열양은 열수의 북쪽을 의미한다. 그러니 열수의 위치에 대해 이병도는 대동강으로 보고 열양은 평양 대성산 아래로 보았다.

열양은 대동강 북쪽, 특히 지금 평양 대성산하에 비정하고 싶다. 『동국여지승람』에 구룡산 즉 대성산을 일찍이 ‘노양산(魯陽山)’이라고 하였다 하니 노양이야말로 열양과 같은 이름에서 연유되었던 것이 아닌가?³³⁾

이병도의 위치비정을 보면 과연 맞는 것이 하나는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같이 제멋대로이다. 『산해경』은 열양을 연나라 땅이라고 했으니 열수가

32) 송호정, 앞의 글, 19쪽.

33)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81쪽.

대동강이고 평양 대성산하가 열양이라면 평양이 연나라 강역인 북경 부근에 있었는가, 아니면 연나라가 스스로 평양으로 날아왔는가? 열양, 즉 평양 동쪽이 조선이라면 옥저와 동예는 어디로 가야 하나? 노양산(魯陽山)이 열양이란 이름에서 연유되었다니 글자 하나가 같으면 모두 같은 지역인가? 식민사학에서 그간 삼국의 위치를 중국에 있다고 한 재야학자들을 온갖 말로 모독했는데, 그보다 몇 배는 더 심하지 않은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민사학도 이제는 고조선의 강역을 한반도 서북부에서 만주로 조금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서영수는 열수에 대해 이병도와 달리 지금의 요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장안이 말한 열수는 오늘날의 대동강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그것이 태자하와 혼하가 합류하는 오늘날의 요하로 보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 이는 열수가 고조선계 지명인 까닭에 고조선의 중심이 요동에 있었던 때의 열수가 대동강으로 이동한 이후의 지리를 기록한 『한서』 「지리지」에서 열수가 대동강으로 기술된 이유도 순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³⁴⁾

교묘한 논리로 독자들의 시선을 현혹시키는 것이 서영수의 특기이다. 서영수는 열수를 대동강이 아니라 요하로 비정하는 것으로 자신은 식민사학에서 벗어난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그의 결론은 고조선 중심은 ‘대동강’이라는 허황된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에 불과하다. 이병도, 서영수, 노태돈, 송호정의 공통 특징은 1차사료의 무시와 자의적 해석, 즉 어거지에 있다. 서영수는 『한서』 「지리지」 어디에 열수를 대동강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보라. 몰라서 그랬다면 무식한 것이고, 알고도 그렇게 썼다면 양심불량이다.

지금까지 숙신과 조선의 위치가 산동성 일대였다는 사실과 숙신과 조선이 같

34)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 2집, 일조각, 1988, 48쪽.

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중국의 고대 문헌들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중국 문헌들은 『관자』에서처럼 ‘조선’이라고 표기하기도 했고, 공자나 사마천 및 『죽서기년』 등에서처럼 ‘숙신’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이 둘은 같은 조선을 달리 표현한 것임은 물론이다.

3. 산융에 대한 여러 문제

3.1 산융과 제 환공의 공방전

산융(山戎)은 앞에서 본 것처럼 5제의 마지막 제순 때 중국의 북쪽에 있어 ‘산융 · 발 · 식신’으로 기록되었다. 또 『사기』 「홍노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홍노의 선조는 하후(夏后)씨의 후예로 순유(淳維)라 하였다. 요 · 순 이전에는 산융 · 험윤 · 훈육 등의 여러 종족이 있어 북쪽의 미개척지에 거주하여……³⁵⁾

제순(帝舜) 때 북쪽에 산융 · 발 · 숙신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산융 · 험윤 · 훈육 등이 있어서 이들이 홍노의 선조인 것처럼 기록했다. 홍노의 선조라고 한 하후씨의 후예 순유는 『사기집해』에 홍노시조의 이름이라 기록하고 있는데,³⁶⁾ 『사기색은』에는 하나라 마지막 왕 겐의 아들 훈육이 북쪽으로 도망갔는데 이 훈육이 순유로서 홍노의 시조라고 주석하고 있다.³⁷⁾ 이런 주석들은 이민족의 시조를

35) 『史記』 「匈奴列傳」 匈奴, 其先祖夏后氏之苗裔也, 曰淳維, 唐 · 虞以上有山戎 · 獫狁 · 葷粥, 居于北蠻……

36) 『史記集解』 「匈奴列傳」 漢書音義曰, 匈奴始祖名.

37) 『史記索隱』 「匈奴列傳」 張晏曰, 淳維以殷時奔北邊……其(櫟)子獫粥……中國謂之匈奴……則, 淳

중국인의 후예로 만들려는 중화사상의 산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기록은 자체 모순을 담고 있는데, 흉노는 하(夏)나라 이전부터 존재했으니 하나라 이후에나 나오는 하후씨의 후예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기』 「흉노열전」의 산융에 대해 『사기정의』는 두예(杜預)의 설명에 따라서 산융·북융·무종(山戎·北戎·無終)이란 세 가지 이름이 있다고 말하고, 또 『괄지지(括地志)』를 인용해서 유주(幽州) 어양현(漁陽縣)을 본래 북융 무종국(北戎無終國)이라고 말했다.³⁸⁾ 유주는 지금의 북경 근처인데 북융 무종국은 그 근처 어양현에 있었다는 것이다. 산융은 이로부터 약 1,600년 후 춘추초기 제(齊)나라와 관련되어 기록에 많이 나타나는데 『사기』 「흉노열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그 후 65년, 산융이 연(燕)나라를 넘어 제(齊)나라를 쳤다. 제 희공(齊釐公)은 도성 밖에서 싸웠다.³⁹⁾

제 희공은 희공(僖公)이라고도 하는데, 서기전 730년부터 서기전 698년까지 재위에 있던 임금이다. 『사기』 「제태공세가」에도 융(戎)이 제나라를 공격한 기사가 있다.

(희공25년) 북융이 제나라를 침공하자 정(鄭)나라에서 태자 흘(忽)을 보내 구해 주었다.⁴⁰⁾

또 『춘추좌전』 「환공 6년」 조에도 북융이 공격한 기록이 있다.

維是其始祖, 蓋與獮粥是一也.

38) 『史記正義』 「匈奴列傳」 杜預云, 山戎·北戎·無終三名也. 括地志云, 幽州漁陽縣本北戎無終子國

39) 『史記』 「匈奴列傳」 其後六十五年, 山戎越燕而伐齊, 齊釐公與戰于齊郊.

40) 『史記』 「齊太公世家」 北戎伐齊, 鄭使太子忽, 來求齊.

북옹이 제나라를 쳤다. 제는 정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였다. 태자 홀은 군사를 끌고 가서 제를 구하였다. 6월에 북옹의 군사를 크게 부수고 북옹의 장수 대량(大良)과 소량(小良) 및 갑수(甲首) 3백 명을 잡아 제(齊)나라에 주었다.⁴¹⁾

이는 모두 제 회공 25년(서기전 707년)에 발생한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사기』 「홍노열전」은 산옹이라고 기록했으나 같은 『사기』 중에서도 「제태공세가」와 『춘추좌전』은 북옹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때로는 산옹, 때로는 북옹으로 기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보았듯이 숙신과 조선의 경우도 동일하다. 『춘추좌전』에는 또 북옹이 정나라를 침략한 사실(은공9년)과⁴²⁾ 산옹이 연을 괴롭히자 노나라와 제나라가 의논하였다는 사실(장공 30년)도 기록되어 있는데,⁴³⁾ 여기에서도 같은 세력을 말하면서 때로는 북옹, 때로는 산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옹은 그 뒤에도 또 연을 공격한 일이 있었는데 제에서 연을 도와 산옹을 물리쳤다. 이 사건은 『사기』 「홍노열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 뒤 44년, 산옹이 연을 치자 연은 급한 사정을 제에 알렸다. 제 환공(桓公)이 북쪽으로 산옹을 치니 산옹이 도망하였다.⁴⁴⁾

이때는 제 환공 23년(서기전 663년)으로 환공이 재상 관중(管仲)의 도움으로 춘추시대 첫 패자(覇者)의 지위를 누리고 있을 때였다. 이때 환공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북방의 산옹을 물리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기』 「제태공세가」는 물

41) 『春秋左傳』 「桓公六年」 北戎伐齊，齊侯使乞師于鄭，鄭太子忽，帥師救齊，六月大敗戎師，獲其二帥大良 · 小良甲首三百，以獻於齊。

42) 『春秋左傳』 「隱公九年」 北戎侵鄭，鄭伯禦之。

43) 『春秋左傳』 「莊公三十年」 過于魯 · 齊，謀山戎也，以其病燕故也。

44) 『史記』 「匈奴列傳」 其後四十四年，而山戎伐燕，燕告急于齊，齊桓公北伐山戎，山戎走。

론 「연소공세가」·「12제후년표」등에도 모두 기록하고 있다. 「제태공세가」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역시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환공 23년) 산옹이 연을 치자 연은 급한 사정을 제나라에 알렸다. 제 환공은 연을 구하고 마침내 산옹을 쳐 고죽(孤竹)에 이른 뒤 돌아왔다.⁴⁵⁾

『사기』 「홍노열전」에서는 ‘산옹이 도망하였다’고 했는데 『사기』 「제태공세가」에서는 환공이 ‘산옹을 쳐 고죽에 이른’ 뒤 돌아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기록은 고죽국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사기』 「제태공세가」에는 환공이 여러 제후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산옹·이지·고죽을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환공 35년) 환공이 말하기를, “……북쪽으로 산옹·이지(離支)·고죽을 쳤으며…….”⁴⁶⁾

이 발언은 환공이 고죽국에 이르렀다 돌아왔던 때보다 12년 뒤의 일이다. 12년 전의 기록에는 고죽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산옹·이지·고죽’을 쳤다고 자랑하고 있다. 앞에서는 ‘산옹·고죽’만 기록되었다가 여기에서는 이지가 추가되었다. 환공이 제후들에게 12년 전의 전공을 과장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나라를 쳤다는 사실만 말하고 정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말해준다. 관중은관자(管子)』에서 제 환공의 전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45) 『史記』 「齊太公世家」 山戎伐燕, 燕告急於齊, 齊桓公救燕, 遂伐山戎, 至于孤竹而還.

46) 위와 같음 齊桓公曰……北伐山戎·離支·孤竹.

북쪽으로 영지와 하부산을 치고, 고죽을 베고 산융을 지났다.⁴⁷⁾

북쪽으로 산융을 치고 영지를 제어하고 고죽을 베자, 구이(九夷)가 듣기 시작
했다.⁴⁸⁾

천하를 바로잡아 북쪽으로 고죽 · 산융 · 예맥에 이르렀고 진(秦) · 하(夏)를 제
어하였다.⁴⁹⁾

앞서 제 환공이 제후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 환공을 보좌했던 관중도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는 ‘고죽을 뺏다’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고죽 · 산융 · 예맥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관자』 「중광」에서는 또 ‘예맥’이 추가되어 있다.

『국어』 「제어」편과 『염철론』 「벌공」편에도 『관자』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모두 『관자』의 내용을 보고 쓴 것이다. 그런데 역시 『관자』를 보았던 사마천이 『사기』에서 ‘고죽 · 산융 · 예맥’을 쳤다는 내용을 빼놓은 것은 환공과 관중의 설명 외에 다른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관자』도 나라 이름만 다 수 나올 뿐 어떻게 물리쳤는지 구체적 전공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전쟁을 기록하면서 ‘산융, 고죽, 영지’를 말하다가 「중광」에서는 영지가 빠진 대신 예맥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사기』 「제태공세가」 · 『국어』 「제어」 · 『염철론』 「벌공」 등에는 모두 영지를 넣고 예맥은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관자』 「중광」편은 북쪽으로 고죽, 산융, 예맥에 이르렀다고 말하고는 느닷없이 ‘진(秦) · 하(夏)를 제어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제 환공의 주 목적이 중국 내의 패권다툼이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환공이 산융을 공격한 이유도 춘추

47) 『管子』 「大匡」 北伐令支 · 下梟之山, 斬孤竹, 過山戎.

48) 『管子』 「小匡」 北伐山戎, 制令支 · 斬孤竹, 而九夷始聽.

49) 『管子』 「中匡」 一匡天下, 北至於孤竹 · 山戎 · 濊貊, 拘秦 · 夏.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연나라를 공격하는 산융을 치러 갔다가 내친 김에 고죽·영지·예맥까지 정벌할 형편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패주로서 환공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과장한 전공으로 볼 수 있다.

내친 김에 산융·고죽 등을 치기 위해서는 다른 제후국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실제로 제 환공이 노나라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설원』 「권모」편에 실려 있다.

제 환공이 산융·고죽을 치기 위해 노나라에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하였다. 노나라 군주가 신하들과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군사가 수천 리를 가서 만이의 땅에 들어가면 필히 돌아올 수 없다.”고 하자, 왕은 말로는 돕는다고 하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⁵⁰⁾

산융과 고죽을 치기 위해 노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했지만 노나라는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니 제나라 단독으로 전쟁을 계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 『단군세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⁵¹⁾

무진 52년, 제(帝)께서 병력을 보내 수유(須臾)의 군대와 함께 연나라를 정벌케 하였다. 이에 연이 제나라에 위급함을 알리자 제가 대거 고죽에 쳐들어왔는데, 우리의 북병에 걸려 전세가 불리해지자 화해를 구걸하고 물러갔다.⁵²⁾

50) 『說苑』 「權謀」 齊桓公將伐山戎·孤竹, 使人請助於魯, 魯君進群臣而謀, 皆曰, 師行數千里, 入蠻夷之地, 必不反矣, 於是魯許助之而不行.

51) 『단군세기』나 『환단고기』 등 국내 사서를 학계에서 무조건 위서로 몰아 사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후대에 씌어져 조작·개작·윤색 등 의혹이 농후하더라도 모든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학문적 태도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사료들은 필자가 그랬듯이 다른 사료들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제한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사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52) 『檀君世紀』 ‘三十六代 檀君 買勒’ 戊辰五十二年, 帝遣兵與須臾兵伐燕, 燕人告急於齊, 齊人大舉入孤竹, 過我伏兵戰不利, 乞和而去.

20세기에 나타난 『단군세기』와 『환단고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는 학문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지만 한국과 중국의 고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개연성 있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단군세기』는 이 경우 “고죽에 이른 뒤 돌아왔다.”는 『사기』 「제태공세가」의 기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송호정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기원전 7세기 중엽에 이르러 제 환공(齊桓公)은 산옹 등 각 종족에 대한 정벌을 시작하였다. 제환공이 북으로 산옹을 정벌하려고 했던 이유는 물론 산옹이 제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었고, 연이 제를 향하여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는 궁극적으로 패주(霸主)신분으로 주(周)왕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산옹을 정벌하였던 것이다. 제의 1차 정벌이 있는 후 연의 장공(莊公) 27년(기원전 664년)에는 산옹이 다시 연에 대한 침략을 시도하였고, 연은 제에 급히 구원을 청했다. 제환공은 마침내 산옹을 정벌하고 고죽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당시 북벌의 주요한 목표는 산옹이었고 때문에 여러 고대 사서(史書)에는 “과고죽(過孤竹)” 혹은 “지우고죽이환(至于孤竹而還)”이라 했으며, 산옹의 연맹국인 고죽 · 영지 등은 아직 제와 접촉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대략 4년 후에(기원전 660년) 제 환공은 또 고죽 · 영지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데, 이때에는 철저히 산옹과 고죽 · 영지를 정복하였다.⁵³⁾

송호정은 무슨 사료를 근거로 “대략 4년 후에 제환공은 또 고죽 · 영지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송호정은 항상 이민족, 즉 침략자의 자리에서 자국의 역사를 설명하므로 ‘산옹을 치고, 영지를 제어하고 고죽을 베자(『관자』 「소광」)’라고 한 내용에 “철저히 산옹과 고죽 · 영지를 정복하

53) 송호정, 앞의 글, 60~61쪽.

였다”라고 ‘철저하게’라는 부사를 덧붙였다. 그나마 관중이 과장한 기록에 ‘철저하게’라고 더 덧붙여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3.2 산융과 고조선의 관계

그럼 산융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마천은 앞에 본 대로 산융을 흉노의 선조로 서술했으나 송호정은 용적(戎狄)으로 보았다.

‘조선’이란 명칭을 전하는 최초의 문헌인 『관자』나 『사기』등 여러 고대 사서(史書)에는 ‘조선’의 활동은 소략한 대신 ‘산융’과 관련한 여러 기사들이 있다. 선진문헌(先秦文獻)의 몇몇 기록만 보아도 기원전 8~7세기 당시 요녕(遼寧)지역에서 활약한 주된 정치세력은 산융을 중심으로 한 영지·고죽·도하 등 여러 ‘용적’ 세력들이었고, 그 이동 지역에 예맥 계통의 조선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⁴⁾

고조선 역사를 깎아내리기 위해 식민사학자들이 기울이는 노력은 가려할 정도이다. 식민사학자들은 줄곧 조선총독부의 관점을 추종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만주는 물론 여차하면 북한 강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고조선 강역에 산융, 동호 등을 끌어들이자 천군만마라도 얻은 듯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한국의 송호정 등은 여러 정치세력과 조선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고조선 역사를 축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고대 문헌들은 지금의 동북공정과 송호정 등의 생각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일주서(逸周書)』 「왕회해(王會解)」에서 공조(孔晁)는 불영지(不令支)·고죽·부도하(不屠何) 및 산융·동호까지 모두 ‘동북이(東北夷)’라고 주석했다. 동북공

54) 위와 같음, 23쪽.

정이나 송호정의 바람과는 달리 이들을 같은 민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수서』 「배구(裴矩)열전」은 고구려의 땅은 원래 고죽국이었다고 설명⁵⁵⁾하고 있으니 이들은 우리 민족의 선조들과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동북이었던 산융도 마찬가지다. 중국 고대사료는 숙신과 조선을 혼용하는 것처럼 사료에 따라 같은 정치세력을 때로는 산융, 때로는 조선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염철론』 「비호(備胡)」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옛날에는 사이(四夷)가 모두 강성하고 아울러 침범했는데, (고)조선은 요행을
바라고 국경을 넘어서 연나라의 동쪽을 침략했다.⁵⁶⁾

이 기록은 『사기』 「제태공세가」에서 산융이 연을 쳤다는 기록과 같은 내용이다. 즉 『사기』는 산융이라고 쓴 것을 『염철론』은 조선이라고 쓴 것이다. 연의 동쪽(그리고 제의 북쪽)에 있던 조선(산융)이 연나라 동쪽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그럼 중국 문헌에 왜 조선이란 명칭보다 다른 명칭들이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중국에 인접한 지역에 있던 조선의 거수국들의 명칭이 산융 · 고죽 · 영지 · 예맥 등인데 이들이 지리상 중국과 자주 충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산융 역시 조선의 이칭임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는 위의 『설원』의 내용 가운데 산융 · 고죽의 땅을 만이(蠻夷)의 땅이라고 한 점이다. 만약 산융이 이(夷)와 명확히 구별되는 다른 민족인 융(戎)이었다면 ‘만’이라고 하지 않고 ‘융’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이는 산융이 이(夷)족과 다르지 않은 민족임을 확인시켜 준다.

『북방제민족원류(北方諸民族源流)』를 쓰기도 했던 중국인 주학연(朱學淵)은 자

55) 『隋書』 「裴矩傳」……高(句)麗之地, 本孤竹國也, 周代以之封于箕子, 漢世分爲三郡, ……이라고 했는데, 고죽국 지역은箕子國이 있었으며 한사군이 설치된 지역임을 말하였다.

56) 『鹽鐵論』 「備胡」 往者, 四夷俱强, 並爲寇虐 朝鮮踰僞, 劫燕之東地.

연과학적 방법으로 인문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산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산융은 산 속 사람을 뜻하는 몽골어 울흥이다. 한 대(漢代)에 이를 원래의 발음에 맞게 오락혼 또는 오환으로 옮겨 적으면서, 그 동안 의역되어 쓰이던 산융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버렸다.⁵⁷⁾

산융이라는 명칭은 그들이 주로 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의역하여 쓴 말이나, 한나라에 와서는 산속 사람이라는 몽골어 울흥의 음에 맞추어 오락혼 또는 오환으로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환(산융)은 선비와 함께 동호의 후예로 알려져 있으니 동호와 산융 역시 같은 세력이다. 이 동호는 산융과 함께 중국의 동(북)쪽에 등장하는데 『사기』 「흉노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진(晉)나라의 북쪽에는 임호·누번이라는 융이, 연나라의 북쪽에는 동호·산융이 있었다.⁵⁸⁾

앞에서 인용한 『관자』는 연나라 북쪽에 ‘산융·고죽·영지·예맥’ 등이 있다고 말했는데 『사기』 「흉노열전」은 연나라의 북쪽에 동호·산융이 있다고 했다. 두 기록은 같은 지역에 대한 설명이니 결국 같은 정치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사기』 「흉노열전」은 연나라 북쪽에 산융뿐만 아니라 동호도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호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57) 주학연, 문성재 역주,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우리역사연구재단, 2009, 75쪽.

58) 『史記』 「匈奴列傳」 晉北有林胡·樓煩之戎·燕北有東胡·山戎.

4. 동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

4.1 중국 기록의 동호와 산융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제 환공이 연나라 북쪽을 공격했을 때 왜 동호를 공격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제 환공은 연나라 북쪽의 나라들을 공격하면서 동호는 빼놓았다는 뜻일까? 또 동호는 자신의 이웃나라들이 공격당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뜻일까? 이는 동호 역시 고죽 · 영지 · 예맥과 동일한 세력임을 뜻하는 것이다. 즉 조선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그 래야 연의 북(동)쪽에 동호 · 산융이 있다는 표현이 맞게 된다. 전국시대에 접어들면 중국 기록에 ‘산융’ 대신 ‘동호’라는 이름이 주로 사용되는데, 동호는 동이의 다른 이름으로서 즉 조선을 뜻한다.

동호가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일주서(逸周書)』 「왕회해(王會解)」로서 은나라 시조 성탕(成湯) 때 동호를 포함한 흉노 · 누번(樓煩) · 월지(月氏) 등 13국을 북적(北狄)이라고 기록한 것이다.⁵⁹⁾ 또 「왕회해」에는 주나라 초에도 동호 · 산융이란 기록이 함께 등장해서 동호와 산융을 각각 별개의 종족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중국 사학자 임혜상(林惠祥)은 『중국민족사』에서 “진(秦)나라 이전에는 동호를 북융 · 산융이라 불렀다.”⁶⁰⁾ 고 말했으며 역시 저명한 중국의 역사학자인 여사면(呂思勉:1884~1957)도 『중국사(中國史)』에서 동호의 옛 명칭이 산융이라고 했다.⁶¹⁾ 여사면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문헌을 읽었다고 평가 받는 학자 중의 한 명인데 「역사공부를 하는 과정(學習歷史之經過:1941)」에서도 자신이 읽은 방대한 저서를 죽 나열하기도 했다.

59) 『逸周書』 「王會解」의 孔晁의 주석

60) 林惠祥 『中國民族史』 秦以前, 東胡稱爲北戎 · 山戎.

61) 呂思勉, 『中國史』 上冊, (북경)중국사회과학 출판사, 63쪽.

『사기』 「조(趙)세가」의 다음 기록을 보자.

……(조나라의) 북쪽에는 연(燕), 동쪽에는 호(胡)가 있다……동쪽에 연(燕) · 동호(東胡)의 경계가 있고, 서쪽에는 누번(樓煩) · 임호(林胡) · 진(秦) · 한(韓)의 변경이 있다.……호북으로 바뀌 입고 말타기 · 활쏘기를 익혀 연(燕) · 삼호(三胡) · 진 · 한의 변경에 대비했다……조양자(趙襄子)는 용(戎)을 아우르고 대(代)땅을 취함으로써 호(胡)를 쫓아냈다.⁶²⁾

춘추시의 진(晉)나라가 전국시대에 3분되어 그 가운데 하나가 조(趙)나라가 되었는데, 중심 영토는 지금의 산서성 지역이었다. 이런 조나라 동쪽에는 동호가 있고, 서쪽에는 누번 · 임호가 있다면서 이들을 3호(胡)라고 기록했다. 『사기색은』에서 3호를 임호 · 누번 · 동호라고 주석한 것⁶³⁾이 이를 말해준다.

그런데 앞의 『사기』 「홍노열전」에서는 동호가 (조나라의 북쪽인) 연나라의 북쪽에 있다고 했다.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동호의 강역을 그려보면 연의 북쪽에서부터 조의 동쪽이자 제나라의 북쪽에 걸친 지역으로서 중국의 동북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시대 중국에서 3호라고 본 임호 · 누번 · 동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 『사기』 「소진(蘇秦)열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연나라의 동쪽에는 조선 · 요동(朝鮮遼東)이 있고 북쪽에는 임호 · 누번이 있으며, 서쪽에는 운중(雲中) · 구원(九原)이 있다……⁶⁴⁾

62) 『史記』 「趙世家」 ‘武靈王’ ……北有燕, 東有胡……東有燕 · 東胡之境, 而西有樓煩 · 林胡 · 秦 · 韓之邊……變服騎射, 以備燕 · 三胡 · 秦 · 韓之邊……而襄主并戎取代以攘諸胡.

63) 『史記索隱』 「趙世家」

64) 『史記』 「蘇秦列傳」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 · 樓煩, 西有雲中 · 九原……

『사기』 「소진열전」은 연나라의 북쪽에 3호 가운데 임호 · 누번이 있다고 했다. 앞서 『사기』 「조세가」와 비교해보면 동쪽에 동호가 있다고 했는데, 『사기』 「소진열전」은 3호 중에 동호 대신 조선이 들어가 있다. 곧 동호가 조선인 것이다.

4.2 연나라 장수 진개가 공격한 지역은 하나다

동호가 조선임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전국시대 연나라의 장수 진개(秦開)에 관한 『사기』 「흥노열전」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그 뒤 연나라에 현장 진개가 있어 (동)호에 불모로 가 있었다. 동호는 그를 매우 신임하였다. 그는 연으로 귀국하자 동호를 습격 · 격파하여 동호는 천여 리나 물러났다……연나라 또한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造陽)에서 시작해서 양평(襄平)까지 이르렀다.⁶⁵⁾

동호에 불모로 가 있던 진개가 동호의 신임을 얻어 귀국한 후 동호를 크게 물리쳤다는 내용이다. 장수를 인질로 보내야 할 정도로 동호는 강한 국가였는데, 이런 사실이 우리측의 『태백일사(太白逸史)』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임오년에 연나라의 배도(倍道)가 쳐들어와 안춘홀(安寸忽)을 공격하고……병사를 나누어 파견하여 계성(薊城) 남쪽에서 싸우려 하니, 연이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 사죄하매 공자(公子)를 불모로 삼았다.⁶⁶⁾

65) 『史記』 「匈奴列傳」 其後燕有賢將秦開，爲質於胡，胡甚信之，歸而襲破走東胡，東胡卻千餘里……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

66) 『太白逸史』 「番韓世家下」 壬午，燕倍道入寇攻安寸忽，分遣偏師，將戰於薊城之南，燕懼遣使，乃謝以公子爲質

조선에서 연나라의 공자를 볼모로 삼았다고 했는데, 『태백일사』와 『사기』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인질로 간 공자는 진개임에 틀림없다. 즉 진개가 볼모로 갔다는 동호는 조선이다. 물론 식민사학이 주류인 한국 학계는 동호를 고조선과는 분리해 놓고 있다. 이병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에 의하면 연의 장수 진개는 일찍이 인질로서 동호에 가 있다가 돌아와 동호를 정벌하여(북쪽으로 쫓고) 천여 리를 개척하였다는 것이며, 또 그 후 연은 거기에 상곡·어양·우북평·요서·요동의 5군을 두고 제1의 상곡군치(治)인 조양(금 하북성 회래현)에서 마지막 요동군치(治)인 양평(금 요양)에 이르기까지 장성을 쌓아 호족(胡族)들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 때의 소위 동호란 것은 일본 시라토리 구라키지(白鳥庫吉)의 설과 같이 몽고종을 골자로 하여 여기에 통구스종을 가미한 것으로, 지금의 요하상류인 서랄목륜(西刺木倫; Shilamulen)하를 근거로 하여 그 좌우에 만연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호는 즉 오환(烏桓; 鮮卑)의 전신(前身)으로, 흉노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호의 칭을 얻게 된 것이니, 원래 조선과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호는 천여 리 물러났다”는 순전히 동호족의 쫓겨난 지역의 리수(里數)로서, 특히 신치(新置)된 상곡군(조양)에서 (제4번인) 요서군(차로: 且廬)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를 개산(概算)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⁷⁾

이병도는 우선 동호는 연의 북쪽에, 조선은 연의 동쪽에 있었던 다른 민족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진개는 동호를 천 리 물리쳤고, 또 조선을 2천 리 물리쳤다고 보고 있다. 동호가 오환(선비)의 조상으로서 조선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병도의 주장은 그의 다른 많은 견해가 그런 것처럼 일본인 학자인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설을 따른 것이다. 흉노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호라고 했다는 것은 복건(服

67) 이병도, 앞의 책, 76~77쪽.

虔)이 『사기색은』에서 한 말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조선을 말할 때도 호(胡)라고 한 경우도 많다.

『한서』 「지리지」 ‘현도군 고구려현’에 대한 응소(應劭)의 주석을 보면 “옛 진번 · 조선 호국(胡國)”⁶⁸⁾ 이라고 했다. 진번이나 조선을 호(胡)의 나라라고 부른 것이다. 또한 『삼국지』 「동이전」 ‘예’조에는 “한무제가 조선을 공벌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나누어 4군으로 삼았다. 그 이후로 호(胡)와 한(漢) 사이에 점차 차별이 생겼다……”⁶⁹⁾ 라고 해서 (위만) 조선을 호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흥노열전」에서 연나라는 조양(造陽)에서 양평(襄平)까지 장성(長城)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연의 장성에 대하여 이병도는 “상곡군치인 조양에서 마지막 요동군치인 양평(금 요양)에 이르기까지” 쌓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연 장성을 지금의 조양에서 요양까지 쌓았다면 이는 동서로 쌓은 것이다. 그러면 북방 민족들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양 남쪽과 그 동쪽 조선은 막을 수 없게 된다.

『회남자』 「인간훈」에는 진시황이 몽염을 시켜 쌓은 장성이 “동쪽으로는 조선과 국경을 맺고 있다.”⁷⁰⁾ 라고 기록하고 있다. 연나라고 진나라고 장성을 쌓은 이유는 흉노와 조선을 막기 위한 것인데, 동서로만 쌓았다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장성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병도는 조양이 상곡군치라고 했으나 『한서』 「지리지」 상곡군 조에는 조양이 없다.

그런데 진개가 공격한 동호는 곧 조선이었다. 이는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한(韓) 조에 기록된 다음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략』에 말하기를, “……연나라는 장군 진개를 보내 그 서쪽을 공격하여 2천

68) 『漢書』 「地理志」 ‘玄菟郡’의 주석 故眞番 · 朝鮮胡國.

69) 『三國志』 「東夷傳」 ‘濊’ 漢武帝伐滅朝鮮, 分其地爲四郡. 自是之後, 胡 · 漢稍別.

70) 『淮南子』 「人間訓」 使蒙公 · 楊翁子將, 築脩城, 西屬流沙, 北擊遼水, 東結朝鮮

여 리의 땅을 취하고 만 · 변한에 이르러 경계를 삼으니 조선은 드디어 약해졌다.” 고 하였다.⁷¹⁾

앞의 『사기』 「흥노열전」에서는 진개가 동호를 침략한 것으로 기록했는데, 여기의 『위략』에서는 조선을 침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기』는 동호로 기록하고 『위략』은 조선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병도는 「흥노열전」의 동호 침략 기사와 『위략』의 조선 침략 기사를 각각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때 진개의 경략은 비단 동호에만 그치지 않고 일보갱진(一步更進)하여 조선에도 미쳐 그 서부의 땅을 많이 빼앗았다. 이것이 『위략』에 “2천여 리의 땅을 취했다.”는 설이 나온 소이(所以)어니와, 여기 소위 2천여 리는 그 전부가 조선의 서부지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래에 말할 만변한(진개의 동침종점)까지의 2천여 리를 서쪽으로 환산시키면, 그 지역은 요하를 넘어 동호의 구주지(舊住地) 거의 전체에 미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2천여 리 중에는 실상 『사기』의 “동호가 천여 리 물러났다.”는 거리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동시에 『위략』의 찬자 혹은 그 이전 기록자가 이것을 망각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그 절반은 동호의 땅, 다른 절반은 조선 서부지방에 해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동호와 조선과의 경계는 지금 요하 상류 부근이었을 것이다. 그런즉 연의 새 5군 중 상곡 · 여양 · 우북평 · 요서의 4군은 본시 각 태반 동호의 지역에 속하고 끝으로 1군인 요동만이 조선의 서부지방에 속했던 모양이다. 『위략』의 찬자가 진개의 약지(略地) 2천여 리를 모두 조선의 서부지방으로 보아 그 중에 동호의 땅이 포함된 것을 망각하였음과 같

71) 『三國志』 「東夷傳」 「韓」 魏略曰……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取地二千餘里，至滿番汗 為界，朝鮮遂弱

이 『사기』의 찬자도 연의 5군을 전부 동호의 것인 양 말하여, 요동군과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치 아니하였다. 요컨대, 연의 약지(略地) 2천여 리 중에 조선이 실질적으로 잃은 부분은 약 천 리 가량밖에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⁷²⁾

이병도가 진개가 빼앗았다는 동호 천 리와 조선 이천 리를 모두 합하면 도저히 역사지리에 맞지 않다고 착안한 것은 그나마 평가할 만하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는 조선의 중심지가 지금의 평양이고 조선은 소국이라고 보았는데, 진개가 조선의 서쪽 2천 리를 빼앗았다면 지금의 요서와 요동지역 모두가 조선의 강역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견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요서 천 리는 동호 땅이고 요동 천 리만 조선 땅이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의 대부분의 주장이 그렇듯이 이번에도 아무런 근거는 없다.

그런데 이병도는 앞에서는 진개가 ‘동호를 정벌하여(북쪽으로 쫓고) 천여 리를 개척했다’고 말해놓고 여기에서는 연나라 동쪽에 동호가 있었다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같은 내용을 여기에서 말할 때 다르고, 저기에서 말할 때 다른 것이 식민사학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앞서 본 『사기』 「소진열전」은 전국시대 “연의 동쪽에 조선 · 요동이 있다.”⁷³⁾ 고 말했다. 동호는 조선이었던 것이다.

진개가 공격한 곳이 각각 동호와 조선, 두 나라가 아니라 조선을 달리 부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진개의 공격으로 연(燕)나라가 획득한 강역이 같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사기』 「흉노열전」은 진개(秦開)가 동호를 1천 리 내쫓고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설치해 호(胡)를 막았다”⁷⁴⁾고 말하고 있다. 『삼

72) 이병도 앞의 책, 77쪽.

73) 『史記』 「蘇秦列傳」 燕東有朝鮮 · 遼東.

74) 『史記』 「匈奴列傳」 置上谷 · 漁陽 · 右北平 · 遼西 · 遼東郡以拒胡

국지』「오환선비동이전」한(韓) 조의 『위략』은 “연나라가 장군 진개를 보내 그 서쪽을 공격하여 2천여 리의 땅을 취하고 만·변한(滿番汗)에 이르러 경계를 삼으니 조선은 드디어 약해졌다”고 말했다.

『한서(漢書)』「지리지」‘요동군’ 조에는 문·변한(文番汗)현이 나오는데, 변한(番汗)은 한자 표기까지 같다는 점에서 이것이 『삼국지』‘위략’의 변한현임은 분명하다. 문(文)현은 만(滿)현의 음을 가지고 표기한 것일 것이다. 진개가 동호를 1천 리 쫓아냈다는 『사기』「흉노열전」과 진개가 조선을 2천 리 쫓아냈다는 『삼국지』‘위략’은 같은 사건을 설명한 것이다. 즉 동호는 조선이다. 만약 진개가 북쪽으로 동호를 천 리, 그리고 또 동쪽으로 조선을 2천 리 쫓아냈다면 그 두 끝 지점이 같은 요동일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조선이 서북한 지역에 있던 작은 소국이었다는 기존 식민사학의 논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교수 서영수는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1988)에서, 서울대학교 교수 노태돈은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1990)에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당초 요동 지역이었다가 진개의 침략 때문에 평양으로 중심을 옮기게 되었다는 이른바 ‘중심지 이동설’을 내놓게 되었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은 일체의 사료적 근거가 없는 허황된 이론임은 둘째치고라도 현재의 요서지역을 산둥·동호지역으로 분류해서 고조선의 강역에서 분리시키고 있는 것은 과거 일제 식민사학보다 더한 역사왜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강역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중국 동북공정의 충실한 추종이론이기 때문이다.

동호에 대한 노태돈의 입장을 보자.

이 때 연이 북으로 동호를 공략하고 그 여세를 몰아 동으로 요하를 건너 고조선을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다. 즉 동호와 고조선은 별개의 실체로 보아야겠다. 전한 때의 저술인 『염철론』「벌공(伐功)」편에서 “연이 동호를

공격하여 몰아내고 천 리의 땅을 넓혔고 요동을 넘어 조선을 공격하였다(燕襲走東胡, 壁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고 하였다. 이에서 요동은 고조선 세력하의 지역이었음이 나타난다. 즉 당시 요서 지방이 동호의 지역이고 요하 이동이 고조선의 세력권이었음을 말해 주는데…….⁷⁵⁾

노태돈은 진개가 ‘북으로 동호를 공략하고 그 여세를 몰아 동으로 요하를 건너 고조선을 공격’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병도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한 것으로 역시 횡설수설이다. 연에서 ‘북’으로 동호를 공격했다는 것은 동호가 연나라 북쪽에 있었다는 뜻이다. 앞의 『사기』 「소진열전」에서 본 것처럼 연나라 동쪽에는 조선이 있었다.

연나라가 북쪽으로 동호를 공격했다면 연나라 동쪽의 현재의 요서, 요동지역에는 조선이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연나라는 북쪽으로 동호를 공격하다가 요서지역을 공략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동지역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된다. 이는 스스로 포위되는 형국을 자초했다는 말이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노태돈이 인용한 『염철론』 「벌공」편의 내용은 모순이다. 만약 연이 ‘북쪽으로’ 동호를 공격해서 몰아냈는데, 어떻게 그 지역에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설치해서 호(胡)를 막을 수 있겠는가? 북쪽으로 동호를 쳤다면 가면 갈수록 요동에서 멀어지는데 어떻게 그 정복지 끝에 요동군을 설치할 수 있겠는가? 연나라 북쪽 천 리가 요동이란 말인가?

진개는 동호를 천 리, 조선을 2천 리 공략한 것이 아니고 동쪽으로 조선(=동호)을 한 번 공략한 것이다. 『사기』 「소진열전」에 연나라의 동쪽이 요동이라고 했다. 진개 이전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등의 4군은 이미 연나라 땅이었는데, 진개의 조선 공격으로 요동을 확보하고 요동군을 설치했던 것이다. 물론 이때의 요동은 지금의 요동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서쪽의 고대 요동으로서 지금의 북

75)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85쪽.

경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을 것이며 지금의 요동으로부터는 천 리 가량 서쪽이었을 것이다. 만약 북쪽으로 동호를 천 리 물리쳤다면 연나라 북쪽 천 리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했을 것이다.

만약 노태돈처럼 진개가 동호의 땅 1천 리, 고조선의 땅 2천 리, 즉 3천 리의 강역을 확장한 맹장이라면 반드시 독자적인 열전이 있어야 한다. 당시 연나라는 『사기』 「소진 열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방 2천여 리 정도의 나라였다. 이런 나라의 장수 한 명이 도합 3천 리의 강역을 확장했다면 대단한 영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개는 『사기』 「연소공 세가」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더구나 사마천은 『사기』에 진개 열전을 서술하지 않았고, 『전국책(戰國策)』에도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 뒤 진·한(秦漢) 교체기에 흉노에는 목특(모돈) 선우가 등장하여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당시 동호와의 관계를 『사기』 「흉노열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목특(모돈)이 선우가 되었을 때 동호는 강성하였다.……동호는 처음에는 목특을 경시하여 흉노에 대한 방비를 하지 않았다. 때문에 목특은 병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여 동호왕을 대파해서 멸하고……좌방의 왕이나 장군들은 동쪽에 있어 상곡군으로부터 동쪽에 해당하며 예맥·조선에 접하였다.⁷⁶⁾

이때는 진개가 활약했던 때보다 약 100년 뒤의 상황이다. 흉노의 목특이 선우가 되었을 때도 동호는 여전히 강성했다고 말하고 있다. 흉노의 동쪽이며 연나라의 북쪽에 있었던 이 동호라는 강국은 고조선 말고는 없다. 다시 말하면 연의 북쪽에 있던 동호는 연의 동쪽에까지 이어진 대국 조선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흉노의 동쪽이 예맥·조선에 접하였다고 한 데서도 확인된다.

76) 『史記』 「匈奴列傳」 冒頓既立，是時東胡彊盛……東胡初輕冒頓，不為備。及冒頓以兵至，擊，大破滅東胡王……諸左方王將居東方，直上谷以往者，東接穢貉、朝鮮。

그러나 이후 고조선은 급격히 쇠퇴하여 오래지 않아 거수국들이 분열하여 열국시대로 접어드는데, 이때부터 오환 · 선비는 우리 민족과는 다른 계통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오환 · 선비는 『삼국지』에도 「오환 · 선비 · 동이 열전」으로 분류되듯이 같은 민족이었다. 주학연(朱學淵)은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에서 오환, 선비, 동호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고 말한 것처럼 언어학적으로도 한 갈래로 보는 견해도 있다.⁷⁷⁾ 숙신, 산용, 동호는 모두 조선의 이칭이었던 것이다.

4. 맺는 말

숙신 · 산용 · 동호는 고조선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었다. 그러나 각각의 칭호가 나타나는 시기는 조금씩 다르다. 즉 ‘숙신’은 5세기대부터 한나라 초기까지 주로 기록되고 있어서 ‘조선’이 처음 기록 된 주나라 초기보다 1,200년 가량 빠르다. ‘숙신’과 ‘조선’은 같은 위치에 있던 같은 나라로서 동이의 중심국이었다. ‘산용’도 5세기대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춘추시대까지 주로 나타나다가 전국시대부터는 ‘동호’로 주로 기록되었다.

동호도 『일주서』에 산용과 같은 시기인 은나라 초와 주나라 초에도 기록되었지만 전국시대의 짧은 기간 동안 주로 기록된 후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고 오환 · 선비로 대체되었다. 산용과 동호가 고조선과 같은 민족이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 칭호가 숙신처럼 조선과 같은 명칭인지, 아니면 조선의 거수국의 이름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숙신 · 산용 · 동호가 조선에 대한 이칭(異稱)이라면 그 의미는 대단히 큰 것으

77) 주학연, 앞의 글, 246쪽에 “동호 · 오환 · 선비는 비슷한 언어를 썼기 때문에 하나의 족속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라고 했다.

로서 한국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시기를 비롯해서 우리 민족의 계보에 대한 전혀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고조선의 강역이나 고조선 이후의 열국시대로부터 3국시대에 이르는 역사지리 문제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북방·동방에서 역사 무대에 등장했던 수많은 민족이나 국가들과 우리민족·우리 역사와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맺는 말을 대신코자 한다.

참고문헌

『관자』
『사기(史記)』 「5제본기」 · 「공자세가」 · 「사마상여 열전」 · 「소진 열전」 · 「제태공세가」 · 「조세가」 · 「조선 열전」 · 「홍노 열전」
『사기색은』
『사기정의』
『사기집해』
『삼국지』 「동이전」
『산해경』
『상서』 「요전」
『설원』 「권모」
『수서』 「배구전」
『염철론』 「비호」
『일주서』 「왕회해」
『춘추좌전』
『태백일사』
『한서』 「지리지」
『화남자』 「인간훈」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리지린, 『고조선 연구』, 서울, 학우서방, 1964.

몽문통, 『古史甄微』, 『蒙文通文集』 第五卷.

부사년, 『東北史綱』, (상해)상해고적출판사.

부사년, 「이하동서설」, 『부사년 전집』 3권, 연경출판, 1980.

송호정, 「고조선 국가형성 과정 연구」, 1999.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서울, 푸른역사, 2003.

여사면, 『中國史』 上冊, (북경)중국사회과학 출판사.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임찬경, 「중국 동북사의 숙신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학연구』 제14집, 국학연구소, 2011.

임혜상, 『중국민족사』

주학연, 문성재 역주,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우리역사문화재단, 2009.

「Abstract」

Suksin, Sanyung, Dongho were the Different Names of Gojoseon

Hwang, Soon-Jong

Usually, Suksin, Sanyung and Dongho are recognized as the different nations compared with Old Chosun. However, in the old Chinese history books we can find out evidences which tell us these nations were the same as Chos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oneness of these nations, so as to broaden the horizon of studies on the history of Old Chosun.

1. Suksin

Suksin was recorded as the former nation of Uproo and known as located in North Manchuria in ‘History of Three Countries’ by Chin Su. So the scholars of East Asian countris regarded Suksin as a nation of ancient Manchurian. But Suksin was not located in Manchria and rather existed in the Sandung area, according to the records of such as ‘History’ by Su Matien and ‘History of Han’ by Ban Go.

‘Record on Sama Sangyo’ of ‘History’ shows that Suksin was located in Sandung Province on the North-East of Che. Therefore, Fu Sunien told that the old Suksin was the same as Chosun and was different from the later Uproo in Manchuria. The location of Chosun was also the same as Suksin. According to ‘Record on Mountains and Countries’, Chosun was in between China’s East Sea and Bohai Sea. These areas include Sandung and Hubei Provinces and show that Chosun’s location was the same as Suksin.

2. Sanyung

During the Chuncheon Period of China, Sanyung was located on the North of Che. This Sanyung is recognized as a different nation from Chosun. Sanyung and the Chinese countries of Yen and Che had wars. At the early Chuncheon Period(B.C. 707) Sanyung hit Yen and Che. 44 years later(B.C.663) Sanyung hit again Yen. At this time Che saved Yen and counter-attacked Sanyung and forwarded to Kojuk and Yungji. As seen above, Sanyung was on the North(through East) of Yen and Che. This is the same location with Chosun and Suksin as shown above. Therefore, Sanyung and Chosun were also the same nations,

3. Dongho

From the Janquo Period(B.C.403~B.C.221) the name of Sanyung disappeared, and instead Dongho existed on the North and East of Yen. This shows the previous Sanyung and later Dongho were the same nations. So it means Dongho is also an another name of Chosun. The most important proof that Dongho and Chosun were the one nation is seen in the ‘Record on Hyungno’ of ‘History’, and in the ‘Record on the Eastern Nations’ of ‘History of Three Countries’. According to the former book, Yen’s general Chin Ge attacked Dongho and got the Liao area. On the other hand the later book tells that Chin Ge attacked Chosun and got the same area of Liaodung. This means that Dongho and Chosun were the same country, that is, Dongho was also an another name of calling Chosun.

Key Words : Suksin, Sanyung, Dongho, Gojoseon, East of Liao River, “Sagi”

『역사와융합』 제 2집(2018. 6)

조선왕조 말 개성상인 농업회계

허 성 관(전 광주과학기술원)

－ 차 례 －

- I. 머리말
- II. 박영진가 기업 농지 거래
- III. 연백조가 계정 수익과 비용
- IV. 연백조가 계정 결산과 소유주 인출
- V. 연백조가 계정에 반영된 경제 실상
- VI.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등록 문화재 587호로 지정된 박영진가의 ‘개성상인 복식부기 장부’ 중에서 농업경영 회계를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1896년 9월 16일부터 1910년 9월 15일까지 이며, 분석 대상은 연백조가(延白租價) 계정이다. 연백조가 계정에 의한 박영진가 기업 농업경영은 소유주로부터 수탁영농이었다. 연백조가 계정은 차변에 비용을 대변에 수익을 복식부기로 원리에 따라 기록했다. 순이익을 대차 대조표에 독립된 연백조가 계정으로 보고한 다음, 같은 연도 또는 이후 연도에 손익계산서로 이체했다. 순이익으로 소유주에게 농지를 구입해주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소유주 인출로 회계처리했다. 수익과 비용을 현금기준으로 인식했다. 이

는 오늘날 발생주의 원칙과는 차이가 있으나 복식부기 원리에 반하지는 않는다.

농지는 당시 토지대장인 양안(量案) 내용을 반영해서 거래함으로써 오늘날보다 내용이 정밀했고, 계약이 모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가 없을 정도였다. 토지 면적은 결부법과 파종량 기준을 병용했다. 연백조가 계정 순이익율이 높아 당시 벼농사 수익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지 투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용을 감안하면 투자수익율은 미이너스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비를 농업 노동자로 상시 고용하고 계약한 고정 임금율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작황 풍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임금계약에 동기유인과 위험분담 효과를 반영하였다.

박영진가 기업 장부 농업회계는 20세기 전후 조선 경제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1895년 갑오경장으로 노비가 해방되었으니 현실에는 노비가 상존하고 있어 노비를 경작 노동자로 고용하였다. 임금율과 벼 가격이 시차를 두고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어 시장을 전제로 농업을 경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농업 노동자에게 현물 대신 화폐로 임금을 지급해서 당시 농촌지역에도 화폐경제가 정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조선 농업회계, 개성상인 복식부기 장부, 연백조가, 결부법, 농자거래, 농부 임금율, 벼 가격, 화폐경제

I. 머리말

등록문화재 587로 2014년 2월에 지정된 개성상인 박영진가 장부에 대해 Jun, Lewis, and Huh¹⁾와 정기숙²⁾은 거래 자료 흐름과 기장형식을 분석하여 이 장부가 복식부기라고 결론을 내렸다. 허성관은 이 장부 1894 회계연도 회계순환과정(분개 전기 결산) 전체를 분석하여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 원리를 준수한 복식부기임을 확인했다.³⁾ 허성관은 회계순환과정 전체 자료가 이용 가능한 1893-1899 회계연도 7년 동안 회계처리 방법의 변화를 고찰하여 서양 복식부기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복식부기임을 밝혔다.⁴⁾

허성관은 1896-1905 회계연도 10년 동안 박영진가 주 사업이었던 인삼사업 회계가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개별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현대 자본주의적 사고가 구현된 회계임을 확인했다.⁵⁾ 이 장부는 회계순환과정 전체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복식부기 장부다. 서양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이다.

특히, 허성관은 박영진가 장부가 기회비용인 자기자본비용을 명시적으로 인식했고, 사내이전가격에 시장가격을 적용했으며, 상생경영을 실천했고, 위험을 감안하여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했다.⁶⁾ 개성상인의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적인

1) Jun Seong Ho · James B. Lewis · Sung Kwan Huh, Korean Double-entry Merchants Accounts from City (1786-1892),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Vol.13 No.2), 2013.

2) 정기숙, 「사개송도치부법의 기장원리와 장부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 전통회계와 내부통제 시스템 II』, 민속원, 2011.

3) 허성관, 「박영진가의 19세기 사개송도치부 장부 회계순환 구조」, 『회계저널』 제24권제2호, 한국회계학회, 2015.

4) 허성관, 「박영진가의 19세기 복식부기 장부 회계처리 방법의 진화」, 『경영학연구』 제45권제3호, 한국경영학회, 2016.

5) 허성관, 「박영진가 복식부기 장부의 20세기 정후 삼포(蔘圃)회계와 현대적 경영 사고」, 『경영학연구』 제46권제4호, 한국경영학회, 2017.

6) 허성관 2016년과 2017년 논문.

회계처리는 세계 최초다. 연구 결과는 조선이 일제강점기에 근대화와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는 경제사학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反證)이다. 돈과 관계된 경제활동은 회계상 거래로서 모두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장부에 나타난 회계처리는 그 당시 경영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이기 때문이다.

박영진가 사업분야는 금융, 상품매매, 인삼재배, 농업, 토지 매매 등이다. 상품에는 포목, 소금, 곡물, 인삼, 건어물, 은, 혼수용품(패물), 석유, 엽연초, 누룩(曲子 곡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영진가는 개인기업(proprietorship)⁷⁾이다. 그러나 상품매매, 인삼재배, 농업에서는 도중(都中)을 결성하여 사업하기도 했다. 도중은 박영진가와 타인이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이다. 각 도중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박영진가 장부에 개별 계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중은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이지만 보고실체(reporting entity)는 아니다. 주로 거래액이 소요되고 위험이 큰 사업은 도중을 결성하여 실행했다. 인삼포(人蔘圃)는 모두 도중을 결성하여 경영했다. 상품매매는 일부만 도중을 결성해서 사업했다. 농사만 짓는 경우에는 도중을 결성하지 않고 농업과 상품매매를 매매를 병행한 경우에는 도중을 결성했다.

박영진가 사업 분야는 각기 거래 관행, 대금 결제, 사업 여건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영진가 복식부기 장부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회계처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 거래 실상을 파악하면 당시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허성관은 인삼포 경영을 심도있게 고찰하여 19세기 말에 개성상인이 현대 자본주의적으로 사고했

7) 조선이 회사제도를 도입된 해는 1883년이다. 당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인가를 받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통리아문일기에는 1883년부터 1894년까지 설립된 회사들이 기록되어 있다(윤근호 1984). 박영진가 장부 재무제표인 주회계(周會計)는 손익을 계산한 다음 소유자 인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기업이 명백하다.

음을 밝혀냈다.⁸⁾ 전성호는 박영진가 자금거래를 분석하여 당시 신용경제가 정착되어 있었고, 장기간 안정된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융통했음을 확인했다.⁹⁾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별 사업 분야에서 당시 개성상인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선진적으로 경영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일제강점기 전에 복식부기로 기록한 농업회계 장부는 박영진가 장부가 유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박영진가 복식부기 장부에서 도중을 결성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농사지는 회계를 분석한다. 박영진가 기업은 김홍열, 윤공열, 한순용과 각각 도중을 결성해서 농업을 경영한 것으로 장부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들 도중은 농업 보다는 오히려 상품매매가 주업종이었고, 농업 관련 회계기록이 미미하고, 상품매매와 농업회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 농업회계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정한 농업회계를 기록한 연백조가(延白租價)¹⁰⁾ 계정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토를 어떻게 마련했으며, 어떤 부류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어떤 형태로 임금을 받았으며,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인식했고, 농업 이익을 어떻게 계산했으며, 기업과 소유주가 이익을 어떻게 처분했으며, 장부에 나타난 당시 농업경제 실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박영진가 농업회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개성상인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 범위를 넓히게 되어 한국 회계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농업회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¹¹⁾ 농업이 국가의 주된 산업이었던 조선왕조 말 농업경영에 관한 거래들을 본 연구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거래에 반영된 당시 농업경제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적 거

8) 허성관, 「박영진가 복식부기 장부의 20세기 정후 삼포(蔘圃)회계와 현대적 경영 사고」, 2017.

9) 전성호, 「개성시변제도 연구 - 개성상인 회계장부 신용거래 분석(1887-1900)」, 『대동문화연구』 Vol. 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1.

10) 연백은 황해도 곡창지대인 연안(延安)과 백천(白川) 지역을 줄인 표기로 보이고, 조가(租價)는 버 값이라는 뜻이다.

11) 한국회계학회 기관지인 「회계학연구」와 「회계저널」에 농업회계에 관한 논문이 게재된 적이 없다.

래는 궁극적으로 모두 회계에 집약되기 때문에 이 연구는 경제사 연구에서 회계 자료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조선조 우리 농업회계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기초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박영진가 기업 농지 거래

2.1 농지 거래와 영농 형식

박영진가 기업 복식부기 장부 기록에서 분개장인 일기장, 총계정원장 중에서 자산 계정을 모은 외상장책(外上帳冊)과 자본과 부채 계정을 모은 타급장책(他給帳冊), 재무제표인 주회계책(周會計冊)이 완비되어 있는 기간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박영진가 기업 장부 종류와 기록 기간¹²⁾

장부 명칭	기록 기간	쪽 수
일기장	1887년 8월15일 - 1912년 4월15일	814
외상장책	1887년 8월15일 - 1901년 4월15일	68
타급장책	1887년 8월15일 - 1901년 4월15일	46
주회계책	1892-1907, 1910-1911, 회계집작초 1897 결락	39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회계순환과정 전체에 대해서 장부가 완비된 기간은 1892 회계연도부터 1896 회계연도까지 5년이다.¹³⁾ 본 논문 연구 대상

12) 주회계책에는 대차대조표인 주회계(周會計)와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합한 회계집작초(會計集酌抄)가 포함되어 있다. 주회계는 회계연도별로 작성되었는데 9월16일부터 다음 해 9월 15일까지가 회계연도이다. 예를 들어 1895회계연도는 1894년 9월16일부터 1895년 9월15일까지 기간이다.

13) 별도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연구에서 연도는 회계연도이다.

인 연백조가 계정은 1897년에 개설되어 1911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이 계정 회계 순환과정 전체 기록이 완전한 연도는 1897년부터 1900년까지 4년이다. 나머지 연도는 일기장을 중심으로 기록을 복원하여 연백조가 계정 회계순환과정을 분석할 수밖에 없다.

박영진가 농지거래를 설명 편의를 위해 박영진가 기업과 소유주로 나누어 살펴보자. 기업이 농지를 구입하여 소유주에게 넘기면 회계에서 소유자 인출(withdrawal)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실현한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해주는 대신에 농지를 구입하여 소유주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박영진가 장부에는 기업이 매입한 토지를 매입한 연도 또는 시차를 두고 모두 소유주 인출로 회계처리했다. 박영진가 장부는 기업 장부이기 때문에 소유주 개인의 농지 매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박영진가 기업 장부에는 1889년 12월 29일 최초로 농지를 매입한 이후 연백조가 계정이 개설되기 전인 1895년 4월 1일까지 7차례 합계 28,887.50량을 지급하고 농지를 매입했다. 이 농지들은 1895년까지 소유주 인출로 처리했다. 연백조가 계정이 개설된 해에도 농지를 2,500량에 매입했으나 소유주 인출 여부는 이 연도 회계집작초가 결락되어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나 주회계에 해당 농지가 자산으로 보고되지 않아 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백조가 계정 수익은 4지역(백천 묵동, 연안 만화동, 연안 성후, 연안 벽당) 농지 수확인데 연백조가 계정 개설 이전에 이들 지역 농지를 박영진가 기업이 매입한 기록이 장부에 없다. 기업이 보유한 농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백조가 계정은 1897년 개설 초년에 8,213.10량, 1898년에 12,869.90량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박영진가 기업 소유주가 영농을 위탁한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농업경영 형식은 2016년에 허성관이 밝힌 공자동과 승하동 계정과 유사하다. 공자동과 승하동은 기업에 현금을 맡기고 기업은 자신의 판단으로 이 자금으로 농지를 사서 임대하거나 농사를 지어 이익을 실현하여 매 결산시에 이

익을 공자동과 승하동 계정에 가산했다.¹⁴⁾ 연백조가 계정은 자금 대신 농지를 만
긴 경우이다. 1970년대까지도 우리 주위에서 지인에게 재산을 맡겨 증식하는 이
런 거래를 흔히 볼 수 있었다. 박영진가 기업 입장에서는 수탁경영이지만 오늘
날 이 거래는 투자신탁에 해당한다. 이 거래가 오늘날 투자신탁과 다른 점은 원
금 보장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위탁자 입장에서는 농사만 위탁하고 농지는 위탁
자 소유이기 때문이다.

2.2 농지 매입 거래 회계처리

농지매매 기록은 조선조 관청에 비치된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기재된 내용
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 대표적인 농지 매입 분개를 보자.

壬寅五月二十四日 買得白川黔洞無九上二里所付涇字畓十五斗落只結十八卜二

夜味庫價趙麟煥 給文三千五百兩 下

위 분개에서 임인5월 24일(壬寅五月二十四日)은 1902년 음력 5월24일 거래임
을 표시한 것이다. 매득(買得)은 자산을 매입한 계정과목 명칭이다. 백천묵동무
구상2리(白川黔洞無九上二里)는 농지 소재 마을 이름이다.¹⁵⁾ 소부(所付)는 양안
에 이 농지가 이곳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다. 경자답(涇字畓)은 논(字)의 자형(字
型)이다. 자형은 농지면적 5결(結)마다 붙인 농지의 명칭이다. 예를 들면 용인시

14) 공자동과 승하동 계정에서는 취득한 농지가 박영진가 기업 소유인 반면 연백조가 계정에는 농지
가 없다. 연백조가 계정은 일종의 위탁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동과 승하동 계정 잔액에 대해
서 연 15% 자본비용을 지급이자로 인식했으나 연백조가 계정 잔액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용을 인
식하지 않았다. 이는 박영진가 기업이 연백조가 계정에 투자한 농지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15) 마을 이름 다음에 지번(地番)이 명기된 경우도 있다.

양지면에 농지 합계가 6천 결이면 기준점을 정해 첫 5결은 천자문 순서에 따라 천자결(天字畝), 그 다음 논 5결은 지자결(地字畝) 등의 순서로 명명하 것이다.¹⁶⁾ 각전답문기등록에는 매입한 이 농지와 인접한 동 서 남 북 농지 소유자 또는 지형 특성을 기록한 4표(標)가 부기되어 있다.¹⁷⁾ 조선조 농지매매에서 농지 위치는 마을, 자형, 지번, 주위 농지 주인과 지형 특성을 적시하여 위치가 모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토지매매는 지번만 표시하고 자형과 사표는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조 토지매매 계약이 지금보다 더 정밀했다. 밭(田) 면적은 소가 밭을 갈아엎는데 걸리는 시간으로도 면적을 표시했다.¹⁸⁾

십오두락지(十五斗落只)는 벼 종자 15말을 파종하는 면적이라는 표시이다. 두락지는 이두인데 우리말로 마지기로 읽는다. 파종하는 종자가 석(石, 1석=20두)인 경우는 십지기, 되(升, 1두=10승)면 되지기이다.¹⁹⁾ 이 용어는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 파종량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단위이다.²⁰⁾ 결십팔복(結十八卜)은 생산량 기준 면적 표시이다. 조선조 생산량 기준 면적단위는 파(把), 속(束), 부(負), 결(結)인데 모두 이두이고 우리말로써는 줌, 뭇, 짐, 결로 각각 읽는다. 10줌

16) 천자문 마지막 글자인 야(也)자를 붙이고도 남은 논은 다시 천(天)으로 시작하는데 이 때는 천자 앞에 재(再)를 부기하여 남은 논 첫 5결은 재천자답(在天字畝)으로 시작한다.

17) 위 분개 각전답문기등록 기록에는 四標則東趙進士畓南小渠西北京人畓等庫(사표측동조진사답남 소거서북경인답등고)가 부기되어 있다. 사표측(四標則)은 인접한 네 방향, 동조진사답(東趙進士畓)은 이 논 동쪽에 조진사 논이 있고, 남소거(南小渠)는 남쪽에 작은 도랑이 있으며, 서북경인답(西北京人畓)은 서쪽과 북쪽에는 서울 사람 논이 있다는 의미다. 등고(等庫)는 '등이 있는 곳'이라는 표현인데 고(庫)는 곳을 이두로 표기한 것이다.

18) 소가 밭을 가는 것이 경(耕)인데 하루갈이는 1경, 한나절 갈이는 반일경(半日耕), 새벽부터 아침 먹을 때까지 갈아할 수 있는 면적이 전일경(前日耕)이다.

19) 이두(吏讀) 표기를 우리말로 읽는 원리는 본 연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한다. 그러나 우리 전통회계에는 이두 표기가 많기 때문에 이두 지식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두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문헌으로는 장지영*장세경(1976), 홍기문(1957), 신채호(1924) 등을 들 수 있다.

20) 현재 1마지기는 200평이나 1십지기는 4,000평이다. 이 내용은 벼 1말로 논 200평에 파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마지기가 생산량 기준 면적 보다는 단순히 200평으로 인식되고 있다.

=1몫, 10몫=1짐, 100짐=1결이다. 복(卜)과 부(負)는 같은 단위이고 모두 짐으로 읽는다. 위 분개에서 15마지기는 생산량 기준으로 18짐이라는 뜻이다. 수확량은 농지 비옥도와 작황 풍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선조 세종 때 농지 비옥도와 작황 풍흉에 따라 토지 등급을 9등급²¹⁾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표준 수확량을 정한 다음 기본적으로 1결당 쌀 20말을 세금인 전세(田稅)로 징수했다. 결 짐 몫 줌으로 면적을 정한 방식이 소위 결부법(結負法)이고, 이 기준이 과세표준이었다.

위 분개에서 야미(夜味)는 배미를 이두로 표기한 것이다. 배미는 지금도 농촌에서 널리 쓰고 있는 용어다. 논이 한 곳에 붙어 있으면 1배미다. 예를 들어 필자 고향에서 ‘웃골에 있는 2마지기 한 배미’라고 하는데 2마지기가 웃골 한 곳에 모여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위 분개의 경우 2배미이므로 15마지기가 두 곳에 모여 있다는 말이다. 이 농지를 조인환(趙麟煥)에게 3,500량을 지급하고 매입했다. 하(下)는 현금을 지급했다는 분개 기호이다. 이 분개는 ‘買得 백천무구동 답 3,50022)량/현금 3,500량’으로 ‘자산 증가/자산 감소’ 거래이다.

III. 연백조가 계정 수익과 비용

연백조가 계정은 자본과 부채 계정인 급치질에 속하는데 기업에 투자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 계정이 아니다. 연백조가 대변은 수익을, 차변은 농사 비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 결과 대변잔액은 당해연도 연백조가 계정 손이익이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박영진가가 사업 분야별로 손익을 계산한다는 허

21) 조선 세종 때(1444년) 농지의 과세표준을 매년 공무원들이 작황을 조사하여 정하는 손실답험법(損實踏驗法)에서 공법(貢法)으로 바꾸었다. 공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에서 농지를 9등급으로 나누었다.

22) 토지매매를 각전답문기등록에 기록할 때 금액 표기에 사용한 한자가 壹(1), 貳(2), 參(3), 肆(4), 伍(5), 陸(6), 柒(7), 捌(8), 玖(9)로서 특이하다.

성관(2015) 결과와 일치한다.²³⁾

3.1 수익 인식

연백조가 계정 수익은 당연히 수확물이다. 농지가 대부분 논이기 때문에 벼가 주종이고, 밭도 있기 때문에 밭작물 수확도 포함되어 있다. 수확물 종류는 벼(租), 찹쌀(粘米 점미) 기장(稷稈), 메밀(木麥 목맥), 밀(眞麥 진맥), 차조(粘租 점조)이다. 연안 만회동 소재 논에서 수확한 벼를 수익으로 계상한 분개 예는 다음과 같다.

庚子十二月十日 延安入晩花洞正租一百四十石 ㄹ0式尹兢烈區來金允明推次換

一萬二千六百兩 上

壬寅九月十七日 延安入辛丑條晩花洞打租五石十九斗內種租三石五斗除二石

十四斗 ㄹ 貳式四百八十六兩 上

첫째 분개는 경자(庚子, 1900년)년 12월 10일 연안 만화동(延安晩花洞)에서 생산한 벼(正租 정조) 140섬을 섬 당 90량(ㄹ0式) 합계 12,600량에 윤곡열로부터 김윤명이 발행한 환어음(尹兢烈區來金允明推次換)을 받고 인도한 거래이다.²⁴⁾

23) 박영진가 장부는 사업 분야별로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고 손익을 계산하여 대차대조표에 보고했다. 예를 들면, 백목조(白木條) 계정은 포목거래 손익을, 염좌여(鹽座餘) 계정은 소금 거래 손익을, 경환태가(京換駄價) 계정은 서울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손익을 대차대조표인 주회계에 각각 보고하는 계정이다(허성관 2015). 그러나 개별 계정에서 손익을 계산한 다음 손익계산서인 회계집작초에 해당 계정의순손익만 보고하기도 했다(허성관 2016). 이러한 결산 보고는 오늘날 부문별 보고(segmental reporting)와 동일하다.

24) ㄹ0式에서 ㄹ은 9를 호산(胡算)으로 표기한 것이다. 호산은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기 전 한자와 병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표기법이다. 1부터 9까지 호산 표기는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이고, 10은 十, 20은 廿, 30은 卅이다. 식(式)은 '개당 얼마 씩'에서 씩에 해당하는 이두 표기로서 오늘날 @에 해당한다. 박영진가 장부에서 '식'은 1,000 단위가 기본이므로 ㄹ0式은 90량을 의미한다. 구래(區來)는 받았다는 의미로, 구송(區送)은 주었다는 의미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推次換(추차환)은 받을어음이다. 둘째 분개는 임인(壬寅, 1902년)년 9월 17일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벼 5섬 19말 중에서 종자 3섬 5말을 제외한 2섬 14말 값 486량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분개이다. 辛丑條(신축조)는 이 벼가 1901년에 생산된 것이라는 의미다. 打租(타조)²⁵⁾는 농지 소유자와 소작인이 수확량을 1/2씩 나누기로 계약한 소작에서 받아들인 벼를 의미한다. 內(내)는 분개 기호로서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는 표시인데 여기서는 種租(종조)로 표시한 종자가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표시한 부호다. 卜式에서 卜는 18의 호산 표기로서 섬 당 단가가 180량이다.²⁶⁾ 위 분개 형식은 ‘.....入.....上’으로 오늘날의 분개 ‘현금...../수익....’에 해당한다.

위 분개에서 박영진가 기업은 1900년에는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나 1901년에는 타조법으로 소작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수확량을 볼 때 만화동 소재 농지 전체를 소작 준 것은 아니고 일부만 소작 준 것으로 보인다. 소작도 장기가 아니고 단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같은 지역 수익 분개에서 1903년에는 ‘타조’라는 용어가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어음을 받았지만 현금 수취와 동일하게 상(上)으로 분개해서 동일 자 현금시재가 증가한 것으로 기록했다.²⁷⁾ 박영진가 기업은 수확이 끝나면 바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현금화 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했다. 만화동 농지 1901년 수확을 1902년에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이 현금화 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했음이 확실하다. 수확량 중에서 종자를 제외하고 수익으로 인식했는데 이는 수익을 순액법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허성관(2015, 2016)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종자를 외

25) 조선조 말 소작제도는 수확량을 반분하는 타조법(打租法)과 수확량에 관계없이 소작인이 정해진량을 농지 주인에게 주는 도조법(賭租法)이 있었다. 도조법은 도지법(賭地法)이라고도 한다. 수확량을 농지 주인과 소작인이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는 경우도 있었다. ‘타조’라는 용어 대신에 1/2을 의미하는 一半(일반)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26) 1년 사이에 벼 1섬 값이 90량에서 180량으로 올랐다. 벼 값 변동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7) 박영진가 장부에는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계정이 없고, 어음 액면 금액 만큼 현금 시재를 가감하고 있어 어음과 현금을 동일시 하고 있다. 신용을 소중하게 여긴 개성상인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다.

부에서 구입한 경우와 벼 매각 소개비는 비용으로 인식했다.

주된 수익인 벼를 도정하여 쌀을 판 경우도 있었다. 다음 분개를 보자.

戊申九月四日 延安碧塘入正租九石五斗作米五石三斗五升價 川 一 八 式內春工 久
十除姜成浩放 一千八百二十兩 上

무신년(戊申年 1908년) 9월4일 연안벽당(延安碧塘)에서 수확한 벼 9섬 5말을 도정한 쌀 5섬 3말 5되를 섬당 365(川 一 八)량에 도정비용 90량을 제(久十除)하고 강성호에게 현금 1,820량에 매각한 거래다. 作米(작미)는 도정을 의미하는데 이두 표기이고 우리말로 ‘질미’로 읽는다.²⁸⁾ 春工(춘공)의 정확한 의미는 전거를 찾을 수 없으나 도정 관련 비용으로 보인다. 放(방)은 매출을 의미하는 분개 부호이다.

벼를 장리(長利) 놓아 수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1907년 3월 4일 장리 놓은 거래를 다음과 같이 분개했다.

延安貸去晚洞租長利條三石價右宅給文四百九十五兩 下

이 분개는 만동에서 수확한 벼(晚洞租 만동조)를 장리조로 3섬(長利條三石)에 상당하는 495량 내어 주고 연백백조가 계정 차변(延安貸去 연안대거)에 분개한 거래다. 거래 상대방을 우택(右宅)으로 표시했는데 피교택(皮橋宅)이다. 박영진 가 장부가 세로쓰기이고 이 분개 바로 오른쪽에 피교택(皮橋宅)과 거래가 분개되어 있어 상대방이 피교택임을 알 수 있다. 이 거래를 피교택 계정에서 확인할

28) 조선조 숙종 34년(1708)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대동법(大同法)은 토지 소유량 기준으로 공납을 쌀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대동법은 당시 공납의 폐해를 시정할 획기적인 세제개혁이었다. 이 개혁 효시는 선조 27년(1594)에 유성룡(1542-1607) 건의로 시행된 作米法이다. 오늘날 모두 작미법으로 읽지만 ‘질미법’이 바른 독음이다.

수 없는데 박영진가 장부 총계정원장이 1901년까지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개에서 장리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개장에서 이 장리를 회수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백조가 495/현금 495’로 분개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 감소/현금 감소’로 분개한 다음 회수되면 ‘현금 증가/수익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유추된다.²⁹⁾

3.2 비용 인식

연백조가 계정의 비용항목은 다양하다. 농부 임금, 종자 대금, 토지세인 결납(結納), 관개용 보(洑) 사용료, 논을 갈이할 때 소 고삐를 잡아주는 사람에 대한 임금인 두본(斗本),³⁰⁾ 벼를 실어 나를 때 포구 사용료와 운임, 벼 섬을 쌓을 때 지급한 조적비(租積費), 의비(義費)로 기록한 기부금 등이다. 연백조가 계정에서 과대 또는 오류로 기록한 수익을 돌려주는 환출은 차변에, 비용을 돌려받는 환입은 대변에 기록했다. 자기 농지에서 생산된 벼를 종자로 쓰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만큼 수익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외부에서 종자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기록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오늘날 회계와 차이가 있으나 복식부기 원리에 반하지는 않는다.

주된 노동력인 농부에 대해서 농지가 소재한 4곳에 각각 1년에 한 번 수확 후

29) 박영진가 장부 분개에서 현금수입은 위로 현금지급은 아래로 표시했고, 이 관행은 현병주(1916)와 일치한다. 이 분개에서 벼 3섬을 주었는지 3섬 상당 금액인 495량을 현금으로 지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거래가 발생일 현금시재에 495량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리는 현물 거래이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시재에 반영했다면 박영진가 기업이 현금과 벼를 동일시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어음과 현금을 동일시한 것과 같다. 박영진가 장부는 금융거래 이자를 발생주의 원칙(accrual accounting)에 따라 기록했다(허성관 2015). 연백조가 계정은 현금주의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리 분개 예는 박영진가 장부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0) 斗本은 논 밭을 갈 때 갈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소나 말의 고삐를 잡아주는 사람을 고용하고 지급하는 임금이다. 박영진가 연백조가 계정에서는 지급한 두본 뿐만 아니라 수취한 두본도 있다. 수취한 두본은 유희 노동력을 활용한 결과이므로 수익으로 인식했다. 이는 수확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년 단위로 농부를 상시 고용한 결과이다.

에 임금을 지급하고 분개했다. 연백조가 계정 농지 소재지는 4곳이고, 농사를 지은 노동자는 松靑奴(송청노) 北部奴(북부노) 蓬村奴(봉촌노) 東部奴(동부노)로서 노비들이다. 다음은 1900년 12월 29일에 임금을 지급한 분개 중 하나이다.

延安松靑奴福石結一口五十九卜加四卜八束合 | ㄴ ㄴ ㄴ 束 | 8 式文四百九兩五

錢 下

연안 송청(延安松靑)에 거주하는 노복(奴福)에게 수확량 기준 면적(石結 석결) 1결(口) 59짐(卜)에 4짐 8몫(束)을 더한 1,638몫에 대해 1 몫 당 0.25량씩 합계 409.50량을 지급했다는 분개이다. 결은 한문으로 結이지만 박영진가 장부는 口(구)로 표기하고 있다. 짐의 이두 표기는 負(부) 또는 卜(복)인데 박영진가 장부는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몫의 이두 표기가 束(속)이다. 호산으로 | ㄴ ㄴ ㄴ 은 1,638이고, | 8 는 25이다. 1결=100짐, 1짐=10몫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1,638몫이고 1몫 당 0.25량으로 계산해서 409.50량을 임금으로 지급한 거래이다.

이 분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노비를 고용해서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 노비에는 외거노비(外居奴婢)와 솔거노비(率居奴婢)가 있었다. 외가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주인에게 정해진 신공(身貢)만 바치는 노비이다. 솔거노비는 주인과 같이 살면서 독립된 생계를 꾸리지 않고 노역을 담당한 노비이다. 위 분개에서 노비는 박영진가 노비가 아니고 타인의 외거노비이다. 왜냐하면 박영진가 노비이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외거노비일 가능성이 크지만 솔거노비일 수도 있다.³¹⁾

위 분개에서 노동자인 노비가 담당한 농자 면적이 과세표준인 수확량 기준으

31) 김용섭(2007)에 의하면 솔거노비도 가내 노역이 많지 않으면 주인 명에 따라 임금노동자로 일했다.

로 1,590뭇인데 여기에 48뭇을 더한 1,638뭇에 대해 뭇 당 0.25량을 적용해서 임금을 계산해 주었다.³²⁾ 이는 실제 수확량이 과세표준 수확량보다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과세 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災減(재감)으로 표기하고 임금을 줄여 지급했다. 예를 들어 1902년 12월30일 연안 동부 노복에게 지급할 임금은 $479\text{뭇} \times 0.25\text{량} = 119.75\text{량}$ 이나 재해로 98뭇을 뺀 $381\text{뭇} \times 0.25 = 95.25\text{량}$ 을 실제로 지급했다. 이런 임금 지급은 근로자에게 동기(incentive)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가항력인 재해로 인한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인데 동기부여와 위험 분담이라는 현대적 경영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1970년대에도 한국 농촌에서는 상근 농업 노동자인 머슴 임금을 ‘새경’이라는 명칭으로 현물로 지급했다. 그러나 연백조가 계정은 개설 초년인 1897년부터 농업 노동자 임금을 화폐로 지급했다. 복식부기인 박영진이 장부 존재 자체가 당시 조선에 화폐경제가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농업 노동자 임금을 화폐로 지급했다는 연백조가 계정은 조선 농촌 사회에까지 화폐경제가 일반화 되어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연백조가 계정 비용 항목으로 임금 외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結納(결납)과 義費(의비)이다. 결납은 농지에 대한 세금이다. 박영진이 장부는 1902년 5월 11일에 결납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기록하고 있어 순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했다. 그러나 1905년부터 1907년 1월15일까지 5회 납부한 결납은 연백조가 계정 차변에 비용으로 분개했다.³³⁾ 예를 들면 1910년 10월25일에 다음과 같이 분개했다.

黙洞結趙聖贍擔納條并三口四十四卜六束 卅 三 三 8 式趙聖五給文

32) 과세표준 수확량보다 임금을 더 주는 경우에 加(가)외에 加并(가병) 또는 後錢(후전)으로도 표기했다.

33) 결납은 농지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박영진이 장부에 5회 납부한 기록만 있는 것은 당시 제도와 맞지 않다.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一千三百三十七兩五錢七分 下

이 분개는 조성섬이 책임을 맡고 있는(趙聖瞻擔 조성섬담) 묵동(默洞) 지역 농지 합계 3결44짐 6뫇(并三口四十四卜六束)에 대해 짐(卜 북) 당(式 식) 3.885(卅三三 8)량 합계 1,337.57량 농지세(結...納)를 납부하도록 마름³⁴⁾인 조성오(趙聖五)에게 현금을 지급한 거래이다. 박영진가 장부에 농지세 납부 기록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 분개는 짐 당 3.885량이 세율임을 보여주는 박영진가 장부 유일한 기록이다.³⁵⁾ 농지세도 현물이 아닌 금납이었다. 義費(의비)는 의연금으로 일종의 기부금이다. 1907년 11월9일부터 1908년 12월15까지 기간 동안 묵동에 3회 3,300량, 만화동에 1회 200량을 의비로 지급했다.

IV. 연백조가 계정 결산과 소유주 인출

4.1 연백조가 계정 결산

연백조가 계정 분개는 거래 이중성과 대차평균 원리를 준수하고 있는 복식부기이다. 연백조가 계정이 총계정원장에 존재하는 마지막 회계연도인 1900년 결산은 다음 <표 2>와 같다. 1897년부터 1899년까지 3년 동안 연백조가 계정 당 기준이익 8,213.10량, 12,869.90량, 7,711.36량으로 합계 28,794.36량이 손익 계산서 대신에 주회계에 전년이월로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0년 총비용이

34) 마름을 이두로 畝音(사음)으로 적고 우리말로 마름으로 읽는다. 각인전답문기등록에 조성오가 묵동 농지 마름으로 표시되어 있다.

35) 1907년(광무 11년)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전부고(田賦考)〉 의하면 정조(正祖) 때 결납 세율이 벼 1섬에 2량이었는데 이를 짐(負) 당 3.885량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과세표준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817.70량이고 총수익은 4,912.80량으로 당기순이익이 4,095.10량이다. 여기에 이월된 당기순이익 누계 28,794.36량을 더한 32,889.46량이 1900 회계연도 말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이월되었다. 이 총계정원장 기록은 일기장 기록과 일치하기 때문에 박영진가 기업 연백조가 계정 거래 분개가 정확하게 전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1900년 연백조가 계정
(1899년 9월16일부터 1900년 9월15일까지)

	차 변	(량)		대 변	(량)
1899 11.24	두본(斗本)	260.00	1899 9.15	전년이월 누계	28,794.36
12.30	송청노 임금	245.70	10. 1	만화동 조(租)	785.30
	봉춘노 임금	73.20	2. 5	목동 조	1,600.00
	북부노 임금	164.70	1900 1. 3	목동 조 잔금	862.50
1900 1. 3	동부노 임금	74.10	윤 8. 6	벽당 조	665.00
			9. 1	성후 조 선금	1,000.00
				합 계	33,707.16
	합 계	817.70		차감:차변 합계	(817.70)
				차년이월	32,889.46

1901년부터 연백조가 계정이 총계정원장에 없고, 주회계책도 1908년과 1909년은 결락이지만 연백조가 계정은 분개장인 일기장 기록과 주회계책 기록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총계정원장이 없는 1910년 연백조가 계정을 복원한 결과가 다음 <표 3>이다. 1910년 중에 총수익이 36,380.75량 비용이 4,137.35량으로 당기순이익은 32,243.40량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동 만동 성후 벽당 4곳 수확이 현금화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했다. 전년도 말까지 소유주가 인출하지 않았거나 손익계산서에 보고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에 보고한 누적 순이익 83,497.92량에 당기순이익을 가산한 115,741.32량 중에서 114,061.42량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보고하고 대차

대조표에는 잔액인 1,679.90량을 보고했다. 손익계산서에 보고한 금액은 결국 소유주 인출로 회계처리하지만 장부 마지막 연도인 1911년까지도 이 금액을 소유주 인출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차변에 기록한 비용은 임금, 배 운임, 벼를 운송하기 위해 포구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色租(색조)³⁶⁾이다. 색조는 정부에서 환곡이나 조세를 받아 들일 때 여러가지 명목으로 덧붙여 받는 곡식이다. <표 3>에서 색조는 묵동과 벽당 농지에서 각각 받은 벼 2섬 6말과 4말을 돌려준 경우인데 소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목민심서(牧民心書)』에 의하면 색조 형태로 받아들이는 명목이 많아 그 량이 원본을 초과할 정도로 심각해서 백성을 수탈하는 수단이었다. 연백조가 계정에서 어떤 연유로 색조를 받고 돌려주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박영진가 장부에 나타난 경영윤리인 상생경영(허성관 2017)과는 상치되는 기록이다.

36) 色租는 이두 표기인데 '빚벼'로 읽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표 3] 1910년 연백조가 계정
(1909년 9월16일부터 1910년 9월15일까지)

단위 : 량

	차 변	(량)		대 변	(량)
1909			1909		
9.16	포구(浦口) 관련 비용	188.00	12. 6	목동 租	3,635.25
	목동 조 색조(色租)	328.00		만화동 벽당 성후 租	16,892.50
	목동 조 배 운임	500.00	1910		
12.16	목동 조 배 운임	60.00	2.14	목동 서호 租	13,493.00
1910			3.10	참쌀 1섬	217.50
3.10	목동 노 임금	1,085.75	9. 7	만동 租, 차조 1섬	2,141.50
5. 7	목동 서호 배 운임	424.00		수익 합계(B)	36,380.75
6.12	송청노 임금	683.75		차감:비용 합계(A)	(4,137.35)
	북부노 임금	458.35		당기순이익(A-B)	32,243.40
	봉춘노 임금	203.05		가산:전년이월	83,497.92
	동부노 임금	206.50		누적 순이익	115,741.32
	비용 합계(A)	4,137.35		차감:회계집작초 이체	(114,061.42)
				차년 이월	1,679.90

다음 <표 4>는 연백조가 계정 연도별 당기순이익을 정리한 것이다. 연백조가 계정이 총계정원장 중 부채와 자본 계정을 모은 급차질(給次秩)에 1900년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1901년 이후 통계는 분개 기록에서 비용과 수익을 집계하여 산출한 것이다. 연백조가 계정 당기순이익 합계는 1897년부터 1911년까지 15년 동안 315,181.65량이었다.

[표 4] 연백조가 계정 연도별 당기순이익

단위 : 량

연도	대변(수익)	차변(비용)	당기 순이익
1897	9,039.10	826.00	826.00
1898	13,787.60	917.70	12,869.90

연도	대변(수익)	차변(비용)	당기 순이익
1899	8,874.45	1,163.09	7,711.36
1900	18,040.45	989.50	17,050.95
1901	18,040.45	989.50	17,050.95
1902	12,573.60	2,988.65	9,584.95
1903	14,874.60	2,686.70	12,187.90
1904	38,491.40	4,728.10	33,763.30
1905	23,730.00	2,389.80	21,340.20
1906	14,040.00	3,712.80	10,327.20
1907	72,750.00	3,822.90	68,927.10
1908	30,891.45	4,370.74	26,520.71
1909	25,900.90	4,357.70	21,543.20
1910	36,380.75	4,137.35	32,243.40
1911	31,950.75	3,147.47	28,803.28
합계	356,237.85	41,056.20	315,181.65

년평균 수익 대비 순이익율이 88.47%(315,181.65/356,237.85)로서 농업경영이 수익성이 높았던 사업임을 알 수 있다. 15년 동안 노비를 고용하여 경작한 4곳 농지 면적이 변함이 없었다. 연백조가 계정이 개설된 1897년부터 일기장이 남아 있는 마지막 연도인 1911년까지 임금 계산 기준 면적이 송청노는 165집, 봉촌노는 47.3집, 농부노는 47.9집, 북부노는 150.6집으로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연도별로 수익에 큰 차이가 있음을 <표 4>는 보여주고 있다. 매년 수확량이 작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수확 대신 현금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했고, 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연도별 수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장부에 나타난 기록 외에 연도별 수익 차이에 영향을 미친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추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지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순이익율이 떨어질 것이다. 연백조가 계정 기본 자산인 농지 면적과 취득원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박영진가 기업 장부에는 없다. 연백조가 계정이 개설된 이후 매입한 농지 단위당 가격도 큰 차이가 있

다. 1901년에 박영진가 기업이 매입한 농지 짐(負)당 가격이 336량, 465량, 605량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농지 비옥도를 반영한 것으로 유추된다. 임금 지급 기준 농지 면적 합계 410.8짐에 짐당 가격 500량을 곱하면 농지에 대한 투자가 205,400량인데, 정확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투자액에 대한 년 15% 자기자본비용은 30,810량이다.³⁷⁾ 따라서 15년 동안 자기자본비용이 462,150량이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투자수익율이 마이너스이다.

4.2 소유주 인출

박영진가 기업은 연백조가 계정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여 대차대조표인 주회계에 보고하다가 그 중 일부를 손익계산서인 회계집작초로 이체한 다음 회계집작초에서 소유주 인출로 처리했다.³⁸⁾ 회계집작초로 이체되었으나 소유주 인출이 되지 않은 금액은 박영진가 기업 장부에 서 이익의 일부로 이월되었다. 따라서 박영진가 기업 장부는 연백조가 계정 순이익 중에서 소유주에게 인출하지 않은 잔액은 연백조가 계정 잔액에다 회계집작초 이체 금액을 더한 다음 인출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회계집작초에 이체한 금액과 인출한 금액 기록은 다음 <표 5>와 같다.

37) 박영진가 기업은 자본금에 대해서 15% 자기자본비용을 인식하여 결산에서 지급이자로 반영했다. 삼포(삼포)에 대한 투자도 자기자본비용을 인식하여 결산에 반영했다(허성관 2016, 2017).

38) 박영진가 기업 장부는 이익 관련 계정을 대차대조표인 주회계에 별도로 보고하다가 손익계산서인 회계집작초에 이체하는 경우에는 분개하지 않고 대신에 원장 끝에 行剩(행잉)으로 표시했다. 행잉은 '남은 것을 옮긴다'는 의미인데 이두 표기로 보인다. 行剩을 우리말로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전거를 찾을 수 없다.

[표 5] 회계집작초 이체와 소유주 인출

단위: 량

연도	회계집작초 이체	소유주 인출
1902	49,600.00	49,600.00
1904	13,787.60	61,390.00
1906		25,000.00
1910	114,061.42	
1911	356,237.85	14,500.00

1902년 결산시에 연백조가 누적 순이익 중에서 49,600량을 회계집작초에 보고했고, 같은 금액 만큼 농지를 매입해 준 소유주 인출로 처리했으나 49,000량이 연백조가 계정 순이익이라는 구체적인 표시가 없다. 매입한 농지 소재지가 묵동(默洞)으로 연백조가 농지와 같은 지역이나 이 농지 만큼 연백조가 농지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백조가 경작지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1904년 회계집작초에 농지 대금 61,390량을 소유자 인출로 기록했다. 이 인출의 원천은 전액이 연백조가 순이익일 수는 없다. 연백조가 순이익이라는 표시가 없고 각처 매득 전답가(各處買得田畵價)로 명시되어 있고, 1904년 결산 후에 연백조가 계정 순이익 잔액이 61,390량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02년과 1904년 토지 매입에 의한 소유자 인출 중에서 일부는 연백조가 계정 순이익인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명세가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1906년 소유주 인출 25,000량은 연백조가 순이익 현금 인출이다. 1906년 결산에서 다음과 같이 분개하여 소유주 인출로 처리했다.

九月十五日 延白組價還給鉢谷宅用處移錄文二萬五千兩 下

9월15일 延白組價(연백조가) 계정에서 鉢谷宅(발곡댁) 계정으로 25,000량을

지급했다는 분개이다. 여기서 還給(환급)은 ‘부채를 갚다 또는 이익을 돌려주다’는 의미의 분개 표시이고, 발곡택은 소유주 부인의 택호로서 소유주를 의미한다. 用處(용처)는 여러 용도라는 의미지만 소유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한 용어이다. 그러나 대부분 회계연도 결산시에 延白組價還給은 없고 발곡택용처(鉢谷宅用處)라는 명목으로 소유주 인출을 분개했다. 移錄(이록)은 기록을 옮긴다는 뜻으로 25,000량을 연백조가 계정에서 발곡택 계정으로 옮긴다는 표기이다.

1911년 소유주 인출 14,500량은 1905년과 1906년에 매입한 묵동과 만화동 농지 대금을 인출로 처리한 것이다. 1908년 1909년은 주회계책이 없어 회계집착초 이체와 소유주 인출이 바로 확인되지 않고 일기장에도 관련 기록이 없다.

V. 연백조가 계정에 반영된 경제 실상

박영진가 기업이 연백조가 계정으로 농사를 지은 기록이 남아 있는 1897년부터 1911년까지 기간은 조선이 국권을 상실해가는 암울한 격동의 시기로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혼란했다. 동학농민항쟁(1894), 청일전쟁(1894), 갑오경장(1895), 을미사변(1895), 아관파천(1896), 대한제국 선포(1897), 러일전쟁(1904)이 이 시기에 있었다. 이어 을사늑약(1905), 정미7조약(1907), 구한국 군대 해산(1907)이 있었고 마침내 경술국치(1910)로 조선은 일제에 국권을 상실했다.

이런 혼란한 시기 경제 실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회계장부는 거래를 집약하기 때문에 당시 사회 경제 실상을 어느 기록보다도 생생하게 반영한다. 박영진가 기업 장부는 1897년부터 1911년까지 16년 동안 농업 분야 임금 변동을 포함하고 있다. 연백조가 농지 4곳에서 일한 노비들인 송청노 봉춘노 동부노 북부

노에 대해 수확량 1뭇(束)당 다음 <표 6>과 같이 임금을 지급했다.

[표 6] 농업 노동자 임금을 추이

기간(시점)	1뭇 당 임금율(량)	비 고
1897 - 1899	0.15	
1900 - 1901	0.25(66.7% 인상)	
1902 - 1910	0.40(60% 인상)	1910년 3월10일까지
1910년 8월16일	0.43(7.5% 인상)	
1910년 10월25일	0.3885(11.3% 인하)	
1911년 10월11일	0.49(26.1% 인상)	4곳 중 2곳은 0.48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영진가 기업은 1897년부터 3년 동안 수확량 1뭇당 0.15량을 임금으로 지급하다가 1901년에 0.25량으로 66.7% 인상하여 2년 동안 지급했다. 1902년에는 60% 인상하여 0.40량을 1910년 3월까지 9년 동안 지급했다.

1910년 10월 25일에는 0.3885량으로 인하했으나 1911년에는 0.49량으로 26.1% 인상했다. 임금 인상은 당시 농업 노동시장 여건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나 여건이 어떻게 변해서 임금에 반영되었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신분 차이 때문에 노비 임금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낮았을 가능성도 있다. 외거노비와 일반 노동자 임금 차이를 분석하면 외거노비의 당시 사회적 위치를 실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본 논문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다.

1911년까지도 노비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 사회 제도와 맞지 않다. 1895년 갑오경장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4곳 노비들 신분은 해방되었지만 관행적으로 여전히 노비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장부에 노비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박영진가 기업 장부에는 갑오경장 후에도 노비를 거래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1908년 5월24일 노비 김오복 부부와 5월에 태어난 자식을 포함한 3

인을 1,044량을 지급하고 매입했다. 이 거래 분개에서 捧次(봉차)로 표시했기 때문에 노비를 박영진가 기업 자산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³⁹⁾ 이 장부 기록은 제도상으로 해방된 노비가 실질적으로 해방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는 증거다.

아래 <표 7>은 경작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한 벼 섬당 가격 시계열이다. 시계열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나 가격 추이는 알 수 있다. 벼 가격은 오늘날 정부 구매에서 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묵동에서 수확한 벼 가격이 1900년 12월 10일에 90량, 1906년 6월 21일에 150량, 1909년 2월 25일에 160량으로 전반적인 가격 추이에 비해서 이례적임⁴⁰⁾을 제외하고는 수확지 별 가격 추이는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벼 가격이 1907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1908년에는 보합세였다. 1909년 하반기에 들어 가격이 급락했다. 벼당 벼 기준으로 1908년 5월 27일 섬 당 200량에서 1년 후인 1909년 6월 15일에는 144량으로 28%나 하락했다. 1910년부터 다시 급등해서 벼 1섬 가격이 1911년 2월 6일에는 300량이 되었다.

벼 가격 추이는 위에서 살펴본 노동자 임금 변동과 일관성이 있다. 못 당 임금이 0.40량으로 안정되어 있던 1902년부터 1910년 3월까지 기간에 약간의 시차는 있으나 벼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1910년 10월 25일 일시적인 임금 하락도 직전 벼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추된다. 1911년 10월 11일 못 당 임금이 0.43량으로 상승한 것도 1911년 초부터 벼 가격이 급등한 상황론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관찰수가 적어 벼 가격과 임금 변동 간 통계적 분석이 의미는 없다. 대체로 임

39) 1908년 자산 계정 총계정원장인 외상장책과 대차대조표인 주회계가 결락되어 노비 매입이 실제 박영진가 장부 자산으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회계집작초도 결락이기 때문에 매입한 노비가 소유주 재산으로 인출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10년 주회계에 노비가 자산으로 보고되지 않아 소유주 인출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0) 묵동 벼 가격 일부가 이례적인 이유는 묵동 지역 일부 농지가 비옥도 등 경작 여건이 나빠 생산된 벼 품질도 계속 낮은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금 변동이 벼 가격 변동에 후행한 것으로 보인다. 벼 가격이 당시 조선에서 핵심 경제지표였음은 물론이다. 벼 가격 변동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면 당시 조선 경제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7] 농지별 1섬 당 벼(租) 가격 추이

단위: 량

날 짜	목 동	만화동	벽 당	성 후	비 고
1900. 12.10	90		1909		
12.29				155	
1901. 9.14			169		
1902. 9.17		150			
1903. 4.27	171				
윤5.11	190		200		
8.29		200		190	
11.10	175	180			
1904. 2.24	183				
12.19	210				
1906. 6.21	150	203.05			
11.17		200, 165			품질 차이
1907. 2.19	200				
2.21				200	
11. 9		195			
12.15	190				
1908. 1.29		195			
4.25			192		
5.27		200			
9. 4			195		
1909 2.25	160				
4.11			186		
6.15		144		144	
12.16	138	145	145	145	

날 짜	목 동	만화동	벽 당	성 후	비 고
1910. 2.14	125				
9.28		195		195	
1911. 2. 6	257		300		

* 량 미만은 반올림

박영진가 기업 장부에서 농지 가격도 시계열 구축은 가능하다. 그러나 농지는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세종 때 9등급으로 나눈 것이 조선조 말까지 존속했으나,⁴¹⁾ 장부에 기록된 매매 대상 농지 등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계열이 의미가 없다.

VI. 결론

연백조가 계정에 의한 박영진가 기업 농업경영은 소유주로부터 수탁영농이었다. 연백조가 계정은 차변에 비용을 대변에 수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순이익을 손익계산서에 보고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에 독립된 연백조가 계정으로 보고한 다음, 같은 연도 또는 이후 연도에 손익계산서로 이체했다.

박영진가 기업은 연백조가 계정 순이익으로 소유주에게 농지를 구입해주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소유주 인출로 회계처리했다. 연백조가 계정 회계는 거래 이중성과 대차평균 원리를 준수하여 분개하고 이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결산한 복식부기이다. 수익과 비용을 현금기준으로 인식했다. 이는 오늘날 발생주의(accrual accounting) 원칙과는 차이가 있으나 복식부기 원리에 반하지는 않는다.

농지는 당시 토지대장인 양안(量案) 내용을 반영해서 거래함으로써 오늘날보

41) 『목민삼서』 〈호전(戶典)〉에 의하면 관계시설 확충, 자연환경의 변화 등으로 세종 때 정한 9등급이 불합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등급이 고정되어 있어 백성들 원성이 높았다.

다 내용이 정밀했고, 계약이 모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가 없을 정도였다. 토지 면적은 결부법과 파종량 기준을 병용했다. 연백조가 계정 순이익율이 높아 당시 벼농사 수익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지 투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용을 감안하면 투자수익율은 미이너스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비를 농업 노동자로 상시 고용하고 계약한 고정 임금율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작황 풍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임금계약에 동기유인과 위험분담 효과를 반영하였다.

박영진가 기업 장부 농업회계는 20세기 전후 조선 경제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1895년 갑오경장으로 노비가 해방되었으니 현실에는 노비가 상존하고 있어 노비를 경작 노동자로 고용하였다. 임금율과 벼 가격이 시차를 두고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어 시장을 전제로 농업을 경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농업 노동자에게 현물 대신 화폐로 임금을 지급해서 당시 농촌지역에도 화폐경제가 정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본 논문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영진가 기업 장부를 제외하고는 20세기 전후 조선에서 복식부기에 의한 농업회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는 당시 농업회계 실상을 소개했다. 이는 한국 회계사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시 농업이 주종 산업이고 본 연구 자료가 기업영농이기 때문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 장부에 반영된 임금율, 벼 가격, 토지가격 자료 등은 경제사 연구에 회계자료가 유용함을 실증했다. 연구 결과는 회계사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진가 기업 복식부기 장부를 이용하여 여러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는 복식부기인지 여부(Jun et al. 2013, 허성관 2015), 회계처리 방법의 진화(허성관 2016), 삼포도중(蔘圃都中) 회계(허성관 2017), 이자율 변동(전성호 2011) 등이다. 박영진가 기업 장부를 통해 개성상인 복식부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품거래를 목적으로 결성한 도중 회계, 장부에 나타난 우리 고유 회계용어, 합작사업 이익 배분 등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고 필요한 후속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연진가 기업 장부를 이용한 경제사 관련 연구는 회계학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회계학자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백조가 계정 관련 완전한 기록이 존재하는 기간이 1897년부터 1900년까지 4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머지 기간 회계순환과정 기록을 일기장과 주회계책을 이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복원하여 분석했다. 따라서 금액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본 연구 한계이지만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참고문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증보문헌비고』, 1988.
- 신재호, 박기봉 옮김, 「고사상(古史上) 이두문의 명사(名詞) 해석법」, 『조선상고문화사』, 비봉출판사, 2007.
- 윤근호, 『한국회계사연구』, 한국연구원, 1984.
- 장지영 · 장세경, 『이두사전』, 정음사, 1976.
- 정악용, 창작과비평사 역주, 『목민심서』, 창작과비평사, 1979.
- 전성호, 「개성시변제도 연구 - 개성상인 회계장부 신용거래 분석(1887-1900)」, 『대동문화연구』 Vol. 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1.
- 정기숙, 「사개송도치부법의 기장원리와 장부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 전통회계와 내부통제 시스템 II』, 민속원, 2011.
- 허성관, 「박영진가의 19세기 사개송도치부 장부 회계순환 구조」, 『회계저널』 제24권제2호, 한국 회계학회, 2015.
- _____, 「박영진가의 19세기 복식부기 장부 회계처리 방법의 진화」, 『경영학연구』 제45권제3호, 한국경영학회, 2016.
- _____, 「박영진가 복식부기 장부의 20세기 정후 삼포(蔘圃)회계와 현대적 경영 사고」, 『경영학연구』 제46권제4호, 한국경영학회, 2017.
- 현병주, 『실용자수 송도사개치부법 전』, 덕흥서림, 1916.
- 홍기문, 『리두연구』, 한국문화사, 1957.
- Jun Seong Ho · James B. Lewis · Sung Kwan Huh, Korean Double-entry Merchants Accounts from City (1786-1892),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13 No.2), 2013.

「Abstract」

Agricultural Accounting of a Gaeseong Merchant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Huh, Sung-Kwan

This paper examines how agriculture was accounted for in the double-entry bookkeeping record of a Gaeseong merchant(Korean Listed Cultural Heritage No. 587) which had been preserved by the Park Youngjin family. The period under investigation spans from September 16, 1896 to September 15, 1910. The Younbaekjoga(延白租價) account of the record is the subject of analysis. The farming business of the proprietorship of the Park's family was entrusted with farmland by the owner of the proprietorship.

The Younbaekjoga account was recorded based on double-entry bookkeeping principles and revealed to be an income statement of the farming business in which expenses and revenue were posted to debit and credit, respectively. Net income was reported on the balance sheet as an independent account instead of the income statement of the proprietorship. However, net income was transferred to income statement in the same fiscal year or later. Revenue and expenses were recognized based on cash receipt and payment. Although this treatment violates accrual accounting in modern practice, it does not contradict double-entry bookkeeping principles. Net income was withdrawn by the owner as purchased farmland or in cash. The farming business of the proprietorship of the Park's family was very profitable in terms of accounting income. However,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is believed to be negative after consideration of cost of capital.

The details of the farmland transaction contract was standardized in

compliance with the official land register of Joseon, Rangan(量案), which describes the location, acreage, and surrounding conditions of the land. Therefore, the contract was clear enough to avoid any dispute due to ambiguity of ownership and location. Acreage of farmland was measured by both quantity of harvest and sowed seeds which correspond to the Korean traditional measurement system of Gyoulbubeob(結負法) and Pajongrangbeob(播種量法), respectively.

The acreage of farmland and number of employed farmers in the Younbaekjoga did not change during the investigated period. Employed farmers were slaves who maintained independent household economies. They were employed by annual contracts. Their wage was somewhat dependent on whether the harvest was rich or poor, although the wage rate was fixed as specifi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When harvest was rich, employed farmers were paid a bonus. Meanwhile, in a year of significantly poor harvest due to natural forces such as drought, they were paid less than the amount contracted. This wage payment practice implies that the employment contract contained incentive provisions and risk-sharing mechanisms.

Since accounting records report transactions which reflect the current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the Younbaekjoga account showed real features of Joseon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The slave system was still being practiced although it had been abolished in 1895. The unhusked rice price and wage rate moved in the same direction with a time lag. The wage rate lagged unhusked rice price. This fact indicates that the proprietorship of the Park's family managed the farming busines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market conditions, thus market economy was well established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in Joseon. It is also seen that monetary economy was prevalent in rural areas of Joseon during the same period because employed farmers were paid in cash rather than in kind.

Key words : agricultural accounting in Joseon, double-entry bookkeeping record of Gaeseong merchant, Younbaekjoga, Gyoulbubeob, farmland transaction, wage rate of employed farmers, unhusked rice price, monetary economy in rural areas

『역사와 융합』 제2집(2018. 6)

【서평】

민족의 근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찬구, 『홍산문화의 인류학적 조명』, 개벽사, 2018.-

임 형 진(경희대)

이찬구 박사의 『홍산문화의 인류학적 조명』은 그동안 숨겨져 왔던, 아니 잘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즉 단군신화는 정말 신화일까? 우리는 어머니가 곰토텐의 족에서 왔다면 아버지 쪽은 어떤 토�텐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민족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새문양은 어디에서 근거 하는가 등이 그것이다. 이를 풀기 위하여 저자는 이미 홍산지역을 답사하였고 그리고 철저한 문헌 고증 등을 통하여 그 비밀의 단추를 풀기 시작하고 있다. 이미 이찬구 박사는 철학전공자이면서도 명도전 연구를 통하여 그 역사 연구의 깊이를 인정받았었는데 이번 저서를 통하여 필생의 화두로 삼았던 보다 근원적인 민족의 비밀을 풀어 놓은 것이다.

홍산문화(紅山文化, 광의적으로 요하문명(遼河文明))은 현재의 중국 북동부인 요녕성 네이멍구 자치주 츠핑시와 랴오닝성 조양시 일대를 기반으로 존재했던 신석기 시대의 고대 문화이다. 홍산문화가 발견되었을 때부터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지역의 주인공은 중국 내륙의 중원인 황하문명과는 명백히 다른 독자문화권을 형성한 이른바

빗살무늬 토기와 적석총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연대는 놀랍게도 고조선 등 한반도 초기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시기는 대략 서기전 4,700~2,900년 경으로 ‘인류 최고(最古)의 신석기문화’라고만 규정되고 있는 홍산문화의 주인공인 우리들의 조상이라는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막연하고 감정적인 민족적 주장이 아니라 보다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에 입각한 주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찬구 박사의 저서인 『홍산문화의 인류학적 조명』은 매우 귀중한 연구와 그 결과물을 우리들 앞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문적 민족주의를 내세우기 이전에 철저한 고증과 아울러 명백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논지이다 보니 허투로 하기 어려운 내용의 무게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흥미로운 점은 환웅(한웅)의 실체를 제대로 밝혔다는 점이다. 『삼성기』에 의하면, 환웅은 하늘의 지배자인 환인의 아들로 B.C. 3897년에 최초의 민족공동체인 신시(神市)를 연 인물이다. 당시 환인은 환웅에게 세 가지 천부인(天符印)을 주며 무리 3,000명을 이끌고 가서 하늘의 뜻을 열고, 가르침을 세우고, 세상에 있으면서 잘 다스리고, 만세의 자손들의 큰 모범이 될 하늘의 법도를 세우라고 하였는데 천부인은 원방각이나 삼태극 또는 거울, 방울, 칼을 말한다. 환웅천왕은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내려와 곡식, 생명, 형벌, 질병,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모두 주관하여 재세이화(在世理化)하여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이루었다고 한다. 신시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이름을 배달(倍達)이라 했는데, 이를 신시 또는 환웅시대라고 한다. 저자는 이를 ‘신시고국(神市古國)’ 또는 배달국이라 칭하였다. 일정한 초기 형태의 국가적 행정시스템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의 또 다른 성과는 환웅이 새토텐 족이었다는 논증이다. 필자는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고전들을 섭렵하였다. 『산해경』과 『단군세기』, 『삼성기』 등과 2차 자료들을 철저히 연구해 이를 밝혀내고 있다. 즉 환웅이라는 이름이 “환(한)”은

해의 무리를 의미하고 “웅(雄)”은 ‘수리부엉이’라는 해석은 매우 참신하고 획기적이기까지 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홍산문화의 우하량유역을 중심으로 무수히 출토되고 있는 새(부엉이)문양의 옥기들이고 우리 민족의 고유의 솟대문화라는 것이다. 특별히 솟대문화에 주목하는 것은 그동안 도대체 우리 민족과 새문양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해결이었다. 전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솟대문화는 분명 머리 위에 새를 얹어 놓은 상이었다. 그 머리 위의 새는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바로 우리들의 원조상인 환웅에서 부터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흥미롭고 도 신선한 주장이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 고대사의 비밀이 한 꺼풀 벗겨지는 기분이다. 막연히 천손족인 환웅이 곰토tem족인 웅녀와 결합해 인간인 단군이 나왔다는 신화적 이야기에 갇혀 있다가 환웅의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우리 신화해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다. 물론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홍산문화의 실체를 두고 우리와 중국 학계의 서로 다른 주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고대사에 대한 강단학계와 소위 재야사학계의 의견차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어떤 분야이든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장을 편다면야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다른 논지를 학문적 입장에서 제시하면 된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반론이 부딪치면서 학문의 변증법적 발전은 이루어진다고 본다. 부디 이 책이 그러한 우리 고대사학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분명히 이 책은 단군의 신화라는 주장은 단지 억측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단군사화(檀君史話)로 써야 한다는 주장을 매우 설득력있게 전개하고 있다. 아직 많은 부분에서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 이는 전적으로 저자의 높은 필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게 하는 또 다른 재미를 제공하는 요소이다.

부 록

-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 『역사와 융합』편집위원회 규정
- 『역사와 융합』투고 및 심사 규정
- 연구 윤리 규정
- 『역사와 융합』논문심사신청서
- 『역사와 융합』논문심사서
- 『역사와 융합』게재판정 기준
- 『역사와 융합』논문심사의견서
- 알림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바른역사학술원(The Academy of Real Korean History)라 부른다.

제2조 (목적)

이 학회의 목적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존 학문의 칸막이를 넘어서 학제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연구 지평을 넓히며, 지식의 대중 확산 및 보급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3조 (사업)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회 기관지 『역사와 융합』 발간
2. 공동연구 및 학술발표회 개최
3. 국내외 학계와 교류
4. 회원 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증진
4. 일반 연구자 및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연구활동 지원
5. 일반 대중을 위한 도서 출판
6. 그밖에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4조 (회원의 구분)

이 학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평생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이 학회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하여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이로 한다.
2. 정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박사 이상의 학위 또는 단독 논문이나 저서

를 2권 이상 출간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단독 논문이나 저서를 1권 이상 출간한 자로 한다.
4. 일반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로 한다.
5.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1.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3. 회원은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학술지를 수령할 수 있다.
4. 회원은 이 학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여러 학술대회와 연구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5. 회원은 이 학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학술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회원은 이 학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
4. 회원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따라야 한다.
5. 회원은 이 학회의 행사 및 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제한)

이 학회의 회원 가운데 일정 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 학회의 목적 및 활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구성)

이 학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는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학술이사 2인, 홍보이사 2인, 학술정보이사 2인, 편집이사(편집위원장) 1인, 연구윤리위원장 1인, 해외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이 학회의 임원 자격 및 선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제청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이 학회의 임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학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관장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출납을 관리한다.
5.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 등 각종 학술행사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6. 홍보이사는 회원의 확대, 학회 유지 및 활동자금 확보 등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7. 학술정보이사는 이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 등 학술정보 업무를 담당한다.
8.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통솔 아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편집위원회규정에 따른다.
9.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과 학술지

에 게재 및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을 감독하고 심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10. 감사는 이 학회의 운영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1. 자문위원은 이 학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자문한다.

제12조 (총회)

이 학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주일 이전에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총회 소집을 알린다.

4.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구성되며,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 기타 사업계획의 승인
- ④ 그밖에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이사회)

이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의안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회장 및 부회장, 기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③ 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④ 기관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⑤ 본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⑥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⑦ 그밖에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이 학회의 기관지인 『역사와 융합』의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또한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며, 회비의 액수 및 재정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회장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계연도는 이전년도 총회로부터 이번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제16조 (행정)

이 학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장은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수당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급한다.

제17조 (해산)

이 학회의 해산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재적 회원 과반 수 출석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루어질 수 있다.

제18조 (회칙개정)

이 학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과반 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 세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20조 (시행 일자)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창립회칙)

『역사와 융합』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제11조 8항에 의거하여, 바른역사학술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와 융합』(영문명: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 Convergence)의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 편집 · 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회장단이 위촉한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정회원 중 학문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6인 이상으로 선임한다. 편집위원회는 『역사와 융합』에 투고된 모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하여, 투고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세부사항은 편집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임기 및 선임)

1.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전임 회장단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전임 및 현임 편집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2년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한 번에 모두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1. 편집위원회는 『역사와 융합』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과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역사와 융합』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임·위촉하고,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 및 2차 심사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이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역사와 융합』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조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시기를 전후하여 편집기획, 집필 의뢰, 논문심사위원 위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2.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회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편집이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6. 편집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가진다.

『역사와 융합』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바른역사학술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와 융합』에 투고되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내용)

『역사와 융합』에 실리는 글은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제2조에 의거하여 바른역사학술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미발표된 논문 · 비평논문 · 서평 · 번역 · 연구 동향 등을 포함하며,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 비평논문과 서평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발간된 서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발행 회수 및 시기)

『역사와 융합』은 연 2회 간행하며, 간행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투고 자격 및 제한)

『역사와 융합』에 글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학회 회원에 한하며, 학회비 납부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로 제한한다.

제5조 (원고 제출 및 투고신청)

투고자는 원고를 학회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탑재하고, 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파일 형태의 원고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편집이사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6조 (투고에 관한 일반사항)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소요 경비를 투고자가 부담하고, 구체적인 부담 내역은 편집위

원회에서 정한다.

3. 원고의 영문 제목 및 필자의 영문 이름을 영문개요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원고의 마지막 쪽에 한국어와 영어 각각의 주제어(key words)를 5개 이상 표기해야 한다.
5. 투고 원고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한다.
 - ① 원고 제목 ② 저자 이름 ③ 한국어 초록 ④ 한국어 주제어 ⑤ 참고문헌
 - ⑥ 영어 제목 ⑦ 투고자 영문명 ⑧ 영문 초록(Abstract) ⑨ 영어 주제어

제7조 (원고 작성 요령)

1. 외래어 표기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6호(1995. 3. 16)의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어 표기 후 원어를 병기할 경우 ()를 사용한다. 『』나 「」와 병용할 경우는 기호 안쪽에 기재한다.

보기)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 저자 이름

저자 이름 끝에 *표를 위첨자한 후 소속, 직위, 전공분야를 각주로 기입한다. (※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필자를 앞에, 공동 필자를 뒤에 기재한다.)

3. 본문

- ① 본문의 장절 표기는 1, 1.1, 1.1.1' 순서로 한다.
- ② 본문의 내용 중 직접 인용은 “ ”로, 간접인용이나 강조 부분은 ‘ ’나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다.
- ③ 본문에 인용된 문헌의 출처는 미주가 아닌 각주 달음으로 표기하며, 달음 양식은 다음과 같다.

〈동양 문헌〉 서적의 경우 『서명』, 논문의 경우 논문명.

－ (서적)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보기) 이덕일, 『우리 안의 식민사관』, 만권당, 2014, 24쪽.

－ (논문) 저자, 「논문제목」, 『단행본 또는 학술지명』 권호수, 출판연도, 쪽수.

보기) 김병기, 「의열단원 우산 남정각의 독립운동」, 『용인향토문화연구』 제11집, 2010,

271~300쪽.

〈서양 문헌〉 서적의 경우 서명(이탈릭), 논문의 경우 “논문명”.

– (서적) 저자, 서명(이탈릭),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ex) Chung-shin,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2, 101~102쪽.

– (논문) 저자, 논문제목, 단행본 또는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기관, 출판연도, 쪽수.

ex) Evelyn Pluhar, “Animal Rights”, in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 1, Academic Press, 1998, 165쪽.

4. 원고 형식

① 학회지에 투고할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판짜기를 한다.

– 용지 크기 : 사용자정의 – 폭 152, 길이 224

– 용지 방향 : 좁게

– 용지 여백 : 위 10, 아래 10, 왼쪽 10, 오른쪽 10, 머리말 10, 꼬리말 5

② 논문 각 부분의 글자 속성 및 문단 속성은 다음과 같다.

제목 \ 속성		글자 크기	글자모양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논문 제목		14	신명 태명조	170%	하지 않음	가운데
이름 및 소속		11	신명 태명조	165%	하지 않음	오른쪽
장 제목 : I.		12	신명 태명조	175%	하지 않음	가운데
절 제목 : 1		11	신명조	175%	10.0pt	양쪽 정렬
소 제목 : 1)		10	신명조	175%		
세부 제목 : (1)						
미세 제목 : ①						
본문		10.5	산돌 명조	175%	10.0pt	양쪽 정렬
인용문		9.5	산돌 명조	160%	하지 않음	양쪽 정렬
인용문헌	제목	8.5	산돌 고딕	175%	하지 않음	가운데
	내용	9.5	산돌 명조	160%	하지 않음	양쪽 정렬
표 / 그림	제목	9	산돌 고딕	140%	하지 않음	가운데
	내용	9	산돌 명조	145%	하지 않음	양쪽 정렬
각주		8.5	산돌 명조	140%	하지 않음	양쪽 정렬

제목 \ 속성		글자 크기	글자모양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초록 : 산돌명조, 10pt, 175%	제목	15	산돌 명조	175%	하지 않음	가운데
	이름	10	산돌 명조	160%	하지 않음	오른쪽
	내용	10.5	산돌 명조	175%	10.0pt	양쪽 정렬
공통	자간 : 한글-2%/영문-3%					

〈기타〉

-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를 사용해서 표기한다.
- 각주에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줄고나 줄저 등으로 표기하지 않고 이름을 그대로 적는다.
- 신문과 같은 일간지의 기사를 인용할 경우, 『신문명』 연. 월. 일을 표기하되, 마침표(.)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표는 〈표 1〉, 〈표 2〉 등으로 표시한다.
도면이나 지도, 사진 등도 위의 〈 〉 표시를 따른다.

제8조 (심사)

1. 심사 내용

투고된 원고는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과 내용의 학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를 받는다. 단, 논문 이외의 글은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며, 게재를 결정하는 최종 판정의 권한을 갖는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의견, 특히 해당 분야에 전문가이거나 근접한 분야를 전공하는 편집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중 선정될 수 있다.

3. 심사위원 제한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4. 심사 절차

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일체의 단서를 없앤 상태의 원고를 제공하여야 하

고,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비밀로 한다.

5. 심사 기준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학술지 성격에 적합성 정도, 논문의 독창성,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연구주제의 전문성과 중요성, 편집기준의 준수 정도 등 각 항목에 '탁월함', '우수함', '보통임', '결함 있음'의 성적을 <별지 1>과 같은 심사평가서에 표시한다.
- ② 심사위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심사평가서에 종합적인 심사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6. 게재 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심사결과에 종합하여 <별지 2>의 게재 판정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7. 심사료

투고자는 투고와 함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추가 소요비용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 매수가 120매가 넘을 경우, 추가 비용을 투고자가 부담하나, 최대 17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추가 부담 내역은 분량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투고자 연락 책임)

편집위원회는 원고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단, 투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주저자에게만 통보한다. 주저자는 투고 원고의 글쓴이 명단 가운데 맨 앞에 표기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편집)

『역사와 융합』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1조 (별쇄본)

『역사와 융합』에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해당호 3부와 별쇄본 10부를 우송한다.

제12조 (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회의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효력)

이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갖는다.

연구 윤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바른역사학술원 회칙 제11조 9항에 의거하여, 모든 회원이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의 준수와 부정행위 금지

제2조 (투고)

1. 논문의 독창성

바른역사학술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와 융합』에 게재될 목적으로 논문을 투고할 때는 해당 분야의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저자는 같은 논문을 국내외 다른 학술지 및 단행본에 중복투고하거나 중복게재해서는 안 된다.

2. 표절 금지

저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연구 내용(아이디어나 가설, 주장, 이론,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제시해서는 안 된다.

3. 위조 및 변조 금지

저자는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인위적으로 조작, 왜곡, 변형, 삭제해서는 안 된다.

4. 저자 표시의 정당성

연구 내용이나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또한 거꾸로 학술적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

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제3조 (심사)

1.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논문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심사 사실과 내용의 비공개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사실과 심사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위반 사실 통보의 의무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 (편집)

1.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각각의 투고 논문에 대해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판단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3.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사실과 심사 내용 및 수합된 결과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논문게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투고자와 심사자 및 심사에 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연구윤리 문제 발생 시 대응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등이 투고 논문과 관련한 연구윤리상의 문제를 제시할 때에는 신속히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에게 알려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대응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1.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의 선임

연구윤리위원은 정회원 가운데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3. 연구윤리위원의 임기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보 또는 보고받았을 때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1. 사안의 조사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 및 보고된 사안을 조사한다. 이 경우, 제보자 · 해당 저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연구윤리위원 중 해당 저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조사 · 심의 ·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2. 소명의 기회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소된 사안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저자에게 제소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 저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심의 시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해야 한다.

4. 사안의 처리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 위반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내용을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5. 결과의 통보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제보자 및 보고자와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제보자와 해당 저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신원 보호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해당 저자의 권리 보호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저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저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의 비밀 유지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일체의 절차를 비밀로 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재심의

제보자 또는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제재 조치)

1. 게재 취소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역사와 융합』에 게재를 취소한다.

2. 위반 사실 공지

바른역사학술원 홈페이지와 『역사와 융합』에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5년간 투고 금지

해당 저자는 향후 5년간 『역사와 융합』에 투고할 수 없다.

4. 기관 통지

해당 저자의 소속기관 및 연구비수혜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통지한다.

제 4 장 부 칙

제9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바른역사학술원

『역사와 융합』 논문 심사 신청서

성명 (한글)		성명 (영문)			
소속		전공		직위	
논문명 및 분야					
현주소	(집)				
	(학교)				
전화	(직장)		(주택)		(이동)
E-mail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학술대회발표 (해당란에 V표 하십시오)		_____ 해당사항없음 _____ ()년 ()차 (준계/추계) 학술대회			
<p>1. 위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동화와번역』 제30호에 투고합니다.</p> <p>2. 본인은 투고한 논문이 『역사와융합』에 수록되었을 경우 같은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전문 학술정보 사이트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원문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3. 본인은 귀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이 름 :</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바른역사학술원 원장 귀하</p>					

『역사와 융합』 논문심사서

논문제목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탁월	우수	보통	결함		
학술지 성격 정합 정도	–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학제간 대화와 소통에 힘쓰며, 지식의 대중 확산 및 보급에 기여한다는 학술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가?						
논문의 독창성	– 독창적이고 참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논증과정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가? 언어 표현이 명료하고 적절한가?						
연구주제의 전문성과 중요성	–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충분히 학술적이고 전문적이며, 대중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편집기준의 준수 정도	– 논문의 구성 형식이 학술지의 편집 기준에 맞는가?						
게재여부	종 합 평 가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총 평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경우 수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이 모자랄 경우에는 다음 장까지 계속 이어 쓰셔도 좋습니다.)							

심사자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심사일 :

년

월

일

『역사와 융합』 게재판정 기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최종판정 결과	조치
1	수정 없이 게재	수정 없이 게재	수정 없이 게재	게재
2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 검토 후 게재 판정
3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제 3의 심사위원에게 게 재가부 심사 의뢰
4	수정 없이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제3의 심사위원에게 게재 가부 심사 의뢰
5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 검토 후 게재판정
6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제 3의 심사위원에게 게 재가부 심사 의뢰
7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8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제 3의 심사위원에게 게 재가부 심사 의뢰
9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0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역사와 융합』심사의견서

글쓴이	밝히지 않음	소속	밝히지 않음
논문제목			

총평 :

수정 사항 :

알 림

■ 『역사와 융합』 제3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바른역사학술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논문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역사 · 문학 · 문화 관련 연구자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출 판 일 : 2018년 12월 30일

2) 원고 마감 : 2018년 10월 30일

3) 원고 내용 : 역사 · 문학 · 문화 관련 연구

4) 투고 방법 :

가. 보내실 곳 : hgr1379@naver.com

나. 반드시 학술원에서 정한 투고 형식을 지켜주십시오.(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홈페이지

이지 ‘학술이야기 – 한국바른역사이야기’의 자료 참조 <http://historyin.org>)

다. ‘논문 심사 신청서’를 같이 보내주십시오.(홈페이지 자료를 참조)

5) 심 사 료 : 6만원(우리은행 1002-947-402494 이덕일)

6) 원고 분량 : 200자 원고 120매 내외

※ 투고한 논문은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홈페이지 심사 규정 참조)

※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접수 시 반드시 확인 메일을 드립니다.

※ 저희 학술원은 외국어 논문의 투고를 적극 장려합니다.

■ 바른역사학술원 홈페이지 <http://historyin.org>

역사와 융합 제2호

2018년 6월 25일 인쇄

2018년 6월 30일 발행

지은이 바른역사학술원

발행인 이덕일

펴낸곳 사단법인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1층
Tel. 02-711-1379 Fax. 02-704-1390

인쇄 모든인쇄문화사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50번길 58(삼성동)
Tel. 042-632-0308 Fax. 042-632-0309

『역사와 융합』은 모든인쇄문화사의 기부로 발간됩니다.

홈페이지 <http://www.historyin.org>